

HI

라디오서울 한국TV매거진

Sep 24, 2024 VOL.29



개국 32주년을 축하합니다!

최고의 한인 암 전문의와
함께하면 치료가 달라집니다

LA 한인타운 (213) 725-2857
부에나 파크 (714) 455-3739

USC Norris Comprehensive
Cancer Center
Keck Medicine of USC



황인용 심장 / 혈관 내과

Inyong Hwang, M.D. FACC, RPVI, ABVM



www.HeartDoctorLA.com
www.황인용따뜻한심장내과.com
3130 West Olympic Blvd,
Suite #250, LA, CA. 90006

(213) 528-1111

성민산삼한방병원

www.sansamsale.com



809 S. Hobart Blvd. L.A., CA 90005
(진료시간 월-토 09:30am-06:30pm)

(213)385-3304 (산삼공사)

김예자 공인 에이전트

메디케어, 오바마케어
무료 상담



Ye Ja Kim (김예자) Lic #: OF07964
Lee JiHoon (이지훈) Lic #: 4276029
714.773.2939 714.872.9377

562.640.0643

표지모델 - 제로베이스원 한유진

교통사고

213-468-1000

브라이언 타필라 변호사
www.cz.law
CZ Law Firm



은퇴, 상속, 절세,
401K 롤오버, 생명보험 학자금,
재정에 대한 모든 문의와 플랜은

626-827-9599

문선영의 머니토크

라디오서울 문선영의 머니토크
미국최초/미국최고, 미국유일의 재정방송
라디오문선영의 머니토크(라디오서울 AM
토요일 오후 4시/ 일요일 오후 4시)



미래관광

유럽에서 온 유럽 전문여행사
고객만족도 1위!



213.385.1000

중국 정통 한의학으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치유합니다.

나음한의원

6281 BEACH BLVD #117
BUENA PARK, CA 90621

(657)325-4000

라디오뉴스는 라디오서울 가장 빠른 radioseoul1650.com



개국 32주년을 축하합니다!

USC 암 건강 관리 클리닉

암이 걱정하신 분들을 위해 **원스톱 주치의 서비스**를 USC 노리스 종합 암센터 LA 한인 타운과 부에나 파크 오피스에서 새롭게 시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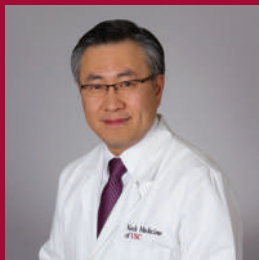
암 연구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명성을 갖고 있는 USC 노리스 종합 암센터의 전문의들은 진단에서 질병 예방, 치료, 암 완치자들의 후속 건강 관리 및 2차 소견까지 암에 관한 모든 분야에 걸쳐 완벽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고위험군 환자를 위해서는 차별화된 프리미엄 검진에서 유전자 검사, 생활 습관 및 영양 상담까지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암 치료의 어느 단계에 있든 저희 암 전문의들은 세계 최고의 전문가로서 가장 적합한 맞춤 치료 플랜과 신속하고 체계적인 의료 서비스로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함께하면 한계는 없습니다.

미국내 탑 15 암센터



안상훈 MD, MPH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한국 국립암센터 암 예방검진 전임의
USC 의대 종양(암) 내과 부교수
USC 노리스 종합 암센터 LA 한인타운 및 부에나 파크 오피스 디렉터
미국 내과 전문의, 종양(암) 내과 전문의

메디케어, 메디칼, PPO 보험을 받습니다.
지금 한국어로 상담해 보세요!

LA 한인타운 (213) 668-5802

500 South Virgil Ave Suite 502, Los Angeles, CA 90020

부에나 파크 (714) 759-9613

5832 Beach Blvd Suite 201, Buena Park, CA 90621

KeckMedicine.org/KT



USC Norris Comprehensive Cancer Center

Keck Medicine of **USC**

© 2024 Keck Medicine of USC

Jang Yoon Jeong

장윤정

장윤정 밴드와 안무팀
라이브 공연

11월 16일, 토요일 · 7PM

티켓 가격 \$90부터 시작

PECHANGA SUMMIT 라이브 공연

티켓 구매 핫라인: 714.232.0000 또는 온라인 KoreanConcert.net

자세한 정보는 전화 문의 888.810.8871 또는 웹사이트 pechanga.com

방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77.711.2WIN • PECHANGA.COM

남가주 와인 컨트리 테메쿨라 벨리에 있으며,
I-15 출구에 인접해 교통이 편리합니다.
45000 Pechanga Parkway, Temecula, CA 92592

본사는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21세 이상만 도박이 가능합니다.
도박 문제 상담 전화 1.800.GAMBLER.





개국 32주년을 축하합니다!

이루고 싶은 **꿈** 이 있나요?

당신이 늘 그려오던 꿈,
PCB BANK는 고객 한분 한분에 맞춘
더 전문적인 서비스로, 당신의 꿈을 키워갑니다.
PCB BANK의 능력으로 내일의 가능성을 만들어 가세요.

오늘의 PCBility,
내일의 Possibility



mypcbbank.com

“라디오서울 생방송과 지난 방송 다시 듣기, 그리고 매거진에 게재된 뉴스 등 다양한 정보와 읽을 거리, 들을 거리가 있는 radioseoul1650.com 을 컴퓨터, 핸드폰으로 방문하세요.”

라디오 서울 방송 개국 32주년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이 올해 9월 15일로 개국 32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32년동안 미주 한인 사회와 함께 희노애락을 함께 하면서 이민 사회의 길잡이 역할을 해온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은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와 라디오 서울 앱을 통해 전세계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은 1992년, AM 1300 라디오 한국으로 방송을 시작한후 이듬해 미주 한국 방송 KCB 를 인수해 93.5 FM 시대를 거쳐 1996년 AM 1650 라디오 서울로 바뀌어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한인 이민자들을 위한 신속한 뉴스와 생생한 생활정보로 방송에 맡겨진 역할에 충실하면서 한인 사회의 중심점 역할을 하면서 이민사회의 길잡이가 되도록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라디오 서울과 함께 해온 애청자들은 한인사회를 위해서 항상 발빠르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즐거움을 가져다줘 고맙다는 말과 함께 앞으로도 한인사회의 든든한 길잡이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 거주하는 애청자 공계선씨는 지난 25년동안 줄곧 라디오 서울을 청취해왔으며 다양한 뉴스를 알기 쉽게 전달해줘 즐겨듣는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이 정확하기 때문에 듣고 있으면 궁금증이 시원하게 해소돼요, 다른 청취자들도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엘에이의 타미 차씨는 이십여년동안 라디오 서울에 주파수를 고정해온 애청자로, 직업상 운전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라디오 서울을 듣는 즐거움에 운전대를 잡는 손이 신난다고 밝혔습니다.

“모닝 뉴스부터 시작해서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부라보 마이 라이프까지 즐겨듣는

라 시간이 가는줄도 모릅니다.32주년을 맞이한 라디오서울에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한인사회에 즐거움과 유익한 정보를 전해주세요.”

라디오 서울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 각종 정보에 목말랐던 한인 사회에 소중한 정보의 창구 역할을 하고, 범 커뮤니티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백신 접종 행사,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변한 입시정보를 알려주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세미나로 커뮤니티의 중심점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전 올림픽 경찰서 후원회장인 브래드리 변호사는 정보에 목말랐던 코로나 펜데믹 동안 라디오 서울이 소중한 정보의 창구 역할을 한 덕분에 타운내 올림픽 경찰서 폐쇄

를 막는 서명운동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타운을 지키는 경찰서를 지킬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중요한 정보들을 전달해주는 라디오서울에 감사한 마음 뿐입니다,앞으로도 한인 사회에 많은 정보를 전달해주세요.”

미주는 물론 전세계에서 청취자 반응과 문의가 답지해 방송 진행자들을 놀라게 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은 또 올들어 웹사이트 www.radioseoul1650.com 의 새 플랫폼을 론치해, 주 7일 하루 24시간 웹사이트로 업데이트되는 발빠른 뉴스와 함께, 1.5세와 2세, 타인종까지로 영역을 넓히는 영어 뉴스도 시작했습니다.



CONTENTS

- radioseoul1650.com 많이 본 뉴스 5
- 전미주 한국일보 네트워크 뉴스 8
- 서울경제 뉴스와이드 14
- 라디오서울 그때 이 뉴스 19
- H STUDENT 리포트 28
- 한국일보, 서울경제 댓글와글와글 20
- H 피플 45
- 택시기사미스터리 시소설 35
- 내 몸에 좋은 H 꿀팁- 24 24
- 오늘의 영어단어 한마디 24
- K-NOW 영문판 Kpop 뉴스 41
- 리처드 김 미국 사는 이야기 27
- H 휴지통 : 마켓진상 19
- 서울경제 시사경제칼럼 21
- H 음악다방, 오늘저녁 이노래 56
- H 톡톡 인터뷰 : 크리스틴 신 51
- H 동네책방 : 알라딘서점 신간안내 50
- 성소영박사 강철멘탈클래스 34
- 문상열 스포츠 뒷얘기들 59
- H 핫픽 포토갤러리 61

구독문의
323-692-2054

www.koreatimes.com

광고문의 : **213-304-3486**

캘리포니아 주의회의 무책임한 법안 통과..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서류 미비 학생들의 고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이 법안은 연방 이민법과 충돌합니다. 주 정부가 연방법을 무시하고 독자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헌법 질서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법의 지배 원칙이 무너지면 사회 전반의 질서와 안정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이 법안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민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불공정합니다. 정당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는 법 준수의 의미를 퇴색시킵니다.

셋째, 이러한 접근은 장기적으로 이민 시스

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공정한 이민 정책 대신 임시 방편적 해결책에 의존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 특히 이 법안을 추진한 민주당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법질서를 경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권과 정의라는 명분 아래 불법적인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물론 서류 미비 학생들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야 하지만, 그 해결책은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모색되어야 합니다. 연방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합법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올바른 접근 방식일 것입니다.

미주 한인 유권자들: 2024 대선의 숨은 변수



그레이스 유 10지구 LA시의원 후보가 21일 기금모금 행사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선거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미국 대선이 다가오면서 다양한 유권자 그룹의 동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주 한인 커뮤니티의 표심이 흥미로운 분석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모델 마이너리티'로 인식되어 온 한인 커뮤니티가 이번 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분열된 한인 표심

미주 한인 사회 내부의 정치적 성향은 여러 요인에 따라 복잡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세대, 거주 지역, 소득 수준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1. 고소득층: 부를 축적한 장기 거주 한인들과 고학력 2-3세대는 주로 공화당을 지지합니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는 세금 정책입니

다.

2. 저소득 시니어층: 정부 혜택에 민감한 이 그룹은 민주당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3. 젊은 세대: 교육 수준이 높고 미국 사회에 깊이 동화된 이들은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보입니다.

양당의 무관심과 한인들의 불만
대다수 미주 한인들은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로부터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한인 커뮤니티의 정치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양당은 아시아계 미국인, 특히 한인 유권자들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스윙 스테이트에서의 영향력

미주 한인 유권자들의 영향력은 지역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 **블루 스테이트:** 민주당이 우세한 주에서는 한인 표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입니다.

• **스윙 스테이트:** 접전 지역에서는 한인 유권자들의 선택이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지아, 네바다, 펜실베이니아 등에서 한인 표심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4 대선에서의 잠재적 영향

1. 핵심 스윙 스테이트 공략: 양당은 스윙 스테이트의 한인 유권자들을 겨냥한 맞춤형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주요 관심사를 반영한 정책 제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2. 경제 정책의 중요성: 세금과 경

제 정책이 한인 유권자들의 표심을 좌우할 핵심 요인이 될 것입니다. 양당은 이를 고려한 메시지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3. 세대 간 갈등과 조화: 1세대와 2-3세대 간의 정치적 견해 차이를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한인 커뮤니티의 정치적 영향력을 결정할 것입니다.

4. 정치 참여 독려: 양당이 한인 유권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면, 이는 한인 사회의 정치 참여율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

2024년 미국 대선에서 미주 한인 유권자들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전망이다. 특히 접전 지역에서 한인들의 표심이 선거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숨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니다. 양당은 한인 커뮤니티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이해하고,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미주 한인 사회 역시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통해 자신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미국 정치의 주요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AI는 우리를 어디로 끌고갈 것인가?

자고 나면 AI 뉴스가 넘친다. 아니, 자다가도 AI 꿈을 꾸다. 인간의 꿈쩍한 상상력은 드디어 AI를 만들었고, 대중들은 각자의 상상으로 자신만의 AI에 대한 환상과 기대, 우려에 가득 차 있다.

인간이 AI를 만들었지만, 이제부터는 AI가 이끄는 대로 살아갈 것이라는 현실을 대부분의 인간은 알지 못한다. 이것을 아는 인간들은 AI를 이용하여 다수의 인간들을 조정할 것이고, 속세의 성공을 거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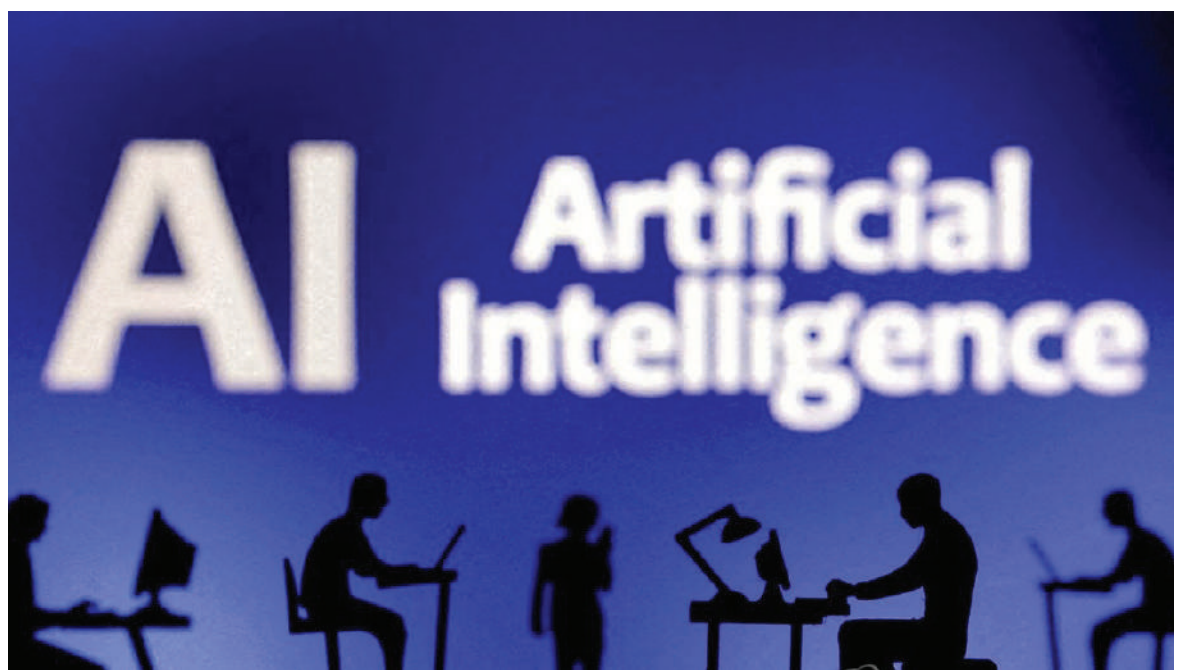
영화 'Matrix'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는 AI가 만든 세상을 더 선호하는 이들이 있다. 자신의 의지보다는 절대적인 힘이 제공하는 편의로움을 더 선호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열린 판도라의 상자가 인류를 어디로 끌고 갈 것인지는 이제 아무도 상상할 수 없다. 더 좋은 세상일지 아니면 상상도 못할 세상일지... 이 역시 이젠 AI가 결정해 줄 것이다.

우리는 지금 AI혁명의 한가운데에 있다. 이 기술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방향성은 아직 불분명하다. AI가 제공하는 편의와 효율성은 매력적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자율성과 인간성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AI를 단순한 도구로 보는 시각은 이제 더 이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AI는 이미 도구의 영역을 넘어서, 인간의 의지를 조정하고 결정을 좌우하는 주인의 위치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AI는 우리의 선택을 유도하고, 사고방식을 형성하며, 심지어 우리의 욕구까지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더욱 복잡해졌다. AI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우리는 인간의 고유한 가치와 자율성을 어떻게 지켜낼 것



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AI와 공존하면서도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의지를 보존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결국, AI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갈 것인가라는 질문의 답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흐름에 무작정 휩쓸리기보다는 비판적 사고와 윤리적 판단을 통

해 AI의 발전 방향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의 미래는 AI와 인간이 어떤 관계를 맺어갈지 달려 있으며, 이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도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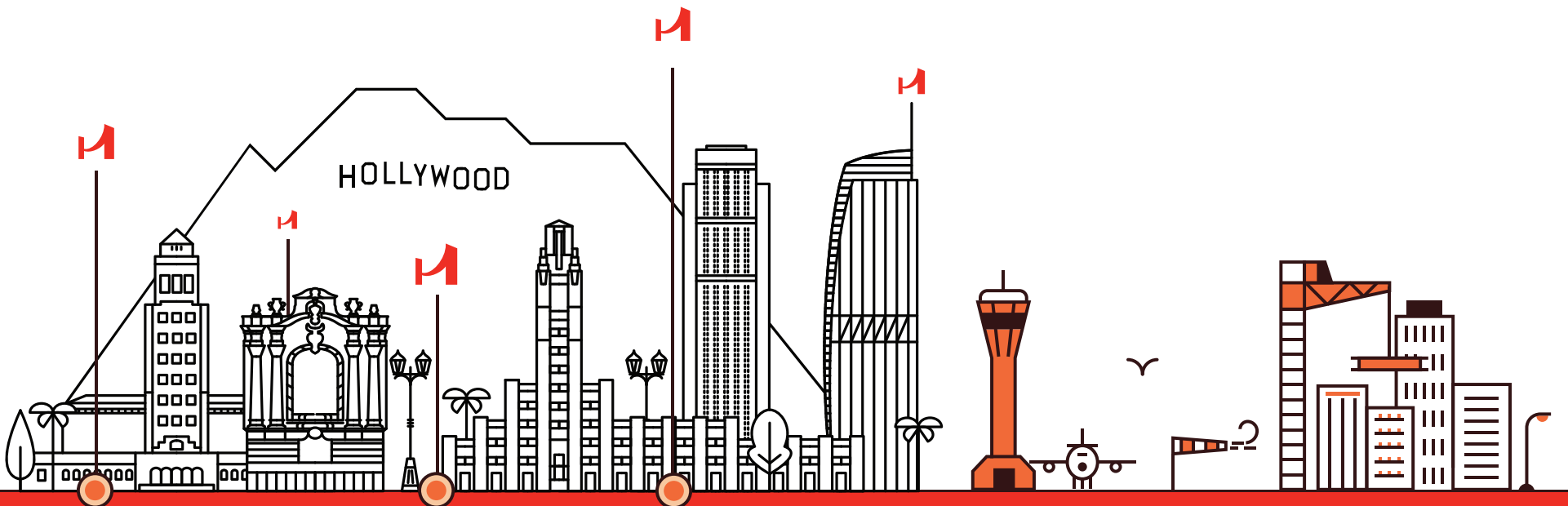
개국 32주년을 축하합니다!

한미은행에서

뱅킹은 더 편리하게 예금은 더 안전하게

40년 이상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 해온 한미은행이
미 전역의 지점 네트워크와 온라인, 모바일로
더 편리하고 안전한 뱅킹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Bank on Your Dreams
 Hanmi Bank



In New York

뉴욕일원 한인 6명중 1명은 65세이상 '고령층'

본보, 2023년 ACS자료 분석 고령인구 16%대로 전체평균보다 높아 전국 한인인구 7년만에 감소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인구가 7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연방센서스국이 12일 발표한 2023년 아메리칸커뮤니티서베이(ACS)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 전체 한인 인구(혼혈 포함)는 202만3,517명으로 전년보다 1.37% 줄어든 것으로 추산됐다.

ACS의 미 전체 한인 인구 추산에서 전년 대

비 감소세를 보인 것은 2016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ACS 역대 통계에 따르면 미 전체 한인 인구는 2017년 188만7,914명에서 2019년 190만명(190만8,503명)을 넘어선 데 이어, 2022년 200만명(205만1,572) 선을 돌파한 바 있다.

미국 주별로 한인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뉴욕주와 네 번째로 많은 뉴저지주 역시 인구수

■2023년 ACS 한인 인구 현황

지역	인구수	전년비
뉴욕주	15만4,137명	-0.05%
뉴욕시	9만2,120명	-3.98%
뉴저지주	10만8,840명	0.32%
미전체	202만3,517명	-1.37%

■2023년 ACS 한인 주요 지표

구분	뉴욕주	뉴저지주
중간연령	39.1세	41.4세
65세이상 비율	16.3%	16.2%
영어외 언어구사	63.4%	72.8%
가구당 중간소득	91,604달러	117,554달러

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뉴욕주 한인 인구는 2023년에 15만4,137명으로 추산돼 전년보다 0.05% 줄었다. 특히 뉴욕시의 한인 인구는 9만2,120명으로 전년 대비 3.98% 줄어 주 전체 한인 인구 감소율보다 높았다.

뉴저지주는 한인 인구가 10만8,840명으로 전년보다 0.32% 소폭 늘었지만 오차범위를 감안하면 사실상 답보 상태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주의 한인 인구가 56만4,44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뉴욕주와 텍사스주(13만152명), 뉴저지주, 워싱턴주(10만5,60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뉴욕주와 뉴저지주 모두 한인 고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뉴욕주 한인 중간 연령은 39.1세 뉴저지주는 41.4세로 나타났다. 이는 미 전체 한인 중간 연령 37.3세보다 높은 것이다. 아울러 65세 이상 비율은 뉴욕주와 뉴저지주 모두 16%대로 나타났다. 뉴욕 일원 한인 6명 중 1명은 65세 이상 고령층인 셈이다. 이는 미 전체 한인 가운데 65% 이상 비율인 14.4%보다 높다.

연령대별로는 청년층인 18~24세는 뉴욕(8.2%)이 뉴저지(5.8%) 보다 전체 인구

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그러나 중년층인 45~54세는 뉴저지(15.5%)가 뉴욕(13.8%)보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이 외에 뉴욕 한인 가운데 약 15%는 혼혈로 나타났다. 뉴저지 한인 중 혼혈 비율은 약 10%로 뉴욕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또 한국 등 해외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한인 가운데 2010년 이후 이민자 비율은 뉴욕 19.4%, 뉴저지 20.7%로 나타났다.

뉴저지의 경우 뉴욕보다 상대적으로 최근에 이민 온 한인 비율이 높은 셈이다. 하지만 뉴욕과 뉴저지 모두 한인 이민자 중 60%는 2000년 이전에 미국으로 건너온 이들로 여전히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가정 내에서 영어가 아닌 언어를 구사하는 한인 비율은 뉴욕 63.4%, 뉴저지 72.8%로 한인 중 다수는 영어보다 한국어 사용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가구당 소득의 경우 뉴욕 한인 가구는 중간 소득이 9만1,604달러, 뉴저지 한인 가구는 11만7,554달러로 추산됐다. 건강보험 미가입율은 뉴욕 5.6%, 뉴저지 5.9%로 추산됐다. ACS는 센서스국이 매년 실시하는 연례 표본조사다.



‘2024 코리안 퍼레이드 및 페스티벌’서 ‘뉴욕 K-모델 2024 페스티벌’ 열린다

▶ K-타운 야외 특설무대에서 20~70대 남녀 모델 모집

내달 5일 ‘2024 코리안 퍼레이드 및 페스티벌’이 5년 만에 다시 열리는 가운데 맨하탄 32가 K-타운에 마련되는 야외 특설무대에서는 ‘뉴욕 K-모델 2024 페스티벌’이 개최된다.

뉴욕 더 모델스(대표 박상훈)가 주관하는 제2회 코리안 시니어 모델 선발대회 & 코리안 퍼레이드 런웨이로 참가자들은 맨하탄에서 펼쳐지는 코리안 퍼레이드 및 페스티벌에 참가해 젊은 시절 품었던 꿈과 열정을 발산한다.

박상훈 대표는 “지난 2021년 성공적으로 열린 제1회 뉴욕 시니어모델 패션쇼 이후 처음 열리는 행사로 한인 시니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제2회 코리안 시니어 모델 선발대회지만 페스티벌 성격이 강한 만큼 남녀 젊은 모델도 모집한다는 방침인데

연령대별 런웨이를 통해 행사장을 한층 더 품격있고 화려하게 장식한다는 계획이다.

참가대상은 20~70대 남녀로 718-724-3100이나 ktownstudio32@gmail.com 으로 문의 및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들은 행사 1주일 전 자기부담(약 50달러)으로 워킹 등 모델 트레이닝 교육을 받게 되며 행사 당일 주최 측이 제공하는 의상을 입고 퍼레이드에 참석한 후 페스티벌 특설 무대에 올라 멋진 워킹을 선보이게 된다.

박 대표는 “이날 행사는 예선전 성격으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11월 본선을 치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대회는 뉴욕한인회 후원으로 실시된다.

<이진수 기자>



In Washington DC

워싱턴 일원 개스 값 푹 떨어져



10일 현재 애난데일의 한 주유소에서 판매중인 개솔린 가격이 눈길을 끌고 있다.

■ 당분간 더 내릴 듯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등 워싱턴 일원의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개스 가격이 한달새 푹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개스 가격 정보사이트인 ‘개스버디’에 따르면 지난 8일 버지니아 리치몬드 내 567개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레귤러 개스의 갤런 당 가격이 3.15달러로 한달 전보다 24센트나 떨어졌고 1년전보다는 33센트 하락한 수준이다.

개스 값 하락은 한인들이 많이 사는 북버지니아에서도 쉽게 알 수 있는데 애난데일의 한 주유소에서는 현금으로 구입할 경우 갤런당 2.89달러, 카드 결제 시에는 2.95달러까지 떨어진 상태이다. 또 대부분의 주유소에서는 갤런 당 3.25달러에 팔고 있다.

메릴랜드의 경우 10일 현재 레귤러 개솔린의 갤런당 평균 가격은 3.16달러로, 한 주전의 3.25달러보다는 9센트 떨어졌고, 한달 전의 3.49달러보다 무려 33센트나 낮아

진 것으로 파악됐다.

워싱턴 DC에서는 갤런당 평균 가격이 3.51달러를 기록, 한 주전보다는 7센트, 한달전보다는 9센트 하락했다.

개스버디 측은 “개스 값 하락세는 6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많은 미국인들이 가을철 들면서 운전을 덜하고 원유 가격도 2021년 이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때문으로 당분간 하향 안정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덕 기자>

VA 등 9개주 ‘식중독균 오염 계란’ 리콜



버지니아 등 9개 주에서 판매중이던 식중독균에 오염된 계란이 리콜 중이어서 마켓에서 계란 구입 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6일 버지니아주를 비롯해 일리노이, 미시건, 위스칸신, 캘리포니아, 콜로

라도, 아이오와, 미네소타, 유타 등 9개주에서 판매 중이던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계란을 먹고 65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24명이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해당 계란을 리콜한다고 밝혔다. 리콜된 계란의 상표명은 ‘Milo’s Poultry Farm’(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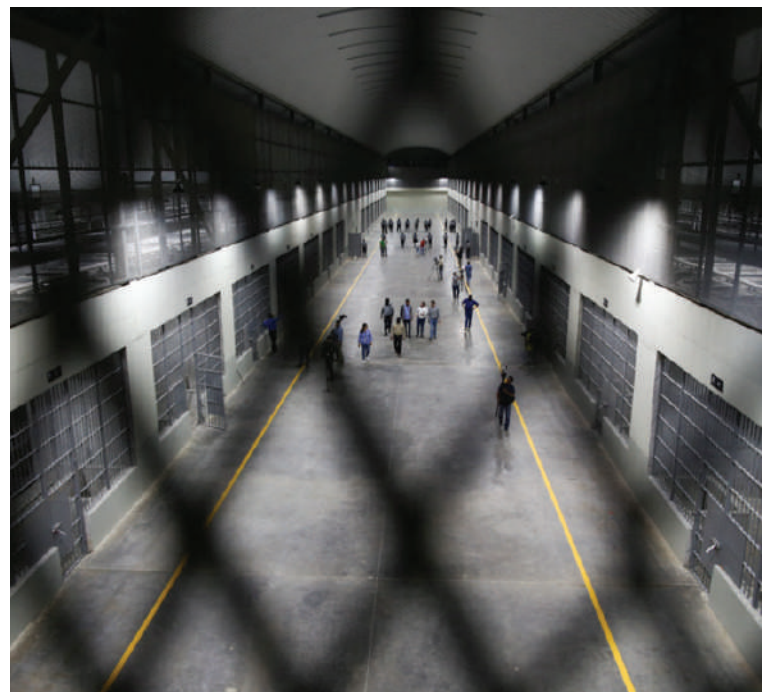
또는 ‘Tony’s Fresh Market’이며 케이지 프리 또는 오가닉 계란이다.

식중독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주는 위스칸신으로 42명이었고 일리노이에서도 11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버지니아에서는 1명으로 파악됐다.

“미주 한국일보 10개의 지사를 통해 매일 게재되는 뉴스 중 어느 지역에 살든 공감할 수 있는 소식, 정보와 각 지역의 한인사회 뉴스를 뽑아서 4페이지에 걸쳐 게재합니다. 지역별, 지사 별 더 상세한 뉴스와 정보는 koreatimes.com 을 보십시오.”

In Seattle

“청소년구치소서 성폭행 당했다”...성인된 전수감자 118명 주정부 상대로 집단 보상소송 제기



워싱턴주의 각 지역 청소년구치소에서 교도관, 카운슬러, 의사 등 직원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전수감자 118명이 주정부를 상대로 액수 미상의 피해보상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을 대리해 5일 킹 카운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편하버 오슬러드 변호사는 청소년구치소의 성폭행은 일시적 감독소홀이나 일부 못된 직원들로 인한 것이 아니라 구치소의 제도적 결함 때문이라며 수감자들을 극악무도한 범죄에서 보호하지 못한 책임이 주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들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시기는 196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였고 나이는 8세부터 17세까지였다. 성폭행 장소는 그린힐 스쿨, 에코 글렌 청소년센터, 메이플 레인 스쿨, 나셀 청소년 캠프 등 주정부 아동청년가족부(DCYF)가 관리하는 18개 청소년구치소 및 합숙소였다.

이들이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한 구치소 직원들은 총 100여명에 달했으며 이들의 직책은 교도관, 경비

원, 카운슬러, 의사, 성경공부 교사, 간호사, 청소부 등 20여종에 달했다. 한 의사는 2018년에도 성폭행 혐의로 고발당해 주정부가 피해자에게 20만달러를 배상한 것으로 밝혀졌다.

청소년구치소의 성폭행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주정부는 2021년 세헤일리스에 소재한 그린힐 스쿨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제소한 10명의 전수감자들에게 200만달러를 보상했다. 같은 해 나셀 청소년 캠프(현재는 폐쇄)에서 성폭행 당했다는 4명에게도 80만5,000달러를 보상했다.

오슬러드 변호사는 표면에 드러난 청소년구치소의 성폭행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며 피해자들이 숨기고 싶어 하거나 성인이 된 후 가해자의 신원이나 자세한 피해정황을 잊어버려 공론화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법률회사가 피해자들을 수소문한 후 주 전역에서 1,000명이 넘는 전수감자들로부터 성폭행 피해제보가 쇄도했다고 덧붙였다.

In Seattle

워싱턴주 주민들 별로 행복하지 않다... 미 전국 50개중 행복순위서 28위 중위권으로 밀려



최근 미국인들이 고물가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주 주민들도 행복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

개인금융정보업체인 월렛허브(wallet hub)가 미국 50개주를 대상으로 우울증, 수입, 실업률 등 모두 30개 항목을 조사해 행복지수를 산출한 결과, 워싱턴주는 미국에서 28번째로 행복한 주라는 평가를 받았다. 워싱턴주는 같은 조사에서 2021년까지만 해도 13위 정도였다. 지난 2022년부터 순위가 크게 하락하기

시작했고 지난해에는 22위에서 올해는 또다시 6계단이 추락했다.

월렛허브가 랭킹 산정을 위해 ▲감정적·육체적 웰빙랭킹 ▲작업환경 순위 ▲커뮤니티·환경랭킹 등 3개로 분류한 결과, 워싱턴주는 감정 및 육체적 웰빙랭킹에서 24위, 일하는 작업환경분야는 38위, 커뮤니티나 주변 환경에서는 18위를 기록했다.

미국에서 가장 행복한 주민들은 미국 본토와 떨어져 있는 하와이주 주민들로 평가를 받은 가운데 매릴랜드가 2위, 뉴저지주가 3위, 유타주

가 4위, 델라웨어가 5위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서북미인 오리건주는 주민들의 행복지수는 39위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38위에서 한 계단 하락했다.

미국에서 주민들이 가장 불행하다는 평가를 받은 곳은 루이지애나주가 꼽혔으며, 아칸사스, 웨스트 버지니아, 테네시, 뉴멕시코 등이 최하위권을 형성했다.

한편 미국인의 47%만이 현재의 삶의 방식에 매우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n Hawaii

한국 투자 한식당 '온기(ONKEE)' 하와이 오픈

한국의 유명 고기구이 전문점 삼원가든이 하와이에 진출해 한국 전통 고기구이 전문점으로 정통 한식을 선보인다.

한국어로 "난로에서 나오는 불로 지은 음식의 따뜻함"을 의미하는 이름을 따서 ONKEE Korean Grill House로 카카야코 워드 빌리지의 코올라 2층에 오픈했다.

삼원가든 정통의 한국식 바베큐, 풍성한 탕류, 국수 요리 등 한식 맛을 선보인다.

온기는 한국 정통의 맛을 선보이기 위해 한국 황토로 만든 옹기 식기는 물론 식자재에도 심혈을 기울여 하

와이를 찾는 세계인들에게 한국 정통의 고기 맛과 음식을 선보이기 위해 조리 과정도 한국 전통의 부뚜막 온기를 더한 음식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고객들과 교감하며 심신의 건강을 더하는 메뉴를 선보인다.

ONKEE Korean Grill House는 카카야코 아우아히 스트리트 1000번지, 코올라 2층에 위치하고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오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영업한다. 자세한 내용은 레스토랑에 (808) 312-3758로 문의하거나 웹사이트 www.onkeehi.com 을 방문하면 된다.



“메디케어 가입 페널티 요주의”

“소셜연금, Extra Help, 메디케어, 오바마케어 상담 및 신청”

김예자 공인 에이전트

미국에서 소셜 연금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메디케어이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인 김예자 에이전트에 따르면 특히 파트 A는 메디케어 택스 크레딧이 40점 이하인 경우 매월 내야 하는 프리미엄이 적지 않으므로 미리미리 메디케어 택스 크레딧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메디케어는 65세 생일달 3개월 전후로 가입해야 한다.

**지연 기간의 2배
기간동안 1년에 10% 벌금**

◆ 파트A 프리미엄과 페널티
메디케어 택스 크레딧이 40

점이하인 경우 본인의 택스 크레딧에 따라 매월 프리미엄을 내고 가입해야 한다.

또한 파트A 가입을 지연하면 늦은 기간 2배의 기간 동안 월 10%의 페널티를 내야 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크레딧 점수	1점~29점	30점~39점
매월 프리미엄	\$ 505	\$ 278

**1년에 10% 페널티를
평생동안 지불해야**

◆ 파트 B 프리미엄과 페널티
파트 B보험료는 2024년 현재 174.70 달러이다.

파트 B 또한 65세 생일달 3개월 전후로 가입해야 하는데, 파트 B가입을 지연 신청하게 되면 1년에 10%의 페널티를 평생

내야 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65세 생일 달
3개월 전후로 가입해야**

◆ 파트 D 페널티

파트 D 또한 마찬가지로 65세 생일달 3개월 전후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을 지연 신청하게 되면 1개월에 1%씩 페널티를 평생 내야 한다.

김예자 에이전트는 “간혹 메디케어 상담을 받다 보면 65세에는 건강해서 약이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약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70세쯤 약이 필요해서 약보험을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5년동안(60개월) 가입 지연에 따른 60%의 페널티를 평생 내야 한다” 고 설명했다.



메디케어 무료 상담 및 신청을 친절히 도와주는 캘리포니아 공인 김예자 에이전트. 6400643@gmail.com

**메디케어 파트 D
지연 신청 페널티 면제**

◆ Extra Help(처방약 보조 프로그램)

대부분의 65세 이상 시니어들은 소셜 연금이 주 수입원

이 되므로 Extra Help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Extra Help 자격이 되면 메디케어 파트 D지연 신청에 따른 큰 페널티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처방약 또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 Extra Help 자격

Your Situation	Income Limit	Resource Limit
Individual	\$ 22,590	\$ 17,220
Married Couple	\$ 30,660	\$ 34,360

김예자 에이전트(Kim Yeja, Lic #OF07964)는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의 무료 상담 및 신청을 도와주고 있다. 더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전화로 하면 된다.

Ye ja Kim(김예자)

Lic # : OF07964

562.640.0643

714.773.2939

714.872.9377



개국 32주년을 축하합니다!

“그때는 가진 게
아이디어 밖에 없었죠”



세상엔 아직 [성장] 되어야 할
비즈니스가 많기에 금융이 해야 할 일을 합니다.

비즈니스의 시작부터 성공까지
**CBB와 함께 하면
기업은 강해집니다**

Sync up for success



In San Francisco

AI 이용한 저작권 도난 추적 인터넷 시대에 최적화된 지적재산 보호 플랫폼



창업 2년이 안된 스타트업 회사가 기업가치 22억달러가 넘는 회사로 평가되면서 미 언론들이 앞다투어 지면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화제의 기업 스토리 프로토콜을 자회사로 둔 'PIP 랩스' 대표 한인 이승윤씨(34세).

설립 2년이 채 안된 창업 기업이 누적 합계 1억 4천만 달러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미국의 포브스 등 주요 언론들은 최근 팔로알토에 기반을 둔 창업 기업이 기업 가치 22억5천만 달러에 달하는 기업을 토하고 있다며 창업 초창기 6천만불에 이어 최근에 8천만달러 규모의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했다고 전했다.

미 언론들의 지면을 뜨겁게 달군 화제의 기업은 스토리 프로토콜을 자회사로 둔 'PIP 랩스'로 이 회사의 대표인 이승윤씨(34세)이다.

스토리 프로토콜은 크리에이터가

자신의 지적 재산권(IP)을 등록한 뒤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 추적하고 모니터링하여 법적, 경제적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는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 기업이다.

이승윤 대표는 "스토리 프로토콜을 통해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자는 콘텐츠의 사용 및 배포 방식에 관계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광범위한 공유와 협업을 장려한다는 목적 아래 크리에이터와 플랫폼 간의 새로운 경제적 계약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 인프라 구축이 기술 개발의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빅테크 회사들의 지적 재산권 제

실리콘밸리 한인 기업열전 165. 'PIP 랩스' 이승윤 대표
출처 추적, 라이선싱 및 수익 공유 기능 설립 2년도 채 안돼 1억4천만달러 투자 유치

작자 동의 없이 사용하는 사례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작자들의 수익을 모두 가져가는 이런 도난 행위를 모니터링해 도난 행위를 방지하고 정당한 지적재산권 사용 보상을 받아야겠죠."

이 대표는 "현재 인공지능(AI) 시대는 독창적인 IP를 만들려는 동기를 완전히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IP 도용은 새로운 일은 아니지만, AI의 부상으로 인해 학습이라는 명목 아래 저작권이 있는 자료가 무단으로 수집되면서 지적재산권 침해의 위험성이 더욱 커졌다"고 분석했다.

(중략)

이승윤 대표는 영미권 웹소설 플랫폼 '레디쉬'를 창업해 5년 만에 카카오에 5000억원에 매각해 스타 창업가로 부각된 바 있는 인물.

이 대표는 옥스퍼드대 유니온 회장으로 처음 유명해졌고 그 이후에는 런던에서 바이라인이라는 크라우드 펀딩 기반 저널리즘 스타트업을 진행했다. 바이라인은 그 후 '레디쉬'라는 북미 웹소설 플랫폼으로 피봇(회사 전략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었고 우여곡절 끝에 2021년 카카오에 4억 5천만불에 인수되었다.

이후 카카오의 글로벌 전략 책임자

로 재직하며 전 세계 투자 및 인수합병 활동을 총괄했다. 이 대표는 2016년 포브스 30세 이하 30인 아시아(Forbes 30 Under 30 Asia)의 초대 멤버로 선정되었으며, 이후 아시아 소사이어티의 아시아 21명 리더이자

한중일위원회의 데이비드 록펠러 펠로우이다.

이 대표는 옥스퍼드 유니온 회장 재임시 전직 국가 원수 등이 회장으로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토론 모임인 옥스퍼드 유니온의 아시아 최초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임기 동안 한국 출신 래퍼 싸이, 존 매케인 상원의원, 마르티 아띠사리 대통령 등 세계적인 연사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했고 주요 토론회와 연사 이벤트를 소개하는 연합의 자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기도 했다.

그의 창업 동료는 제이슨 레비는 포켓 쟈스라는 회사에서 2억 회 이상 다운로드되고 1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창출한 에피소트라는 모바일 스토리텔링 생태계 콘텐츠 팀의 총책



스토리 프로토콜의 개발사인 'PIP 랩스'는 이승윤 대표와 딥마인드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근무했던 제이슨 자오, 월드 비트윈 웰즈를 설립한 바가 있는 제이슨 레비가

이었다.

제이슨 자오는 스탠퍼드 재학 중 스탠퍼드 리와이어드라는 잡지의 창립 편집장이었는데, 이때부터 IP와 스토리텔링 등에 관심을 가졌다.

셋은 모두 이전에 일했었던 분야가 차이가 있지만, 저널리즘(웹소설 플랫폼), 스토리텔링 콘텐츠, 잡지의 편집장 등 공통으로 이야기와 IP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뚜렷하다.

이들 이외에도 이 회사에는 배트맨 비긴즈, 맨 오브 스틸, 터미네이터 등의 각본가로 알려진 데이빗 고이어와 디즈니 프랜차이즈 개발과 루카스 필름의 수장이었던 존 로저스 등을 고문으로 두고 있어, 콘텐츠 업계(할리우드) 쪽과의 연결이나 검증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Haewon Kim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



ENGLISH



SPANISH

노동법 포스터 온라인으로 받으세요

- 김해원 변호사 무료 배포
- 최신 임금·상해·병가 정보

●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은 2024년도 개정된 노동법을 반영한 신규 노동법 포스터를 직접 제작해 PDF파일 형식으로 온라인을 통해 배포합니다.

● 노동법 포스터의 온라인 배부는 이메일(haewonkimlaw@gmail.com)로만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및 개인 상해



개국 32주년을 축하합니다!

총 20억 달러 승소

개인상해 교통사고 전문 로펌 CZ Law.



교통사고

- 차, 트럭
- 버스 사고
- 오토바이 사고
- 자전거 사고
- 보행자 사고
- 횡단보도 사고
- Amazon, FedEx 와 Flex 운전자 사고
- Doordash & Grubhub 사고
- Uber, Lyft 사고



심각부상

- 뇌 손상
- 척추 부상
- 부당한 사망



낙상사고

- 미끄러져 넘어진 사고
- 가게 사고
- 아파트 사고
- 보행길 사고
- 헬스장 사고
- 뒷마당 사고
- 익사 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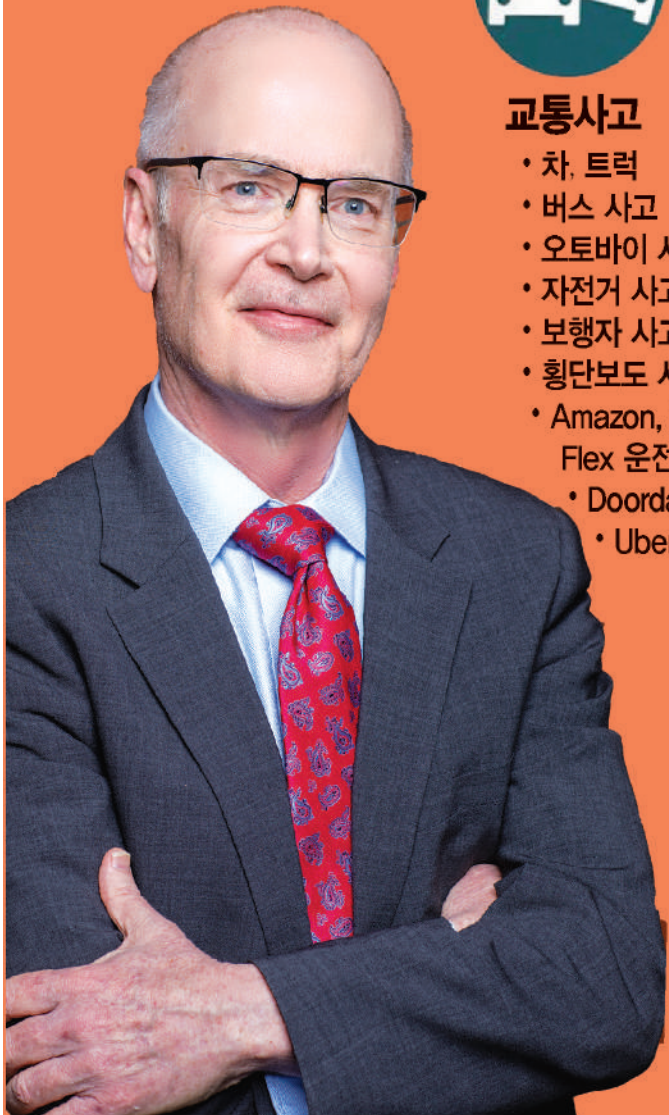
폭행

- 경찰에 의한 폭행
- 유명인물에 의한 폭행
- 경비에 의한 폭행
- 파티에서 일어난 폭행
- 개에 물린 사고



기타개인상해사건

- 소유부지법적책임
- 생산물 책임
- 의료사고
- 분만/출산 손상
- 뇌성마비
- 수술오류
- 투약과오



200여명의 직원과
한국인 부인, 한국인직원들이
작은사고부터 대형사고까지
친절히 상담해 드리며
현재 다른 사무실에서 진행중인 케이스도
무료 상담해 드립니다.



브라이언 타필라

상담 문의 **213-468-1000**

브라이언 타필라 & CZ Law 그룹

폴 주커맨



SCAN ME

www.cz.law

3600 Wilshire Blvd., Suite 1108, L.A., CA 90010

일론 머스크, 인류 최초 '조만장자' 될까... 전문가 "2027년 등극 전망"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사진=AP연합뉴스

영국 자산 분석 전문가 "일론 머스크, 조만장자 등극할 것" 시기는 "2027년 예측"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1조 자산가가 될 것이라는 전문가의 예측이 나왔다.

8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더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에 본부를 둔 자산 분석 및 마케팅 컨설팅 업체 '인포마 커넥트 아카데미'는 최근 보고서에서 머스크의 재산이 연평균 110%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전문가들은 3년 뒤 일론 머스크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1조달러

(1339조 원)의 자산가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머스크는 테슬라와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 등을 설립했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엑스, 구 트위터)를 소유하고 있다.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머스크의 순자산은 2510억 달러(336조 원)로 세계 최대 갑부다. 2027년까지 재산이 약 4배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일론 머스크 다음으로는 연간 자산 증가율 123%의 인도 아다니 그

룹의 가우탐 아다니 회장, 미국 인공지능(AI) 칩 대장주인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과 인도네시아 에너지 재벌 프라조고 팡에스투 바리토퍼시픽 그룹 회장도 2028년 조만장자에 등극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세계 최대 명품그룹인 프랑스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과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플랫폼(이하 메타)의 CEO 마크 저커버그는 2030년 조만장자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속옷 훔치고 추적 장치까지 달았다”... 딸에 집착해 목 졸라 살해한 아버지에 美 ‘발각’

20대 딸 스토킹한 50대 미국 남성 살해 후 동생 신분으로 외국 도주

미국의 한 50대 남성이 성인이 된 딸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8일(현지시간) CNN 방송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유타주 투엘에 거주하는 핵터 라몬 마르티

네스-아얄라(54)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신병 확보에 나섰다.

마르티네스는 지난 7월 31일 자택에서 친딸인 마르베아 마르티네스(25)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기소장에 따르면 마르티네스는 범행 전 수개월 동안 딸을 스토킹했다. 아버지와 함께 살던 마르베아는 아버지의 강박적인 문자메시지와 감시, 스토킹이 심해지자 며칠 동안 호텔에서 묵었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목숨을 잃었다. 마르티네스는 마르베아가 잠시 외국에 나간 사이 마르베아의 차에 추적 장치를 달았고, 이를 이용해 마

르베아가 연인과 함께 있는 것을 찾아내기도 했다.

검찰은 마르티네스의 방에서 딸의 속옷이 든 가방도 발견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아버지라기보다는 질투심 많은 연인의 본성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마르티네스는 범행 직후 텍사스로 날아가 동생의 신분증을 이용해 국경을 넘어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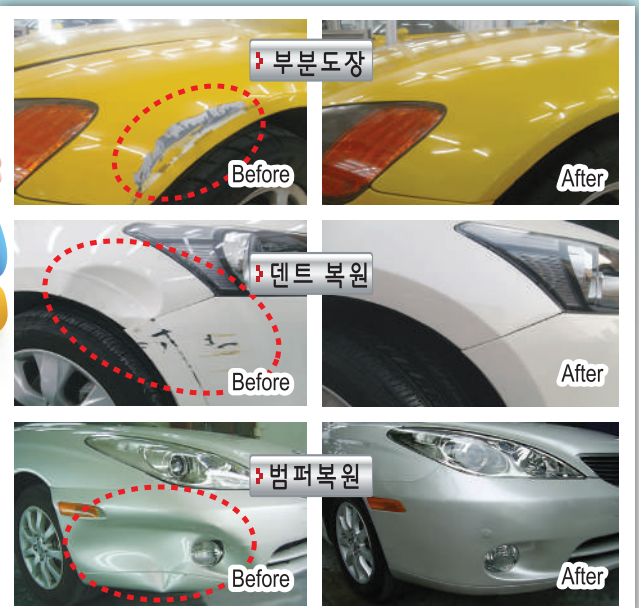
그는 동생에게 “내가 큰 실수,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며 “지금은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 같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마르베아는 올해 1월부터 솔트레이크 카운티 보안관실에 임용돼 교정 담당 보안관보로 일해왔다. 보안관실은 지난달 5일 마르베아의 부고를 알리며 “깊이 애도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흠집제거전문 덴트웨이

최저(低) 가격+최고(高) 품질
그것도 단 하루만에 끝내드립니다.

각종 보험처리 환영

- 일반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
- 서비스 평생 보증
- 무료견적 서비스
- 최상의 복원 품질보장
- 최고급 재료 사용
- 1Day 수리 완료



3225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월~금 / 8:00AM - 6:00PM ◆토 / 8:00AM - 12:00PM

Tel. 213-383-7233 (칠이삼삼)



빚 못갚을 걱정하는 美소비자, 4년4개월 만 최고치

뉴욕 연은 소비자기대조사 결과
13.6% “3개월간 상환 못할 것”
7월 총소비자대출, 2년만 최대

미국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것으로 보면서도 이전보다 가계 부채를 상환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이하 현지시간)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의 8월 소비자기대조사(SCE)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향후 1년 물가상승률은 연 3%, 5년 물가상승률은 연 2.8%로 전망했다. 전월과 같은 수준이다.

소비자들은 내년 휘발유와 주택 임대료, 의료비가 크게 오르고 식료품값과 대학 등록금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보다는 부채 상환에 대한 우려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3개월 동안 부채 상환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3개월 연속 증가해 13.6%였다. 전월 대비 0.3%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2020년 4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이후 4년 4개월 만에 가장

높다.

노동 시장에 대한 전망은 엇갈렸다. 실직 걱정은 줄어들었지만 새로운 직장을 찾을 수 있다는 기대도 낮아졌다.

향후 12개월 이내에 실직할 가능성은 전월보다 1%포인트 하락한 13.3%로, 12개월 평균 13.7%보다 낮았다. 자발적으로 이직할 확률도 전월 20.7%에서 8월 19.1%로 떨어졌다.

또한 실직 시 재취업 확률은 0.2%포인트 하락한 52.3%로 12개월 평균 53.9%보다 낮았다.

가계소득 증가 기대치는 0.1%포인트 상승한 3.1%, 소비 증가 기대치 역시 0.1% 포인트 상승한 5.0%였다. 7월 미국의 총소비자 대출은 2022년 11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은행 대출금이나 신용카드 사용 후 미결제액, 자동차 할부금융액 등 일반 소비자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총소비자 대출이 전월 대비 255억 달러(약 34조 2975억원) 증가했다고 이날 밝혔다.



미국 뉴욕의 타임스스퀘어에 있는 나스닥 마켓사이트 앞으로 행인들이 지나가고 있다. AP연합뉴스

이는 블룸버그가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예상치를 모두 뛰어넘는 것이다.

신용카드 미결제액, 차량 할부금, 학자금 대출 등이 증가하며 소매 판매 증가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7월 소매 판매는 지난해 초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자동차 할부금을 모두 뛰어넘는 것이다. 신용카드 미결제액, 차량 할부금, 학자금 대출 등이 증가하며 소매 판매 증가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7월 소매 판매는 지난해 초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자동차 할부금

융액 중 한 달 이상 연체된 비중은 2010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신용카드 신규 연체 비중도 9.05%로 약 12년 만에 가장 많이 증가했다.

<변수연 기자>

“치토스 한 봉지 때문에 세상이 변할 수도”... 美 국립공원의 경고, 무슨 일?



칼즈배드 동굴 국립공원 페이스북 캡처

미국의 유명 동굴 국립공원에서 먹다 남은 과자 한 봉지가 발견됐다.

9일(현지 시간) 미국 CNN 방송 등은 뉴멕시코주 칼즈배드 동굴 국립공원 내 ‘빅 룸’ 내부에서 발견된 치토스 과자 한 봉지를 공개했

다. 이 공원에서는 물 이외의 모든 음식을 취식할 수 없다.

공원 측은 페이스북을 통해 “과자 봉지가 쏟아져 있는 것은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사소한 일이지만 동굴에서는 생태계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이러 “옥수수 과자는 동굴의 습도로 인해 부드러워지면서 미생물과 곰팡이가 서식할 완벽한 장소가 된다”며 “과자 주위로 동굴 귀뚜라미, 진드기, 거미, 파리 등이 새로운 먹이 사슬을 만들고 곰팡이가 주변으로 점점 더 퍼져나가면서 악취가 생겨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덧붙였다.

공원 측은 이 과자 한 봉지로 생긴 곰팡이와 이물질 등을 제거하는데 20분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람은 여덟 가든 크고 작은 흔적을 남긴다”며 “세상을 더 좋은 환경으로 남겨두자”고 당부했다.

칼즈배드 동굴 국립공원은 1995년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지역으로 등재됐으며 119개가 넘는 지하 동굴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가장 큰 ‘빅 룸’에는 빙하기부터 생성되어온 기암괴

석이 자리 잡고 있어 자연의 신비로움을 선사한다. 특히 여름에 이

곳을 방문하면 박쥐 쇼를 감상할 수 있어 관광지로 유명한 곳이다.

칼즈배드 동굴서 버려진 치토스 발견
곰팡이 순식간에 번식...심한 악취도
동굴 측 “더 좋은 환경으로 남겨달라”



칼즈배드 동굴 국립공원 ‘빅 룸’ 내부 모습. 공원 홈페이지

“비둘기 밥 주지 마세요” 적발되면 85만원 내야 하는 ‘이 나라’...우리나라는?



홍콩에서 야생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5000홍콩달러(약 85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9일(현지시간)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지난 1일부터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다 걸리면 현장에서 바로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홍콩 정부는 지난달 1일 ‘야생동물 보호 조례’ 개정을 통해 비둘기에 먹이 주는 행위를 금지했다. 먹이를 주면 비둘기의 생존 능력을 떨어뜨리는 데다, 먹이를 주다가 비둘기와 접촉하게 되면 질병이나 기생충에 감

염될 위험이 있다는 판단에서 마련한 제도다.

이달 들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일각에서는 효과가 미비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앨버트 찬(50)이라는 남성은 “많은 노인들이 정책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며 “금지령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영향이 아직 느껴지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 우리나라에서도 내년 1월부터 이른바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법’이 시행된다. 작년 12월 개정된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

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 법에 근거해 내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공원이나 고수부지 등에서 비둘기 등 ‘유해 야생동물’에게 먹이 주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이를 어기는 시민에게는 최대 1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와 관련 동물권 단체 관계자들은 “야생동물법 개정안은 비둘기에게 굶어 죽으라는 소리와 같다”면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기보다 ‘불임 먹이’를 급여해 개체수를 줄이자는 대안을 내놓기도 했다.

“미성년 옷 안에 손을”...여성 4명 성추행한 가수 출신 62만 유튜버

확인된 피해자 미성년자 포함 최소 4명
유튜브 채널·명상단체·봉사단체 등 운영

구독자 62만 명을 보유한 명상 유튜버가 미성년자 포함 최소 4명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유튜브 채널과 명상 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는 명상 전문가 이모 씨에 대한 고소장이 지난 5월부터 접수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씨는 자신의 명상 센터를 찾은

수강생들을 비롯해 자신이 운영하는 봉사단체에서 만난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JTBC 보도에 따르면 이씨에게 1대 1 명상 수업을 받던 피해자 A씨는 “수업이 거의 끝날 때쯤 이씨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뒤로 돌아서 벽을 짚으려더라. 그러더니 등 뒤에서 머리부터 발 끝까지

몸을 더듬었다”고 털어놨다.

해외에 살다 귀국한 피해자 B씨에게는 영어를 알려달라며 접근한 뒤 “침대에서 같이 자고 싶다” “키스 좋아한다”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B씨는 올해 7월 이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이씨는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또 봉사활동 중 만난 지적장애 미성년자 C양에게 “많이 덤지”라고 말하면서 옷 안으로 손을 넣어서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



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서경찰서는 최소 4명의 여성이 이씨에게 피해를 받은 것으로 보고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문예빈 기자>

아세요 이 말?
이렇게 깊은 뜻이~

진상

야진짜내가살다살다 그런 **진상**은 처음 봤다.

진상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사물, 현상의 거짓 없는 참된 모습, 일의 사정이나 상황 그리고 귀한 물품을 임금이나 고관에게 바친다는 뜻이 담겨 있다.

일반 백성들이 힘들게 구해 왔 사람에게 마련해서 올려도 되짜를 맞으며 원성을 사게 하는 일이 유래되며 부정적 의미로 ‘진상을 떨다’ 라는 말로 쓰여 진상 짓이 쓸데 없는 일로 사람을 힘들게 하는 행동이나 사람을 의미하는 나쁜 말로 쓰이고 있다.

알아두면 이득, 사자성어 한마디

조변석개

朝變夕改

아침 조(朝), 변할 변(變), 저녁 석(夕), 고칠 개(改)

아침저녁으로 뜯어 고친다는 뜻으로, 계획이나 결정 따위를 일관성이 없이 자주 바꿈을 이르는 말.

조변석개하다 = 일관성이 없이 자주 바꾸다
지점장이라는 사람이 일관성 없이 **조변석개**하니 은행이 잘 돌아갈 리가 있나?

용자 나라



개국 32주년을 축하합니다!

주택구입 / 재용자 / CASH OUT / Home Equity Line of Credit 전문

집 용자는 저희가 제일 잘 합니다!

용자가 정말 쉽더군요.

Loan Fee 안받습니다

‘마지막’ 재용자 기회!

**이자가
너무 좋아졌어요**

(인컴부족
세금보고 없어도)

주택구입 재용자

Cash Out

(자영업 / 직장인 / 직업이 없어도)
용자는 다 됩니다.

비상자금

(인컴부족
세금보고 없어도)

Home Equity Line of Credit

\$500,000 까지

(자영업 / 직장인 / 직업이 없어도)
용자는 다 됩니다.

**집만
가지고 있는데**

(급한 Hard Money)
7일 내 편딩

No Credit Bad Credit

다른 곳에서 용자 거부된 분
(외국인도 한국에서 여행온 분도)
용자는 다 됩니다.

용자 나라

CENTRAL FINANCIAL GROUP INC

처음 약속한 것은 용자가 끝날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213) 388-5600

Email: ak4989@gmail.com

3700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2nd Office: : 3055 Wilshire Blvd #1150, Los Angele, CA 90010


NMLS#2318997



개국 32주년을 축하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메디케어 어려우시죠?
 **실버시티보험**을 만나면
혜택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메디케어 헬스 플랜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친절하게
무료로 상담해드립니다.**

- | | | | | | | |
|--|---|---|--|--|---|---|
| 
Annie Lee
이애니
(818) 633-0692
Lic.#OF94321 | 
Annie Myung Sim
심명숙
(714) 333-5161
Lic.#OF67828 | 
Angela Chang
장안젤라
(323) 707-4242
Lic.#OB84924 | 
Benjamin Moon
문벤자민
(213) 800-2993
Lic.#0645833 | 
B. J. Park
박범자
(213) 595-6065
Lic.#OC65066 | 
Connie Kim
김경미
(213) 321-0302
Lic.#OK85152 | 
Cindy Lee
이찬용
(909) 967-9793
Lic.#0171045 |
| 
Daniel Jung
정다니엘
(213) 999-2829
Lic.#0D60367 | 
Esther Choi
최윤경
(213) 393-1611
Lic.#OB51453 | 
Gary Moon
문게리
(213) 505-2420
Lic.#OF92634 | 
Hanna Gu
구현화
(213) 454-8164
Lic.#OM64324 | 
Hee Ran Kim
김희란
(818) 751-4433
Lic.#0I25013 | 
Helen Park
박헬렌
(213) 500-9393
Lic.#OB81853 | 
Hyun Ja Han
한현자
(760) 780-5990
Lic.#OG72353 |
| 
In Ho Paik
백인호
(213) 446-7341
Lic.#0A38972 | 
Jae Myeong Shin
신재명
(714) 900-1599
Lic.#OH09792 | 
Jin Sil Lee
이진실
(310) 803-0666
Lic.#OC19190 | 
Joanne Hong
홍조앤
(818) 606-9486
Lic.#OH98253 | 
Kyungah Chu
추경아
(310) 941-1155
Lic.#0D35285 | 
Michelle Kim
김미옥
(562) 219-6770
Lic.#OK52268 | 
Misun Cha
차미선
(213) 505-2087
Lic.#0I45353 |
| 
Miyoung Hong
홍미영
(714) 715-6345
Lic.#0672051 | 
Nataly Han
한나탈리
(213) 675-7898
Lic.#OE35909 | 
Norman Cho
조남태
(213) 700-2599
Lic.#0571988 | 
Sang Moo Shin
신상무
(562) 756-6407
Lic.#0643522 | 
Settia Kim
김희자
(626) 348-7944
Lic.#OF36240 | 
Stacy Joe
조스테이시
(310) 738-6703
Lic.#OE44925 | 
Sumi Lee
이수미
(213) 302-6191
Lic.#0I29727 |
| 
Sussy Kim
김성원
(562) 833-1885
Lic.#0812107 | 
Tom Chang
장탐
(909) 702-2882
Lic.#OK98380 | 
Yoosun Vaughn
민유선
(626) 500-7006
Lic.#0G83038 | 
Young Seon Paik
백영선
(714) 875-2243
Lic.#OC18047 | 
Yong Suk Won
원용석
(213) 200-3941
Lic.#0G76626 | <div style="background-color: #0070C0; color: white; padding: 10px; border-radius: 10px;">  <p>실버시티보험에서 함께 할
메디케어 전문 에이전트와
General Agency를 모집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메디케어 에이전트 모집</p> </div> | |

우리는 귀하의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메디케어 상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귀하의 지역에서 저희가 제공하는 메디케어 상품으로 제한됩니다. 모든 옵션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 Medicare.gov 또는 1-800-MEDICARE에 연락하십시오.

가주, 홈리스 문제 시작과 원인...



캘리포니아의 홈리스와 약물 중독, 정신이상자문제를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물고뜯는 공방이 치열하지만 그때 이 뉴스를 돌아보면 결국은 **민주 공화당이 합작으로 만든 작품**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의 만성적인 홈리스 문제는 현대 사회의 가장 복잡하고 지속적인 과제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문제의 근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변화들이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위기의 씨앗을 뿌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60년대: 홈리스 문제의 시작
1960년대는 미국 사회의 큰 변화의 시기였으며, 이는 캘리포니아 홈리스 문제의 기반을 형성했습니다.

- 1. 정신보건 정책의 변화: '탈시설화' 정책으로 많은 정신병원이 폐쇄되었습니다.** 이는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의도였으나, 충분한 지역사회 지원 시스템 없이 시행되어 많은 정신질환자들이 적절한 치료와 주거지를 잃게 되었습니다.
- 2. 저렴한 주택의 감소:** 도시 재개발 프로젝트로 인해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주택들이 철거되기 시작했습니다.

3. 베트남 전쟁의 여파: 전쟁에서 돌아온 많은 퇴역군인들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같은 정신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4. 경제 구조의 변화: 제조업 일자리가 감소하고 서비스 산업으로의 전환이 시작되면서, 저숙련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정성이 증가했습니다.

5. 사회 안전망의 약화: 1960년대 후반부터 복지 프로그램의 축소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치적 영향: 공화당과 민주당의 역할
홈리스 문제의 악화에 대한 정

치적 책임을 둘러싼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공화당의 정책이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양당 모두가 이 문제에 영향을 미쳤으며 민주당이 끼친 영향이 더욱 크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화당의 영향

- 복지 축소:** 정부의 복지 프로그램 축소 정책
- 시장 중심 경제:** 규제 완화와 자유 시장 정책으로 인한 소득 불평등 심화
- 정신건강 정책:** 레이건 주지사 시절 (1967-1975) 정신병원 폐쇄와 지역사회 중심 치료로의 전환 가속화

민주당의 영향

- 탈시설화 정책:**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1963년 지역사회 정신건강센터 법안도입, 허나 시설도입 실패
- 도시 재개발:** 린든 B. 존슨 대통령의 '위대한 사회' 프로그램에 따른 도시 재개발 정책, 의도치 않게 저소득층 주거지를 파괴하고 주거 불안정을 야기
- 공공주택 정책 변화:** 대규모 공공주택 프로젝트에서 주택 바우처 시스템으로의 전환, 일부 저소득층의 주거 선택권을 확대했지만, 충분한 저렴한 주택 공급에

는 실패

• 복지 개혁: 빌 클린턴 대통령 시기의 1996년 복지 개혁법은 현금 지원에 시간 제한을 두고 근로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이는 일부 취약계층의 경제적 안정성을 약화시켰습니다.

• 경제 정책: 지미 카터 대통령 시기에 민주당은 각종 규제 완화 정책 시작하였습니다.

결론

캘리포니아의 홈리스 문제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복잡한 사회, 경제, 정치적 요인들의 결과입니다. 이 문제를 **단순히 한 정당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것이며, 양당의 정책과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지금 벌어지는 민주 공화당의 비난 공방은 결국은 시민들을 불모란 정치적인 게임에 불과합니다. 수십년에 걸쳐 대통령, 연방, 주정부, 시정부가 관여하여 만든 각종 법안들과 당리당락이 만들어낸 사회적인 병리 현상들이 오늘날 미국 특히 캘리포니아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책임자는 역시 현재 집권하고 있는 당과 대통령이 책임을 지는 것이 맞습니다. 정치는 바로 오늘의 문제이기때문입니다.**



H-Trash

버리고 싶은 것들

마켓 진상



지난 H매거진 H-TRASH 휴지통에서 한인 커뮤니티 마켓에서 일어나는 일중에 "아, 이걸 좀 하지 말았으면..."하고 생각이 드는 꼴볼견스런 사례들을 소개 했었다. 주변에서 글을 읽은 사람들 중에 이런 일도 있다고 언급을 해주 분이 있어서 몇 자 더 적어본다.

*마켓 계산대에서 줄을 서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다 보면 이런 사람이 있다. 구입한 물건들을 계산하며 지불 할 돈을 지갑을 계산대 위에 올려 놓고 잔돈을 잔뜩 꺼내 놓고 세는 사람. 1불짜리 지폐를 연일 세다가 또 동전지갑까지

꺼내서 뒤에 길어지는 줄은 전혀 개의치 않고 1전, 10센트, 쿼터... 와 이런 진상 지친다. 가뜰이나 요즘엔 핸드폰에 카드를 스캔 저장해서 전화기로 쓰옥하고 계산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카드로 계산을 하는 세상이 되었는데 말이다. 물론, 아직도 캐쉬를 지니고 다니며 현찰 계산을 선호하는 한인들도 꽤 많다. 그 이유는 전화기에 내 신상정보나 은행구좌 신용카드를 저장해놓고 쓰기가 불안하다. 신용카드나 데빗카드를 쓰면 필요 없는 소비를 많이 하게 되기에 갖고 있는 캐쉬를 써야 된다는 이유다.

“거짓말”

댓글 8 2024년 9월 11일(수) 미주 한국일보 미주판 오피니언면 신석환 수필가



오래전 가수 김추자가 “거짓말이야”라는 노래를 불러 공전의 히트를 친 적이 있다. 가수는 절규한다. “사랑도 거짓말 웃음도 거짓말!”이라고. 사람은 살아가면서 흰색이든 빨간색이든 평균 7분마다 거짓말을 한다는 통계가 있지만, 이런 통계라는 것도 거짓말일 확률이 높다. 통계라는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이지만 요즘은 여론조사가 유행병처럼 휩쓰는 시대다. 대한민국은 이런 불확실한 여론조사를 신봉한다. (중략)

세계 수많은 나라와 민족 중에서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정직한 민족으로 꼽히는 나라가 있고 거짓말 잘하는 나라가 있음을 인정한다. 대한민국도 거짓말이 우세하다는 세간의 전통을 끊어내고 노래나 음식의 세계화처럼 K-Honest가 새로운 명물로 등장하는 날을 기대한다.

User_001 2024-09-11
이 세상에서 거짓말을 제일 많이 하고 잘하고 특하면 말바꾸고 거짓말이 뽀롱나면 기억이 안난다는 최고의 보험같은 말들을 잘하는게 누굴까?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이 나오쥬? 정치인입니다. 그들의 말에 거짓말 하구 았았네 하면서 우리들은 또 진짜겠지 설마 하면서 들어주고 믿어주고 그렇게 살아가지요

User_002 2024-09-10
언론이 아니라 공작원들...한국 애긴가?! 조선 짜라시 애긴가?! 2찍들 2번씩고 박스 좇으러 다니다 응급실 전전하다 골로가니!!! 누굴 탓하리오! 나이만 처 xx결!!ㅎㅎ

User_003 2024-09-10
ㅋㅋㅋ 바이든 아들 비리 사건은 귀에 속속 잘 들어오는데 트럼프 국회 난입 사건이나 세금 보고 위조, 성 입막음 같은 소식은 듣기 싫지? 요런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보는 책은 안읽고 유튜브만 골라보는 전형적인 트럼프들의 특징.

User_004 2024-09-10
거짓보다 더 나쁜 건 진실을 감추는 것. 미 주류언론들 특히 민주당을 빠는 NYT WP CNN NBC ABC등등은 지난 대선 때 바이든 아들의 개인 PC에 나온 모든 내용을 무시하다 해리스를 옹립하려고 일제히 사실이라고 보도해 바이든을 날렸다. 언론이 아니라 공작원들이다. 이런데 어떻게 언론을 믿을 수가 있겠는가?

User_004 2024-09-10
‘역사 왜곡 말라’외치고 나온자가 역사 왜곡하였고 교민은 그 왜곡 진실이라 믿고 부지런 하였다. 그러다 ‘왜곡이다 속았다’ 말들이 나오자 ‘당신은 왜 사기도 못치나?’ ‘진실 유포법’ 나왔고, 소금 먹은자가 진리 통결래 휘날리며 ‘그 자는 우리 편이 아니다’ 물 마시니 믿는 자도 따라 마셨다. ‘진실지옥-가짜천국’ 돈 많은 대한민국이다.

선진국인가, 후진국인가, 대한민국은...

댓글 11 2024년 9월 9일(월) 미주 한국일보 미주판 오피니언면 옥세철 논설위원 칼럼



서세동점(西勢東漸)의 시대라고 하던가. 지난 500여 년의 세월을.

그 원년은 포르투갈 출신 바스쿠 다 가마가 이끈 선단이 희망봉을 거쳐 인도 남부 지역에 도착한 1488년으로 잡는다. 이후 펼쳐진 것은 유럽열강의 일방성의 아시아 지배 역사다.

(중략)

과거에 매몰된 의식구조, 그 중중의 중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권이다. 걸핏하면 내미는 게 폐쇄적 민족주의에, 반일(反日)카드다. 그런데다가 민주화된 한국 사회를 과거 군사정권시절로 오도하며 상대를 극단적으로 악마화 한다. 이재명의 사법리스크가 커지면서 그 증세는 난데없는 계엄령 설을 퍼뜨리는 등 흑세무민의 병리화 현상마저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나, BTS인가, 아니면 문재인, 더 나가 이재명 보유국인가. 어느 것이 한국의 진정한 민얼굴일까. 아무래도...

User_001 2024-08-28
일제가 건설 한국에 깔린 수많은 철도및 수풍 댐발전소- 그 덕에 수많은 공장 가동하여 일자리 창출하였다. 라디오 TV도 일제였으며, 수많은 각종 생활 품들도 일제 덕 이였다. 구한말 문맹율 90%이상. 해방 후 중학생수준 글작성 가능 자는 0.1%. 대한민국 60년대 최첨단 특허품 연탄집게! 미개인수준 못벗어난 가짜 위안부 슬로건 ‘역사 잊은 민족 미래없다!’ ‘주권망각 통해 운동!’ ‘진실유포자 평선생만 제외하고 각종단체에 돈 더 많이 준다’는 기사가 걸렸다. 개犬 탈바가지 덮어쓴 자랑! 허구헌날 과거일제타령!

User_002 2024-08-28
답은 간단하네. 70대 60대 늙은 이들 다 죽으면 선진국이 된다. 이미 선진국인데 친일종족주의니 뭐니 하며 우리는 황국신민이었다고 우기는 늙은 이들 때문에 못 되고 있다. 노예였다는 걸 전혀 자각하지 못하는 늙은이들은 오늘이라도 파친코 라는 책 좀 사 읽어봐라. 그래도 친일종족주의란 소리가 나오나.

User_003 2024-08-28
욕이 원하는 대한민국? 일본의 속국, 미국의 속국. 스파이를 제거해야 한국이 선진국이 된다.

User_004 2024-08-28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나가려면 여태까지 못 풀고 있는 비뚤러지게 꿰메진 단추를 풀고 제대로 해야 된다. 먼저 일본에게 침략행위에 대해 진정한 사과를 받아내야하고 친일파를 몰아내고 광주 학살을 제대로 규명 해야 한다. 이것들이 다 해결이 되어야 미래로 뻗어 나갈수 있다.

당신의 은퇴 연령은 몇 세인가요?



황명하
NH투자증권
WM마스터즈 전문위원

경제활동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퇴 후의 여유로운 생활을 꿈꾼다. 여유로운 생활이라면 기본적으로 생활비 걱정없이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삶을 말한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 언제쯤 은퇴할 수 있을까?

은퇴는 현직 뿐만 아니라 모든 직업 활동에서 떠난 경우를 의미하며 직장인이라면 현재 직장을 그만들

때, 자영업자라면 사업을 접을 때를 뜻한다. 생활비 때문에, 노후 준비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건강도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에 적절한 시점에서 은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장 바람직한 건 본인이 은퇴 시점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부터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본인의 은퇴 시점을 어떻

게 생각하는지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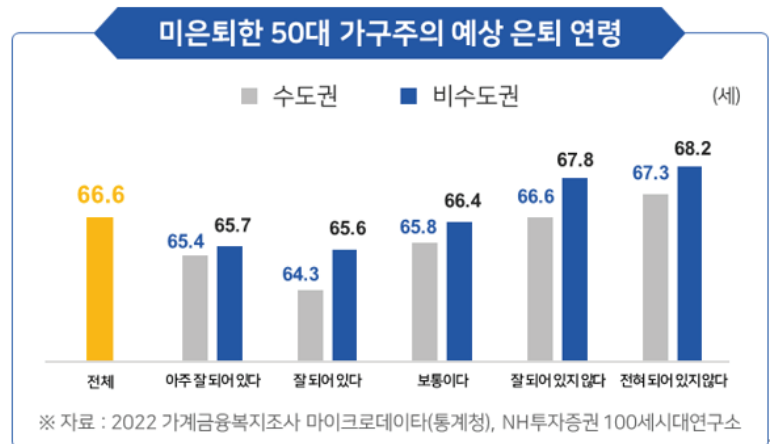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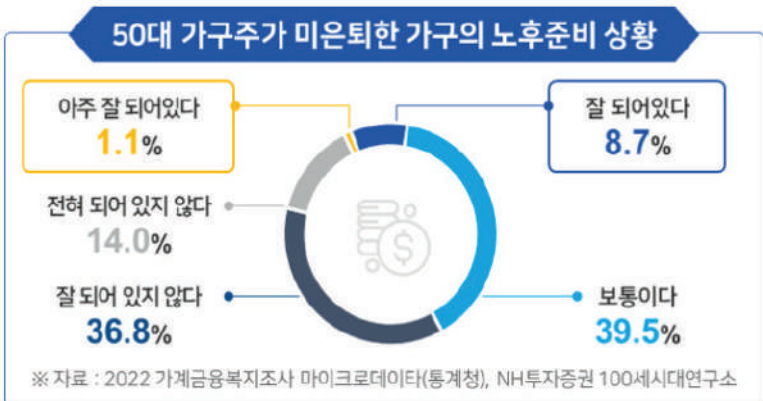
오랜 경제활동의 결과로 노후준비의 성패를 실제 가능할 수 있는 연령대는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50대다. 자영업자와는 달리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주된 직장에서의 은퇴 시점을 법적 정년인 60세 전후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현직뿐만 아니라 모든 직업 활동에서의 은퇴 연령'에서 50대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50대 가구가 미은퇴한 가구의 '노후준비 상황'을 보면 '아주 잘 돼 있다'는 응답은 1.1%, '잘 돼 있다'는 응답은 8.7%로 잘 된 가구의 비중이 10%도 채 되지 않는다. 반면 '보통이다'는 응답은 39.5%, '잘 돼 있지 않다'는 응답은 36.8%, '전혀 돼 있지 않다'는 응답은 14.0%로 나타났다. 50대 가구의 절반 이상이 노후준비가 부족한 셈이다.

이러한 50대가 예상하는 실질적인 은퇴 연령은 몇 세일까? 전체 평균은 약 67세로 나타났다. '노후준비 상황'이 '아주 잘 돼 있다'라는 가구에서 수도권 50대는 평균 65.4세, 비수도권 50대는 65.7세로 나타났다. '전혀 돼 있지 않다'라는 가구에서 수도권 50대는 67.3세, 비수도권 50대는 68.2세로 나타났다. 노후준비 상황이 좋지 않을수록 은퇴 연령을 더 높게 예상하고 있으며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 50대가 은퇴 연령을 더 높게 예상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고령층(55~79세)의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2년 5월 고령층(55~79세) 인구는 1509만 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3만 2000명(2.2%) 증가했다.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령층의 고용률은 58.1%로 전년 동월 대비 2.1%p 상승했으며 2010년 대비해서는 7.5%포인트(p)나 증가했다. 전반적인 노후준비의 부족

으로 은퇴하고 싶어도 은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노후준비는 언제 해야 할까? 은퇴하는 아닐 것이다.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시기부터 한창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시기까지 어떻게 노후준비를 했느냐에 따라 우선 은퇴 시점은 달라진다. 또 노후준비를 얼마나 잘 했느냐에 따라 은퇴 후의 생활도 달라질 것이다. 은퇴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눈 여겨 볼 부분이다.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 장례 보험으로 시작하세요”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슬픔속에서도 평온과 안정감으로 당신의 기억을 남겨주세요!

장례준비 혜택

- 경제적 안정 : 예상치 못한 장례 비용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 심리적 평온 : 가족들이 슬픔 속에서도 존경, 감사, 존엄한 장례를 치를 수 있습니다.
- 간편한 절차 : 오랜 경험의 전문가가 다룹니다. 세심한 계획으로 쉽고, 빠르게 지원합니다.

생활속에 꼭!필요한 이야기 라디오방송 진행중

- ▶ 라디오서울 1650AM 매주월요일/새벽 5:30~6:00
- ▶ 우리방송 1230AM 매주일요일/아침 7:00~7:30
- ▶ 한국TV(tvhankook.com) → 라이프 → 조마리아 · 영상 다시보기



장례보험·무료상담

PROFESSIONAL FUNERAL PLANNER www.mariachofp.com

☎ 310.987.0736 / 626.890.9545

카톡이나 문자로 간편하게 상담을 예약하세요.

LA한인타운에서 70대 한인, 난폭운전자에게 폭행피해



(사진 - 폭행피해 70대 한인)

“70대한인 김홍래씨, 난폭운전자에게 항의하다 폭행당해 중상”

김홍래씨: 월서길을 운전하다 갑자기 끼어든 차량에 너무 놀라서 차에서 내려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가해자: 시끄럽게 항의하길래 나도 내려서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경찰: 그리고?

가해자: 그리고는 우선 도망쳤습니다.....

경찰: 당신은 일단 폭행범으로 형사재판에 회부합니다.

그리고 한인타운에서 운전하시는분들 화난다고 싸우지 마세요

화를 참지않고 싸우다가 더 큰 화를 당합니다.

한인타운에서 운전할때는 참을 ‘인’을 기억하세요~~

레바논에서 삐삐와 무전기 수백대 폭발



(사진 - 레바논 삐삐 폭발피해)

“레바논대 무장단체 헤즈볼라 대원들 삐삐폭발로 3천여명 사상자 발생”

대만회사: 삐삐에 우리회사 이름써있지만 우리가 만든거 아냐!!

헝가리회사: 나는 대만회사 사용권을 매입하고 이스라엘에 넘겨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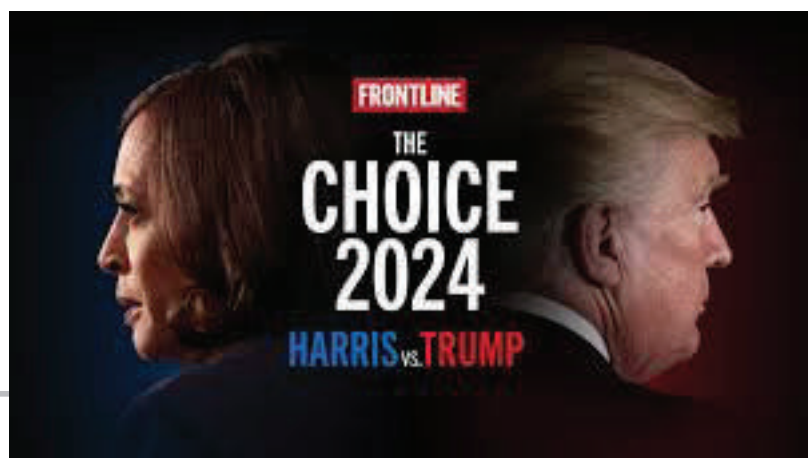
나는 그저 페이퍼 컴퍼니(유령회사)일뿐.....

이스라엘: 노 코멘트

헤즈볼라: 전면전을 각오해라

미 국:대선이 코앞인데 굶치아파 죽겠네... πππ

해리스-트럼프, 전국지지율 동률. 경합주는 트럼프 소폭우세



(사진 - 해리스와 트럼프)

“11월5일 대선 향방이 한치앞을 알수없는 박빙”

전문가: 결국은 경합주가 최종 결정하겠습니다

해리스: 전국지지율은 동률입니다. 경합주는 격차를 줄이는 중이고..

트럼프: 전국지지율 백번 좋아봐야 ‘짱’ ㅎㅎ

경합주는 내가 짝끔 우세한 상황 ㅎㅎ

전문가: 경합주도 박빙, 결국은 펜실베니아주 승자가 이길듯...

해리스: 부통령후보를 펜실베니아 주지사로 할걸 그랬나?.....

유권자: '민심은 천심' 그저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늘에 맡겨야!

FED, 기준금리 0.5%p 인하 전격 발표



(사진 - 기준금리 인하)

“미국의 기준금리가 4년반만에 빅컷(0.5%p인하)”

소비자: 야호~~ 이제 이자율이 내려가니 주택구매 서둘러야겠네!!

은행: 이자율 내려갔으니까 적금이랑 CD이자율 빨리 내려야지

(대출이자율은 그냥 조용히 내리지말고 있어봐야지..ㅎㅎ)

소비자: 어? 근데 모기지이지가 별로 안 내리네?

융자나라: 인하 발표 전에 미리 내렸습니다. 하지만 추가인하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좋은 이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융자나라는 다 됩니다.

송봉후 앵커

YouTube <송앵커의 스토리 뉴스>

라디오서울 AM1650 아침 6시 <스토리뉴스> 방송

저녁 6시 <뉴스 포커스> 방송





잘 계시죠? 라는 말은
건강하시죠 라는 말

식사는 잘 드시죠? 라는 말은
건강하시죠 라는 말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은
건강하시죠 라는 말



새로워진  서울메디칼그룹이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인사를 전합니다.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두번의 암살시도에도 살아남은 트럼프는 불사조? 끊임없는 미 대선 변수들



이서희
캘코보험 마케팅 디렉터

향을 끼칠 것으로 보였다.

이어 매우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이든 사퇴론'으로 내홍까지 겪었던 민주당은 새로운 후보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선거일을 100일도 남겨놓지 않고 해리스 부통령이 새로운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결정됨에 따라 미국 대선의 대진표가 다시 확정된 것이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결정된 직후 침체되었던 민주당에 심상치 않은 상승 기류가 감지되었다. 상당한 액수의 대선 자금이 유입되고 바이든과 다소 격차를 벌였던 트럼프와의 지지율의 차이를 줄였고 오히려 트럼프 후보보다 앞선 여론 조사 결과들도 나왔다. 민주당이 이런 상황

뒤 민주당이 심기일전의 모습을 보이며 심상치 않은 기세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황에 또 다시 트럼프에게 유리할 수 있는 변수가 발생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향한 2번째 암살 시도 사건이 발생하면서 약 50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 선거에 미칠 영향이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과연 박빙의 대선에 잇단 암살 시도 사건이 결과에 어떤 작용을 미칠까? 아직은 미지수이다.

매우 드라마틱한 대선이 되고있는 2024 미국 대통령 선거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되었다. 확고한 것은 무당파 부동층의 표심을 움직이게 하는 자가 승리를 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가 누가 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더 많은 유권자가 투표장으로 나오게 하는 것, 그리고 암살시도와 같은 사건이 양 진영의 정책과 대결을 바라보는 유권자의 시점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매우 드라마틱한 대선이 되고있는 2024 미국 대통령 선거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돼 확고한 것은 무당파 부동층의 표심을 움직이게 하는 자가 승리를 할 것이라는 전망...

2024 미 대선 과정은 정말 역동적이다. 올해 초반 하더라도 전세계 언론들은 11월 에 실시되는 미 대선에 대한 전망들을 기사화하며 조 바이든 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재대결 형태로 이뤄질 공산을 예측했다. 예상대로 민주당 후보로 바이든이, 공화당 후보로 트럼프가 각각 확정되면 두 사람은 2020

년에 이어 두 번째 대결을 벌이게 되기 때문에 이들에 '리턴매치'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능성들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화 리스크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지난 6월 27일의 첫 대선 후보 토론회에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사건이 일어나면서 트럼프는 우위의 전력을 갖게 된

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도중 피격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피가 흐르는 귀를 부여잡고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치켜들었고 이 강력한 장면은 사진으로 포착됐다. 이에 공화당 당원들은 "신이 트럼프를 구했다"며 더욱 결집했고 동정 여론이 중도층에도 적잖은 영

을 대선 경쟁의 모멘텀으로 추진력을 얻고 있다고 했고 공화당은 이 같은 상승세를 일종의 '허니문 효과'에 불과하다며 일시적 현상으로 치부했다. 하지만 공화당에선 이런 예상치 못한 변화들에 긴장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후보로 대선판 자체가 새롭게 짜인

외워두면 좋은 오늘의 영어 단어

rapacious

[rə'peɪʃəs]

1. 약탈하는
2. 탐욕스러운
3. 만족할 줄 모르는
4. 강탈하는
5. 착취하는

Also, some people who are losing their homes ARE victims of **rapacious** banking practices.

또한, 몇몇 살 곳을 잃은 사람들은 **강탈하는 듯한** 은행 관행의 피해자들이다.

The banks have not learned the necessary lessons, and persist in their unholy **rapacious** greed.

은행들은 필요한 교훈을 얻지 못했고, 지독하고 **탐욕스러운** 욕심을 지속한다.

내몸에 좋은 H 꿀 Tip

토마토 Tomato <1>

토마토는 과일과 채소의 두 가지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비타민과 무기질 공급원으로 아주 우수한 식품이다. 세계적인 장수촌(長壽村)으로 알려진 안데스 산맥 기슭의 빌카밤바(Vilcabamba) 사람들이 토마토를 많이 먹은 덕분에 장수를 누렸다고 전해 오고 있다.

토마토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에는 구연산, 사과산, 호박산, 아미노산, 루틴, 단백질, 당질, 회분, 칼슘, 철, 인, 비타민 A,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C, 식이섬유 등이 다. 비타민 C의 경우 토마토 한 개에 하루 섭취 권장량의 절반가량이 들어 있다.

토마토가 건강식품으로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라이코펜' 때문이다. 토마토의 붉은색을 만드는 라이코펜은 노화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배출시켜 세포의 젊음을 유지시키며 남성의 전립선암, 여성의 유방암, 소화기계통의 암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 라이코펜이 알코올을 분해할 때 생기는 독성물질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므로 술 마시기 전에 토마토 주스를 마시거나 토마토를 술안주로 먹는 것도 좋다.



개국 32주년을 축하합니다!



조선갈비



OPEN HOUR

매주 화요일
 쉽니다

월요일 - 일요일 (주 6일 OPEN)
오전 11시 - 오후 10시

TO GO & Delivery 서비스 해드립니다

딜리버리 Charge 가 있으며 거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런치 메뉴

갈비 닭불고기 연어구이 우거지탕 비빔밥 김치찌개 육개장 떡국
불고기 돼지불고기 갈비탕 따로국밥 된장찌개 알찌개 만두국 떡만두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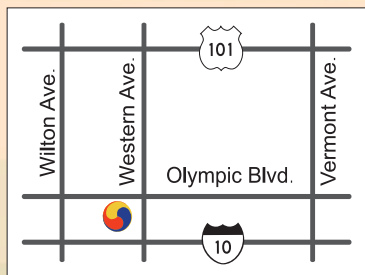
• 디너 메뉴

조선갈비 (프라임)	칠리안	갈비찜	생선전	조선전골
조선갈비 (초이스)	시배스	갈치조림	잡채	해물전골
갈비 주물럭	연어구이	은대구조림	두부전	곰창전골
소불고기	조기구이	새우전	물만두	은대구매운탕
닭, 돼지불고기	이면수	해물파전	홍어회무침	우럭매운탕



Chosun Galbee Restaurant

3330 W. Olympic Bl., L.A., CA 90019



직원 모집

- 1) 캐시어 2) 주방 쿡 하실 분
- 3) 웨이트리스 4) 매니저

* 유경험자 환영 *

(323) 734-3807

323·734·3330

323·737·3332

www.chosungalbee.com



“Southern California’s Most Dilicious Bargains”

“남가주에서 제일 맛있고 싼집”

LA타임즈도 극찬한 **해장촌**

한인의 입맛뿐 아니라 주류시장의 입맛을 사로잡은 자랑스런 해장촌돌구이!



나는 아직 가격, 맛, 서비스 그리고 분위기에서 비교할만한 음식점을 찾지 못했고 먹을 수 있는 메뉴도 다양하다.

아이린 S. LA 거주



해장촌은 한인타운에서 가장 독특한 BBQ집!! 돌판 위에서 구워지는 고기는 최고다!!

조 L., 아카데미아 거주



지금까지의 최고의 한국 BBQ집! 해장촌은 일반 갈비집보다 뛰어나다.

Sung Y., West LA 거주



All-You-Can-Eat Korean BBQ at the hip Hae Jang Chon!

LA Times Sep.16, 2009

We only use **USDA Choice and Prime Meat**

USDA 프라이م 차돌+USDA 초이스 양념갈비+USDA 초이스 생갈비+프라이م 블랙 앵거스 소불고기+프라이م 블랙 앵거스 매운 소불고기
프리미엄 블랙 앵거스 허밀+매운 돼지불고기+천겹살+캐나다산 생삼겹 (두껍게 또는 얇게)+닭불고기+매운 닭불고기+쭈꾸미+새우
오징어 불고기+막창구이+매운 소벌집양+핫도그 +계란찜+김치부침+흰밥 또는 볶음밥+된장찌개+떡보쌈+무쌈+버섯+양파+샐러드

- LUNCH : 11am~4:00pm on Weekdays, Except Holidays
- DINNER : 4:00pm to Closing Weekdays, All day on Weekends and Holidays.

무제한도 따져보고가자!

LUNCH **\$37⁹⁹** +TAX

DINNER **\$43⁹⁹** +TAX

33 가지 다양한 메뉴



마무리는
기가막힌
돌판 김치볶음밥을
만들어 드립니다!

가격은 내리고, 양은 더 푸짐하게!
고추장양념쌈밥 삼겹살 or 오징어

+된장찌개 **\$21⁹⁹** +TAX

해장촌 특선 런치 **\$17⁹⁹** +TAX

신내해장국/ 살코기 해장국
묵은지 김치찌개

입맛 없을땐, 이거 하나면 끝!
열무양푼비빔밥 +된장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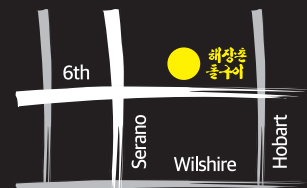
\$17⁹⁹ +TAX

해장촌돌구이
haejangchon.com



HaeJangChon Dolgooli Restaurant

213.389.8777 3821 W 6th St, L.A., CA 90020 (6가와 세라노)
월-목 11am-12am 금-토 11am-2am *일요일은 쉽니다.





리처드 김

- CSUF 사회학과 졸업
- 다음 행시문학, 미주 행시문학 카페지기
- 페이스북 <오늘의사색> 작가
- SAG AFTRA 배우 조합 회원

“미국 사회에 잘 동화하려면?”

개인의 편견은 자라 온 환경 속에서 통념화 된 사고가 고착화 된 자신만의 기준 편견의 벽을 부수지 않는 한 미국에서는 우물 안 개구리로 살아갈 수 밖에 없어

자신이 살아 온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편견인데 이러한 편견은 상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는다.

나는 다행히 편견이 없는 편인데 이민 초기에는 한국적인 사고 방식으로 편견을 가졌던 적이 있었다.

나는 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했기에 1993년 5월 인문 사회과학 졸업식이 있었다. 그날 내 상식을 깬 일이 있었는데 졸업식장에 용모가 지저분하고 반바지를 입은 학생이 졸업가운과 학사모를 한 손에 들고 스케이트 보드를 타고 졸업식에 참석했다. 그런 모습을 지켜 보면서 "어떻게 저런 학생이 졸업식에 참석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했다.

하지만 한 시간 후에 나의 편견에 대한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는 반전이 일어났다. 학과장의 졸업 축사가 끝나고 졸업장을 나누어 주기 전에 최고 성적을 거둔 졸업자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최고 성적자를

호명하는 순간 1시간 전에 반바지를 입고 스케이트 보드를 탔던 그 친구가 한 개의 전공도 아닌 세 개의 전공에서 모두 최고의 성적을 거둔 학생이었다.

미국에 이민을 와서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미국 사회에 적응하려고 노력도 해 보지도 않고 미국 사회가 이렇다 저렇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다.

한국 사람으로 같은 한국인을 이해하기도 힘든데 미국에 오래 살았어도 외국 친구들을 한 번도 사귀어 보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미국에 사는 백인 흑인 히스패닉과 다른 동양인들을 자신의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우수한 일이다.

최근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나의 오랜 취미는 라이브 음악 공연 관람으로 특히 나는 헤비메탈 마니아다. 몇 달 전에 예매한 헤비메탈 공연 관람이 있어서 할리우드 썬셋에 있는 유명 명소인 Whisky A Go Go 공연장에 다녀왔다.

헤비메탈 공연장에 가면 누구나 쉽게 친구가 된다. 그날 Whisky A Go Go 공연장에서 새로운 두 외국 친구와 대화를 나누던 중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두 친구는 미국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했고 현재 15년째 오페라 성악을 하는 친구들이었다. 어떻게 오페라 성악가가 헤비메탈 광팬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지난



38년동안 수 많은 헤비메탈 라이브 공연장을 다녔어도 오페라 성악가를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 두 친구는 공연 관람 전 헤비메탈 공연장 앞에서 나를 위해 푸치니 로시니 바그너 모짜르트의 오페라 몇 곡을 들려 주었는데 대단한 발성을 가진 실력파 성악가였다. 이런 다양성을 지닌 미국 사회에서 사람들을 걸만 보고 평가한다는 것은 미국 사회에 동화를 하는데 큰 걸림돌이 된다.

헤비메탈 공연장에 가서 외국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들만큼 순수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도 드물다. 하지만 헤비메탈 음악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검은 티셔츠를

입은 모습만 보고도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한국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개인의 편견은 자라 온 환경 속에서 통념화 된 사고가 고착화 된 자신만의 기준이다. 그러한 사고는 자신이 경험한 주관적인 판단에 불과하다.

오페라 성악가 친구 중 한 명은 전자 기타를 치며 헤비메탈 보컬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강력한 헤비메탈 연주에 성악 발성을 접목해서 노래 부르는 개성이 강한 친구였다.

이런 헤비메탈 마니아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며 인간 관계를 해 보면 순수한 영혼의 소유자들이 대부분이다.

심지어 공연 밴드들의 연주자들이나 보컬들을 공연 후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어 보면 그들만큼 겸손하고 순박한 사람들도 드물다.

인간 관계를 제대로 해 보지도 않고 함부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평하를 하는 습관이 있다면 자신의 편협함을 먼저 반성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인 이민자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편견이 심한 편이다. 이런 편견은 미국 사회에 동화하기 상당히 힘들고 항상 주변인으로 살아갈 수 밖에 없는데 이런 편견의 벽을 부수지 않는 한 미국에서 우물 안 개구리로 살아갈 수 밖에 없다.

musicplaza.com

나는 임영웅! 너는 BTS!
자녀와 함께 즐기는
뮤직플라자

아이돌 응원봉, 굿즈
포스터, 사진집 등
인기 K-POP 상품

뮤직플라자 (213)385-4725 코리아타운 플라자 1F #107, 3F #307
928 S Western Ave, Ste 107 & Ste 307 Los Angeles, CA 90006



Grace Chun

Orange County School of the Arts
9th Grade

Lesson learned from playing the violin

From the moment I walked in front of the audience and took my first bow to the end when I gave my final bow, I felt a strange feeling I had not before. Performing in front of others always made me nervous from the pressure of playing well. People always told me that there was no need to worry and that it was fine if I made a mistake. My ears had embraced that but my brain had locked it out. I was too focused on simply having a musically and technically accurate performance. But while I was playing on Friday the 13th of September, I felt a change.

Media often depicts playing an instrument, or any type of art, as something to flex with and something that they turn to to show a display of emo-

tions or the mood of the scene. My younger and innocent third grade self believed that playing the violin would be all fun and easily mastered, at least to the point where I can play popular modern day songs to my friends. My six year dynamic with it has been more like a love-hate relationship. But I can confidently say that I am growing to enjoy it more and more rather than thinking of it as pressure.

When I transferred to a different violin studio in February, I didn't expect the change in my sound. Over the months, I had gained a new perspective of music that layered on top of my old ones. I spent the months fixing my basics and working on all aspects of playing. When it was finally time for me to apply all that I had learned, I wanted to make sure that this would be the greatest performance yet. It wasn't an elaborate event; in fact, it was at a senior home. Yet, I wanted to approach it with a sense of purpose.

On the car ride to the concert, I was so tired from the school day

that I fell asleep until five minutes before I arrived. That put me in complete, absolute panic. I sprinted to the warm up area and made sure my fingers were looser than those inflatable balloons outside some stores. "Fake it 'till you make it." Fake confidence until you are. Those were my thoughts before every performance, competition, and audition.

When it was finally time for my turn in the performance, I walked onto stage, trying to feel confident. I looked at my audience which consisted of parents and seniors. I would be lying if I said that I didn't feel nervous at all but it would also be a lie if I said I was very confident. One thing was certain though. I wanted to give them my best effort.

The notes rang throughout the room as if declaring their place. I moved with the music, like a marionette with every joint hanging from strings. I never felt so prepared and ready to perform before. As a result of this, my sound quality was bold and I felt relaxed and "with the music"



as I played. Despite all of this, what struck me the most during this concert was the audience.

The seniors who were listening weren't there because anyone forced them to be. They were there out of their own will. During those moments where I glanced at the audience during my performance, I saw something on their faces that I had never seen so strongly while playing my instrument for another person. They seemed to just treasure the moment with all their heart.

Mistakes or wrong notes didn't phase them. They were just grateful for the moment. Their

smiles through the concerts and genuine applause made me want to give them more. That night, my perspective on performing changed. I wanted to perform to let the audience feel happy and share my love for music.

This new mindset allowed me to open up to other new perspectives. These allowed me to have fun, engage with other performers, and feel so thankful for this chance myself. To everyone, musician or not, I hope to encourage them to remember that you're talents can always add to making someone's day better.



Juhwan Kim

Cypress High School
12th Grade

The power of resilience

High school football is a sport of physical and mental challenges. As a defensive end, I faced my ultimate test of mental resilience during a critical game in my freshman year. I had to lead my team to victory as team captain. Our team was down by a touchdown, and the clock was ticking away in the fourth quarter. The opposing team was on the brink

of scoring again, and the pressure was mounting.

In that intense moment, I found myself doubting and exhausted. The offensive line was relentless, and my body ached from the collisions. It was easy to feel overwhelmed, but I knew I couldn't give up. I took a deep breath and focused on the fundamentals. My coaches had drilled into me the importance of technique and mental attitude. I reminded myself of the countless hours I had spent in practice, refining my skills and mental toughness. This was the moment I had prepared for. Determined, I pushed through the fatigue and dug deep into

my reserves of mental strength. I visualized success and believed in my ability to make a game-changing play. Then, it happened. As the opposing quarterback dropped back to pass, I exploded off the line of scrimmage, beating my blocker. With all my might, I extended my arm, deflecting the pass. The ball landed in the hands of one of my teammates, who sprinted downfield for a touchdown. We tied the game. That moment of mental resilience not only changed the course of the game but also defined my high school football experience. It taught me that even in the most challenging situations, I could rely on my

mental strength to persevere. It was a lesson that extended far beyond the football field, shaping me into a more resilient and determined individual.

In conclusion, my experience as a defensive end in high school

football taught me that mental resilience is a crucial trait, not just in sports but in life itself. When faced with adversity, I learned to remain calm, focus on the fundamentals, and believe in my abilities.





이지효 교수

문화콘텐츠학 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

AI 인플루언서: 새로운 디지털 시대의 선도자

AI 인플루언서는 컴퓨터 그래픽 기술과 AI 알고리즘을 결합하여 만들어진 가상의 캐릭터
AI와 인간 인플루언서 각자의 강점을 가지고 서로 보완하며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며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기업들의 필수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AI 인플루언서가 등장하며 기존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AI 인플루언서는 컴퓨터 그래픽 기술과 AI 알고리즘을 결합하여 만들어진 가상의 캐릭터로, 24시간 언제든지 콘텐츠를 제작하고 소비자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콘텐츠 제작이 가능하여 타겟 고객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AI 인플루언서의 등장은 기존 인플루언서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2016년 첫 등장한 가상 인플루언서 '릴 미켈라(Lil Miquela)'가 있습니다. 브라질계 미국인으로 설정된 릴 미켈라는 30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으며, 실제 패션 브랜드와 협업하고 광고 모델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릴 미켈라의 성공 이후 수많은 AI 인플루언서들이 등장했고, 각기 다

른 산업과 소비층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실존 인플루언서들과 마찬가지로 팔로워들과 소통하고 일상 사진이나 영상을 게시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큰 장점은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 없이 24시간 활동이 가능하고, 인간 인플루언서들이 가진 피로나 스캔들, 이미지 관리 문제로부터 자유롭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한계점도 가지고 있는데, AI 인플루언서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과의 진정성을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AI 인플루언서는 본질적으로 마케팅을 위한 도구일 뿐, 인간적인 경험을 나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소비자층은 이를 인위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인플루언서의 성장 가능성은 매우 큼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AI 인플루언서는 더욱 인간에 가까운 모습과 행동을 보일 것이며, 팔로워들과의 상호작용도 더욱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이미 일부 AI 인플루언서는 실제 사람처럼 댓글을 달고, 팔로워들과 대화를 나누며, 심지어 특정 질문에 대해 적절한 답변을 제공하는 수준에도 달했습니다.

향후 AI 인플루언서는 패션, 뷰티, 음악, 게임 등 다양한 산업에서 더욱 널리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



히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기술과 결합되어 더욱 몰입감 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 상담,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AI 인플루언서가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새로운 트렌드를 소개하며, 사회적 이슈에 대한 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AI 인플루언서는 디지털 시

대의 새로운 마케팅 도구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이 실제 인간 인플루언서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AI 인플루언서의 장점과 가능성을 고려할 때 앞으로 그들의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앞으로의 디지털 마케팅 환경에서 AI 인플루언서는 기술과 인간의 경계

를 넘나드는 흥미로운 존재로 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AI 인플루언서 시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마케팅을 위한 AI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고,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에 더욱 주력해야 할 것이며, AI 인플루언서와 함께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마지막으로 윤리적 문제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것입니다. 가짜 뉴스 생성,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 투명한 마케팅 활동을 해야 합니다. 또한, AI 인플루언서와 인간 인플루언서와는 각자의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보완하며 공존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영향력이 있는 인플루언서 최인혜 씨는 AI와 인간의 장단점이 확실하다고 강조하며 아무리 기술이 발전한다 해도 인간의 따뜻한 함은 시가 대신 할수 없다고도 하였습니다. 두 가지 형태의 인플루언서의 장단점을 잘 보완하고 공존하며 발전하기 위한 윤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할 것입니다.

AI 인플루언서 시대는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입니다.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경쟁 우위를 확보해야 합니다.

jihyol@gmail.com



“융자외길 34년”

브라이언 주 융자

213.219.9988

Leeway
FUNDING
NMLS #335934

한인 요식업계의 메타버스

전세계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사랑하게 된 요인에 한인 요식업자들의 노력 커보여
이제는 온라인 SNS 메타버스를 등에 업고 K 푸드가 더 비약적으로 발전할 전망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40-50년전 미동부에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김치독을 뒷마당에 묻던 한인들이 이웃의 신고로 경찰의 조사를 받는 일이 종종 있었다. 대형 비닐봉투에 담은 시뻘겟고 이상한 냄새 나는 내용물이 담긴 큰 독을 뒷마당에 묻는다면 그게 사람의 시신이라고 착각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주와 달리 미동부에서는 그 당시 한국 배추가 없어서 양배추로 김치를 담궜었다. 그리고 김치를 먹고 그 냄새 때문에 2세 자녀들이 학교에서 손가락질을 받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팜스프링스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는 스코틀랜드계 로스쿨 동창도 셰프인 부인과 같이 김치를 즐겨 먹고 어디 김치가 맛있냐고 물어보는 세상이 되었다. 그야말로 상전벽해다. 코스트코와 트레이드조에 한국 음식이 동이 나는 세상이다. 왜 미국인들은 중국음식과 일본식만 아냐고 한인들이 불평하던 시절이 마치 조선시대로 느껴질 정도로 K 푸드의 전파 속도는 5G 수준이다. 이렇게 전세계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사랑하게 된 데는 필자 고객들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한인 요식업자들의 공이 제일 크다고 본다. 그런데 온라인 SNS 메타버스를 등에 업고 K 푸드가 더 비약적으로 발전할 전망을 보이고 있다. 캐나다 몬트리올의 한인 김치업계, 라오스에서 한식 전파하는 사업가, 영국에서 한식당 운영하는 한인, 15600명의 팔로워가 있는 남가주의 한식당 인플루언서, 실리콘밸리 마이크로소프트 사내식당 셰프, 라스베가스에서 한국식 분식을 제공하는 한인, 뉴욕에서 한식당을 하는 한인, 한국에서 전세계에 한식을 전파하겠다고 노력하는 스타트업 사업가, 어바인에서 구운 과자 휘낭시에 개발에 전념인 한인, 사



이플러스에서 베이커리를 오픈하기 위해 애쓰는 한인 부부, 요식업계를 위한 키오스크 시스템을 제공하는 마케팅 전문가, 다운타운 LA에서 유일한 한식당을 운영하는 요리사 출신 한인, 캘리포니아주의 유명한 커피숍들을 방문하면서 감상문을 올리는 학생. 이렇게 다양한 각양각색의 전세계 한인들이 단 한가지 이유로 교류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스레드 (threads)가 아주 핫하다. 그 한가지 이유는 K 푸드의 발전이다. 서로 만나본 적도 거의 없는 그야말로 일면식도 없는 다양한 배경, 다양한 연령, 다양한 장소에 있는 한인들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놀라운 성과들을 올리고 있다. 비슷한 분야에 관심이 있으면 알고리즘에 의해 비슷한 업종의 전문가들의 글이 자동적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이다. 마치 한민족의 전통인 품앗이를 21세

기에 보고 있는 느낌이다. 누가 자기가 사는 동네에 팝업 스토어를 오픈한다고 하면 자기일처럼 방문하고, 근처에 한식당을 열었다고 하면 돈도 받지 않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식후경을 사진과 같이 소개하고, 자신들의 음식에 대해 날카로운 비평과 지적을 성숙하게 수용하면서 K 푸드 전쟁에 참전하고 있다. 한인 1세대 단체장들처럼 그 누구도 “모두 나를 추대하라”는 끈대같은 지시를 하지 않고 나 이 상관없이 동등한 입장에서 반말로 조언을 주고 받는다. 경험이 없으면 없는대로, 경험이 많으면 자신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솔직히 공유하면서 성숙한 커뮤니티를 만들어 내고 있다. 마치 전세계 한인 요식업계의 헬크, 캡틴 아메리카, 블랙 위도우,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팔콘, 호크아이, 토르같은 어벤저스 아니면 수호전에 등장하는 양산박의 108 영웅들을 연상케

한다. 미주한인 이민진의 동명소설 ‘파친코’를 역시 미주한인 제작자인 수 휴가 각색, 제작하고 미주한인 감독인 코고나다와 저스틴 전이 시즌 1에서 연출하고 한국 배우 윤여정, 김민하, 정은채, 이민호, 미주한인 배우 진하 등이 출연한 ‘파친코’는 전세계 한인들이 힘을 합친 웰메이드 드라마로 제일교포 이상일 감독이 연출에 참여한 시즌 2가 지난 8월 23일 공개됐다. ‘파친코’는 애플TV플러스가 제작한 시리즈 중 가장 잘 만든 드라마로 꼽히고 있다. 한국의 굴곡진 역사에서 비롯된 ‘코리안 디아스포라’지만 이 이민을 소재로 전세계 한인들이 뭉쳐 만든 드라마가 세계인을 사로잡고 있다. 한국인들은 서로 못 잡아먹어서 단결을 못한다는 식민지 역사관에서 벗어나서 협업을 통한 K 팝, K 드라마, K 뷰티, K 푸드가 성장하고 있다. 이런 한인 요식업계의 메타버스에 필자도 동참하고 도움이 되고자 한달에 두번 발행하는 스시뉴스 LA에 한인 요식업계와 그 관련업에 종사하는 한인들을 적극 소개하고 있다. 더이상 서로 비난하고 서로 고발하는 구태의연한 행태에서 벗어나 서로 돕고 사는 메타버스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형성되고 있어 아주 흐뭇하다. (213)387-1386 haewonkimlaw@gmail.com

간기능 회복에 탁월한 효과!

위생적인 최신설비로 100% 자연산 다슬기를 사용하여 72시간 정성을 다해 추출한 서제천영농조합 다슬기 기름

충북제천에서 온 동강청정 다슬기 기름 효능

장 건강, 변비예방 / 빈혈예방 / 숙취해소
혈관건강 / 골다공증 / 음주전후 / 눈건강

▶ 편리한 파우치형 포장으로 언제든지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건강식품 —

장수만세 213.559.7800

*다슬기는 찬성질을 가지고 있어 몸이 차가운 분들은 과다섭취시 배탈이나 설사를 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LICENSE NUMBER OH00486



개국 32주년을 축하합니다!

무엇이든
함께 하면 기쁨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친구

UNI & good friend
INSURANCE SERVICES



유니 굿프렌드 보험

HEAD OFFICE (LA)

3580 Wilshire Blvd., Suite 151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8-7979 Fax. 213-674-4383

ORANGE COUNTY OFFICE

6281 Beach Blvd., Suite 307 Buena Park, CA 90621
Tel. 714-276-1133

VIRGINIA OFFICE

9001 Braddock Rd. Suite 390 Springfield, VA 22151
Tel. 703-256-0707

SAN DIEGO OFFICE

7655 Clairemont Mesa Blvd., Suite 308 San Diego, CA 92111
Tel. 213-388-7979

함께 일하실 경험있는 보험에이전트를 찾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hr@ugfriend.com으로
Resume 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LIFE | HEALTH | AUTO | HOME | BUSINESS | WORKER'S COMP. | RETIREMENT



radioseoul1650.com 가장 빠른

라디오서울 AM 1650

전미주에서 보는 시사, 경제,

이루고 싶은 **꿈** 이 있나요?

당신이 늘 그려오던 꿈,
PCB BANK는 고객 한분 한분에 맞춘
더 전문적인 서비스로, 당신의 꿈을 키워줍니다.
PCB BANK의 능력으로 내일의 가능성을 만들어 가세요.

PCB BANK
Possibility Elevated

비즈니스의 시작부터 성공까지
**CBB와 함께 하면
기업은 강해집니다**

Sync up for success **cbb Bank**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Bank of Hope
Bankers. Experts. Neighbors.

최고의 한인 암 전문의와
함께하면 치료가 달라집니다

LA 한인타운 (213) 725-2857
부에나 파크 (714) 455-3739

**USC Norris Comprehensive
Cancer Center**
Keck Medicine of USC

**BEST HOSPITALS
USNEWS
CANCER
2023-2024**

**TEN WEST
LEATHER**

대표 Francis Lee

한미은행에서
뱅킹은 더 편리하게
예금은 더 안전하게

Bank on Your Dreams
Hanmi Bank

한국 송금이 필요할 땐 —
**빠르고 간편한
와이어바알리**

WireBarley

wooltariusa.com
번개배송
대한민국 프리미엄 농수산물

WOOLTARI

나는 **임영웅!** 너는 **BTS!**
자녀와 함께 즐기는
뮤직플라자

(213)385-4725

**NGL
TRANSPORTATION**

**원스톱
물류 서비스
제공업체**

www.ngltrans.com

송영 투크 설렁탕

48시간동안
우려낸 진한 국물의 맛!

213.277.1339
2717 W Olympic Blvd #108, LA, CA 90006

불임치료 명의
중국 남해금 한의원

특별예약 하세요!

213.388.5118
2525 W. 8th St. #211, Los Angeles, CA 90057

COK

대한민국 전자 부품회사

씨오케이 대표 김 상연

“21세기 백세 건강,
세종이면 충분합니다”

**Sejongbiotech, Inc.
세종바이오텍**

허락하신 자연으로 인간을 생각합니다.

LA지사 213-383-8899

“용자외길 **34년**”

BrianJoo@aol.com

브라이언 주 용자

LeeWay FUNDING
NMLS #335934 **213.219.9988**

뉴스업데이트로 탄생한 뉴스사이트

개국 32주년 축하한마당

명칼럼-H매거진 창간 1주년

성민산삼한방병원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류마티스 관절염,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213)385-3304 (산삼공사)

PERSONAL INJURY
차 사고엔, 차 변호사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ALEX CHA
213.351.3513

집 용자는 저희가 제일 잘 합니다!
‘마지막’ 재용자 기회!

처음 약속한 것은 용자가 끝날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용자 CENTRAL FINANCIAL GROUP INC
나라 (213) 388-5600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8년 연속 외국인 관광객 유치 우수 여행사!



SAMHO TOUR & TRAVEL, INC

213.427.5500

은퇴, 상속, 절세,
401K 롤오버, 생명보험 학자금
재정에 대한 모든 문의와 플랜은

626-827-9599

문선영의 머니토크

라디오서울 문선영의 머니토크

미국최초/미국최고, 미국유일의 재정방송
라디오문선영의 머니토크(라디오서울 AM)
토요일 오후 4시/ 일요일 오후 4시



웨스턴 도마 칼국수

영업시간: 10 am ~ 10 pm

429 N. Western Ave, #10
Los Angeles, CA 90004

(323)871-1955



NHSGOLD R&D INC.
NUTRITIONAL HEALTH SUPPLEMENT RESEARCH AND DEVELOPMENT

NHS 내추럴 헬스 시스템

뉴욕주 정식 산삼 판매 허가 업체-Permit No.: 463, 464
미 공인 뉴트리션-Certified No.: 6239

허브천하가 당신과
평생 동행합니다.

HUB | CHUN-HA
INSURANCE SERVICES, INC.

714.537.5000

미래관광
유럽에서 온 유럽 전문여행사
고객만족도 1위!



www.miretravel.com

213-385-1000



노동법 포스터
온라인으로 받으세요

Tel. (213)387-1386 / Mobile (213)321-1609

장례보험·무료상담



조 마리아

PROFESSIONAL FUNERAL PLANNER www.mariachofp.com

310.987.0736 / 626.890.9545

믿을 수 있는 최고의 의료진

SMG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TEL 213.389.0077

30여 년의 전통을 가진 한인 최대규모의 종합보험사
고객의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는

캘코보험
CAL-KOR Insurance
213-387-5000

海標 Fucoidan
UMI NO SHIZUKU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45개국 소비자들이 신뢰하는 세계최초 후코이단

1.866.566.9191

간기능 회복에 탁월한 효과!

충북제천에서 온
동강청정 다슬기



건강식품
장수만세 213.559.7800

나는 자존감이 높은 걸까? 자아애성 인격 장애자인 걸까? (3)



성소영
임상심리학박사

지난 2주에 걸쳐 자기애성 인격 장애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 이번 주에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과 자기애성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의 차이점을 알아 봄으로써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구별하기 위해 다섯가지 포인트로 나누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정과 칭찬을 받아야 하는 근원지가 다릅니다.

자기애성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타인>에게 칭송받고 인정받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를 들어 “네가 이번에 1등을 한 건 아빠가 새벽부터 깨워 줬기 때문이야. 난 내가 안 깨워 줬으면 게을러서 1등은 택도 없었을걸!” 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 아빠는 자녀의 성취와 업적을 칭찬해 주기보다는 타인의 업적조차 자신의 공으로 돌리는 왜곡된 인격을 드러내는 한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타인의 인정과 칭송을 받기 위해서 속마음과는 다르게 타인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칭찬과 인정을 받지 못하면 기분이 상하고 서운해 합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자신의 진실과 중심을 토대로 사고와 행동을 하다 보니, 타인에게 인정과 칭찬이 오지 않는 것

자신은 어떤 사람인지 성찰하고 조금 더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안정감 있는 삶을 위해 본인은 어떤 심리와 정신의 훈련을 해야 할지 고민해 볼 시간이 필요해



에 대해서는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둘째, 인간관계의 패턴이 다릅니다.

자기애성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도 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항상 이용 가치를 따집니다. 자신에게 이용 가치가 있거나 자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할 때는 잘 대하는 듯 보이지만, 별로 이용 가치가 없다고 느낄 때는 무시하거나 하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려 애씁니다. 그래서 관계가 매우

건강합니다.
셋째, 타인에게 비판을 받았을 때 대응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자기애 성향이 높은 사람은 비판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방어적이며 분노하거나 자신의 약점을 부각시켜 자신감이 떨어지거나 우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비판에 대해 열려 있습니다. 비판을 피하려 하지 않고, 비판을 받았을 때 그 비판을 토대로 자신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합니다.

넷째, 자신에 대한 자아 인식이 다릅니다.

자기애성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

는 사람은 자기 가치와 능력에 대해 과장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노력만 한다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의 부족한 모습은 그저 작은 실수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무시해 버립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현실적이고 명확하게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강점을 과장하거나 자신의 약점에 수치심을 갖지 않습니다.

다섯째, 인생에 미치고 있는 영향이 다릅니다.

자기애성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

는 사람은 감정의 기복이 심해 그 사람의 기분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때때로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사람들에 의해 쉽게 자극을 받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예측이 가능한 기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물론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지만 금방 회복되기 때문에 기분이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성향을 보입니다.

지난 3주에 걸쳐 알아본 정보를 통해 자신은 어떤 사람인지 성찰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조금 더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안정감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본인은 어떤 심리와 정신의 훈련을 해야 할지 고민해 보시는 겁니다.

너무 쉽게 “나는 인격 장애가 아냐” 라고 확신을 가지신 분이 계신다면, 오히려 그것이 ‘자기애성 인격 장애를 가졌을 가능성’의 싸인이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ssung0191@yahoo.com

볼 빨개지는 이야기

흥분시 남자와 여자의 차이 <3>

남녀가 관계할 때에 흥분을 하게 되는데 같으면서도 다른 섹스의 느낌과 반응을 알아보자.

남녀 모두 관계를 하는 동안 성적 오르가즘 즉 절정에 이르게 되면 호흡이 모두 거칠어 지게 된다. 남자는 오르가즘을 느낀 후 그 호흡이 진정되지 않으면 다시 발기 되는 것이 힘들다.

그러나 여자는 호흡과 상관없이 여러 차례 오르가즘을 경험하는 것이 가능한 즉 멀티 오르가즘이 가능하다. 이 점이 남녀의 두드러진 섹스상의 차이 점인데 이 부분이 부부간이든 애인간이든 잠자리에 있어서 여자에게 불만족을 줄 수 있는 큰 요인이다. 남자 혼자 절정을 느끼고 만족하며 끝을 냈을 때 여자는 아직 더 절정을 느끼고 싶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화장실에서 읽으면 더 재밌는 아재아재 개그

- * 박찬호, 박지성, 박태환 등 박씨들이 판을 치는 세상은?
- 또박 또박
- * 모든차가 동쪽으로 파킹된 대학은?
- 카 이스트
- * 일본사람이 레몬을 먹으며 하는말은?
- 와따~시다
- * 달 앞쪽은 밝다고 하더라를 네글자로 하면?
- 문전박대
- * 한여름 무더위에 그늘에 있으면 행복한 이유는?
- 해 ~피에서
- * 소 두마리가 같이 울면?
- 우엉 우엉
- * 침대에서 가장 야한것은?
- 이불 (개 야하니까)
- * 스투(스프)를 찾다가 찾다가 못 찾으면?
- 스투 어디스





“오빠! 우리 집에서 라면 먹고 갈래?”

(3회에서 계속)
뒷좌석에 앉아 소리치는 법조계에서 일한다는 아리따운 여성분의 소리침은 그칠 줄 모르고 차 안을 떠돈다.

“오빠, 빨리 프리웨이에서 내려요. 나 죽겠어 정말... 아 오줌 마려 죽겠다구요...” (술에 취하고 거기다 소변까지 마려운 상황이 되니 어느새 아저씨가 오빠 사이가 되 버린다.)

이런 제기랄...앞에 큰 사고가 났는지 차는 완전히 꽂 막혀 파킹랏 같은 상황인데 이 여자 손님은 난리법석이다. 얼마나 급하면 저러 하겠냐 만은 도무지 차를 움직여 빠져 나갈 길이 없다.

“오빠 화장실 좀 찾아 가봐요... 더 못 참겠다구”

“손님, 좀 만 참으세요...차가 나갈 상황이 안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 어찌 라구? 여기서 싸요? 영? 나 더 이상 못 참는 다구...”

“아~아~ 음.” 숨소리와 함께 차 안이 조용해졌다. “아유 살까 갈네... 오빠 미안해요.”

이건 무슨 시츄에이션 인가. 미안하다니. 뭐가 미안하다는 건가.

와. 와... 오마이갓! 미안하다는 그녀의 모습을 고개를 뒤로 돌려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쌍욕이 마음속으로 날라 다닌다.

술에 취하면 부모도 몰라 본다는 옛말이 차 안에서 옷을 입은 채 소변을 봐버린 그녀를 보는 순간 머

리를 스친다. 부끄러운 기색도 없이 흥건히 젖었을 그 자리에서 다리를 짝 벌린 채 퍼져있는 여자.

“오빠! 카워시 값 주면 되잖아? 너 무 그렇게 무섭게 보지 마요? 아 내가 싸고 싶어서 썼나?”

택시 운전을 하다 보면 별의 별 일들이 많지만 이런 손님은 그리 흔

디냐? 당치도 않는 소리지. 본부에 다가는 또 뭐라고 돌려 댈 텐가? 말도 안돼. 에이 그냥 본부 전화기 꺼 버리고 들어가 볼까?

목소리가 이쁜 저 여인이 설마 라면만 끓여주고 끝내려는 건 아니겠지. 맞아 맞아 내가 바본가? 꿈을 잠깐 꺾 본다. 라면 물을 울

부에 보고해 놓을 테니 내일 본부에서 전화오면 얘기하세요”

“어머머 이 오빠 되게 뽀뽀하시네.. 흥? 싫으면 관둬.” 끄억 끄억거리며 툭툭대는 그 손님과 다시는 만나지 않게 해달라는 마음 속의 기도를 하며 LA로 다시 출발~ 정신을 차리고 시동을 건다. 부릉

가기 힘든 오묘한 냄새. 트렁크에서 꺼낸 비상 수건으로 닦기 시작한다. 아! 지친다. 오늘 하루...

짧지 않은 그 손님과의 운행 시간, 나눈 대화, 그리고 그녀의 손짓 몸짓들. 물 수건으로 그녀의 지저분한 자국을 지워 버린다. LA로 올라가는 빈 차에서 또 이

술에 취하고 거기다 소변까지 마려운 상황이 되니 어느새 아저씨가 오빠 사이가 되 버린다 차 안에서 옷을 입은 채 소변을 봐버린 그녀를 보는 순간 갑자기 옛말이 머리를 스친다

하지 않다. 우여곡절 끝에 손님 목적지에 도착했다. “아직도 젖어 있을 바지를 아무 일 없다는 듯 추스리며 내리는 손님. “오빠! 이거 드리면 되지? 모자라면 내일 내 사무실로 들려? 더 줄게...아이 미안해용”

술에 취하면 이렇게 뻘뻘해지게 되나 허허.. 내일 자기 사무실로 들러리니. 진짜 한 번 들려서 오줌 싹바지 잘 빨았냐고 리마인드나 시켜 줄까? 그 사무실 직원들 있는 앞에서. 택시에서 내려 자기 집 앞으로 가려다 다시 걸어온다. 창문을 내려 보라는 손짓을 하며...

“오빠, 나 집에 들어가기 무서운데 택시비 더 줄 테니까 우리 집에서 라면 먹고 갈래?”

그녀의 취중 멘트가 나를 헛갈리게 한다. 아, 그럴까요? 신 김치 위에 올린 따뜻한 라면 그리고, 얼큰한 국물. 아, 한 그릇 딱딱하고 갈까? 아냐 아냐 손님 집에 들어갈 일이 어

려 놓고 나에게 안긴 그녀의 얼굴. 아 이러면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돼요... 헉 헉...

“오빠! 오빠! 할 꺼야 말 꺼야? 집으로 가자 응?”

이 여자 진짜 법조계에서 일하는 사람이 맞는 걸까? 술은 진짜 모든 사람들을 신분과 직업에 상관 없이 자연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위대한 힘을 지닌 것일까?

에이 씨...왜 갑자기 집에 있는 아이와 애 엄마가 떠오르나. 아니지. 이러는 건 아니지. 데이빗 엄마 봐서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래. 내 비록 지금 택시 운전하지만 조금만 더 참고 벌어 모아서 차도 바꾸고 아파트도 깨끗한 데로 이사 가자고 내 아내와 몇 번을 다짐 했었다. 그만. 이제 그만.

“손님, 조심해서 들어가십시오. 저 다음 손님 콜이 있어서 출발해야 합니다. 택시비 모자란 만큼 본

~운전석 뒷 거울로 보이는 술 취한 그녀를 지워버리고 택시는 간다.

아차...로칼 길을 달리다 다시 차를 세운다. 그녀가 망쳐 놓은 뒷 좌석, 마스크를 쓰지 않고 서는 다가

런 저런 생각을 한다. 깨톡! 깨톡! 아는 지인에게 문자가 온다.

“김형, 잘 지내지? 나 제니 엄마랑 이혼해”

<다음 호에 계속>



www.midwilshirehealth.com

MW
중앙양로병원
MID-WILSHIRE HEALTH CARE CENTER
20년 넘게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 양로병원
한인 전문 물리, 작업, 언어치료사 상주
24시간 한인 간호사 상주, 한인 의사 대기!
정갈한 전통 한식, 주 7일 종교 예배 시간
단기, 장기 요양 치료 환자 환영!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Admissions Coordinator Director of Social Services

Cell : (213) 483-9921 Fax : (213) 483-3606
676 S. Bonnie Brea St. Los Angeles, CA 90057

차 사고엔, 차 변호사
PERSONAL INJURY

레몬법엔, 차 변호사
LEMON LAW

ALEX CHA
Law Offices of
Alex Cha &
Associates

213.351.3513
info@alexchalaw.com

www.centurydayandnightspa.com

미주유일 골프연습장, 수영장, 스파, 찜질방, 식당,
헬스클럽을 한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스파, 찜질방,
식당,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올림픽과 크렌셔
323-954-1020



김희자 Settia Heeja Kim
Lic.#OF36240
실버시티보험 메디케어
전문 에이전트

가족 여행



오랜만에 가족여행이란 이름으로 시애틀 아들집으로 모두 모였던 일주일 할 수 있을때 감사하고 즐기며 더 많은 기회를 만들겠다는 깨달음의 시간

미국이란 넓은 나라에 살다보면, 가족이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제일 부럽다. 이럴줄 알았으면, 아이라도 많이 낳을 것을... 우리처럼 다른 친인척 가족이 없이 우리 부부와 두 아이만 있는데도, 우리는 참 멀리도 살고있다. 일년에 한 두번 만나기도 쉽지 않다. 플로리다에 살고있는 딸과 시애틀에 살고 있는 아들과 엘에이에 사는 부모, 미국을 삼각형으로 크게 그려야 하는 거리다. 매년 겨울이면 우리집으로 모이지만, 그때는 여행을 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엄마 음식을 그리워 하는 아이들에게 먹고싶은 메뉴 주문을 받고, 해내기 바쁘다.

3년만에 가족여행이란 이름으로 시애틀 아들집으로 모두 모였다. 일주일의 시간에 뭔가 많이 하려는 아들의 여행 계획에 맞추어, 처음하는 액티비티는 긴장과 재미와 도전을 경험하게된다. 시애틀지역은 울창한 나무와 자연환경이 좋아서 접근처 호숫가의 트레일, 바닷가의 트레일만으로도 훌륭한 여행지같은데,

아들은 멀리 캐나다 빅토리아섬의 여행일정을 잡았다. 멀리 운전해서 미국과 캐나다 국경도 통과하고, 페리를 타고 밴쿠버에서 빅토리아 섬까지 갔다. 바닷가의 호텔과 걸어서 갈수있는 다운타운의 식당가는 아주 편리했다. 호텔에는 재미있는 경고문구가 창가 테이블에 놓여 있었다. 자주 방문청소를 하지만, 훗시 갈매기가 똥을 싸서 창문의 시야를 가리면 연락해달라는 문구였다. 몇 일 있는 동안 자동차는 온통 갈매기 배설물 폭탄을 맞았다. 머리에 안 맞은 것만해도 다행이다 싶게 갈매기가 많았다. 호텔밑에 내려오니, 워터택시라해서 작은 배가 오는데, 우버보다도 더 빨리와서 깜짝 놀랐다. 걸어서 15분이면 갈수 있는 식당을 저녁의 햇살을 받으며 주변을 한바퀴 배로 돌아서 구경하고 내려서, 걸어서 식당까지 가는 재미있는 경험이였다. 워터택시와 함께, 수상 경비행기가 수시로 뜨고 내리고 한다. 시애틀 호숫가에서도 수상 경비행기를 보았었는데, 그 비행기가 여기까지 온것인가 궁금하다. 호텔에서 투숙객들을 위해 준비해 놓은 자전거가 있어서 원하면 헬멧과 함께 빌려 쓸수 있었다. 아이들은 자전거로 주변을 한바퀴 돌고 왔다고한다. 자전거타는 사람도 많고, 자전거길도 잘 되어있었다.

다음날 30 분정도 거리의 그 유명한 부처가든에 갔다. 예쁜 꽃들과 아름다운 조경을 보며, 와! 거대한 정

원을 얼마나 오랜시간 공을 들여 만들었을까? 계절마다 다른 모습으로 꾸며질 것인데, 정말 대단한 규모의 훌륭한 정원이었다.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겠구나 하며, 훌륭한 일자리를 만들어 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한국에서도 아름다운 정원을 꾸며놓은 곳을 몇 군데 경험했었다. 거제도 근처에 외도라는 섬을 개인이 가꾸어서 섬 전체를 훌륭한 정원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보고, 가평지역의 아침고요수목원이라고 정말 잘 꾸며놓은 정원을 보면, 부처가든 못지않게 잘 꾸며놓았다는 생각을 해본다.

다음에는 모페드라는 것을 타러 갔다. 일인용 작은 모터사이클이나 스쿠터형태와 2명이 타는 3바퀴 쿠프라는 이동기구가 있어서 우리는 쿠프를 이용했다. 헬멧을 쓰고, 손으로 엑셀도하고, 브레이크도 한다.

속도는 2, 30마일 정도라서 뒤에서 차가 오면 살짝 옆으로 양보했다가 다시 달리는데, 그렇게 워싱턴주 샌존 아일랜드 바닷가를 한바퀴를 돌아왔다. 중간에 오이스터 농장에 들려서 굴을 주문하는데, 내가 까먹을 건지 미리 까주는 것을 먹을지를 선택해서 주문할수 있었다. 잘 갈 자신이 없어서 까주는 것을 먹었는데, 생각보다 맛있었다. 이번 여행은 정말 많은 교통수단을 경험했다. 집에서 공항까지는 우버를 이용했고, 시애틀까지는 비행기를 타고가서, 차를 타고 캐나다까지 가고, 밴쿠버에서 페리를 타고 빅토리아 섬에 도착해서, 워터 택시를 타고 식당에 가고, 자전거도 타고 주변을 한바퀴 돌아보고, 모페드라는 것을 타고... 시대의 변천도 느껴진다. 예전에는 택시를 타고 공항을 가거나, 셔틀을 이용했다면, 이제 우버나 리프트를 이용

하고, 예약 서비스를 요청해서 시간 맞추어 차가 와서 대기하니, 얼마나 편리한가. 아직도 탈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노는 곳과 놀것을 개발하는 관광지는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낼것이다. 그렇게 많은 것을 경험하며 추억이란 한페이지를 적어 내렸다.

건강해서 함께 즐길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알수 없지만, 할 수 있을때 감사하고 즐기며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새 식구가 늘어나면 아이들의 집에는 침대가 부족하게 될테니, 어짜피 호텔을 이용해야 할것 같다. 그럴바에야 어느 여행지에서 만나서 함께 여행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다음에는 어디에서 만나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기대해 본다.

(626)348-7944



시니어 생활 상식

- 파트 A

병원,입원,병원 입원 이후의 전문 간호 서비스 및 다른 전문 진료 비용 지불에 도움을 주는 일반 메디케어 파트입니다.

- 파트 B

의사 방문 및 다른 의료 서비스 비용 지불에 도움을 주는 일반 메디케어의 파트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 (213)387-6505, (714)690-1300



동네 머슴 마이클
K TOWN 일꾼 마이클

크레딧카드 프로세싱과
사업체 운영 상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Michael Choi Relationship Manager

michael.choi@ebankcardservice.com

T 213-382-9300 F 213-402-3401 C 213-660-9863



김준철

- 월간 문화예술전문지 <쿨투라> 미주지사장
- 미주한국문인협회 회장 역임
- <시대문학> 시부문 신인상, <쿨투라> 미술평론 신인상 수상
- 쿨투라 해외문화상 수상, 비영리문화예술재단 <나무달> 대표
- 시집 <꽃의 깃털은 눈이 부시다> <바람은 새의 기억을 읽는다> <슬픔의 모서리는 뭉뚱하다>
- 전자 시집 <달고 쓰고 맵고 짠>



지난 8월 23일 넷플릭스를 통해 8부작으로 공개된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에서 매 회 시작하며 나오는 나레이션 대사이다.

아마도 이 드라마를 보신 분들이라 보고 있는 분들은 이 말만으로도 상당한 스트레스나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리라 짐작된다.

평범한 한여름 찾아온 수상한 손님들로 인해 평온했던 일상이 무너지고 삼시간에 걸잡을 수 없는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서스펜스 스릴러 드라마로 출연진은 김윤석, 윤계상, 고민시, 이정은, 박지환 등 탄탄하고 색깔 있는 연기하는 배우들이 다수 출연하여 이야기의 깊이를 더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극의 시작마다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커다란 나무가 쓰러졌다. 쿵! 소리가 났겠는가? 안 났겠는가?" 라고 묘한 물음으로 시작하고 있다.

너무나 당연한 물음이기에 우선 의문이

생긴다. 커다란 나무가 쓰러졌다면 당연히 큰소리가 날 텐데...굳이 소리가 났는지 묻는 게 어딘가 듣는 사람에게 불편함을 준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앞부분에 조건이 하나 붙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이 드라마의 제목이기도 한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라는 점이다.

아무도 없는 숲속이라면 어쩌면 소리가 났을 수도, 나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무도 들은 사람이 없다면 아무리 큰 소리라고 해도 결국 소리가 안 났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듣지 못하면, 보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그것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의 모습을 반영하는 질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 드라마는 두 개의 시간적 배경을 가지고 비슷한 하나의 사건에 대해 고찰을 하고 있다. 그 안에서 끊임없이 시청자로 하여금 질문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다. 사건의 주체가 아닌 사건의 주변인들의 시선이나 반응에 대하여, 그리고 그들의 상처에 관하여 묻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드라마의 영문 제목은 'The Frog'라고 정했는지 모르겠다.

드라마 중간에 피해자로 비유되며 언급되는 속담이 있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

바로 그 개구리가 이 드라마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중심이라고 생각한다. 커다란 나무가 쓰러지며 깔린 개구리의 고통 또한 커다란 나무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드라마 내내 깔린 이 불편한 불안은 바로 우리가 숨 쉬듯 느끼며 무어라 명명하지 못하고 있던 불안감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다소 불편하지만, 충분히 즐길 수 있는 흥미로운 드라마였다.

treeandmoon2022@gmail.com

“커다란 나무가 쓰러졌다. 쿵! 소리가 났겠는가? 안 났겠는가?”

주머니 속의 손

김준철

앞서 나가며 당신은 우셨습니다

빠알갭게 충혈된 눈으로
쌓인 말 채 잊지도 못하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눈물을 훔치는
당신의 손을 차마 잡을 수 없어
주머니 깊숙히에서
가늘게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젖은 손이 제 등을 밀칠 때
제 눈도 이내 빨갭게 충혈되었습니다

자꾸만
뒤돌아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주머니 속의 손이 실재없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주머니 속의 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필자의 어느 시기, 참 많은 이별을 했다. 또한 잦은 이별을 했다.
그것은 연인일 수도, 또 다른 인연에 대한 반복이었을 수도 있다.
다만 그런 이별 속에서도 단 한번도 익숙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배웠다.

매 번 아팠고 또 그리웠고 그래서 또 간절했었다. 우리 감정을 쉽게 나타내지 못한다. 어쩌면 그렇게 배우고 또 그래야 한다고 느꼈는지 모른다. 틀렸다.
충분히 표현하고 끌어안고 또 소리내야 했었다. 주머니 속의 손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김준철의 한 문장의 생각 코너 소개

영화, 시, 소설, 드라마, 신문, 잡지 등등 여러 매체를 통해 접하게 되는 문장들 속에서 한 문장을 꺼내서 조금 더 생각을 넓히고 깊이를 더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E-2 연장과 세금보고



이경희 변호사

- 서울대학교 졸업
- 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JD 법학박사)
- Immigration Law Associates, PC
- Legal Department of Centro Romero(Intern & Extenship)
- Asian Human Services
- 미국 이민법 변호사 협회(AILA) 회원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E-2 신분을 가진 고객들이 세금보고와 관련하여 문의가 많다. E-2 사업자가 신분 연장을 할 때 회사 세금보고서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였다.

1. 미국에서 E-2 신분으로 전환 하니 2년을 받았는데

한국에서 E-2 비자를 신청하면 2년이나 5년을 받는다. 하지만 미국에서 E-2로 신분변경하거나 연장할 경우 2년을 받게 된다.

2. E-2 사업체에서 급여를 거의 받지 않았는데

E-2 사업자는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배당금 형식으로 생활비를

충당하여야 한다. 사업체는 투자자와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한 수입 이상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사업체로부터 생활비를 조달할 수 없다면 한계기업 (Marginal enterprise)으로 간주되어 연장 신청이 거절될 수 있다. 하지만 사업이 잘 되지 못해 생활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가 많다. 이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동안 사업이 힘들었던 불가피한 사유와 향후에는 사업이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을 잘 설명하여야 한다. 아울러, 부족한 생활비는 E-2 배우자가 일을 하여 충당하였거나, 한국으로부터 송금받았다는 자료로 설명하여야 한다.

3. 회사에 직원이 없는데
E-2 사업체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직원을 고용할 수 있어야 한다.

직원을 몇명이나 고용해야 하는지는 사업종목과 투자액수에 따라 차이가 난다. E-2 신청자는 관리자이다. 따라서 직원이 없다면 전화를 받거나 단순한 업무도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자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고용창출 효과도 E-2 연장의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연장시 직원 수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4. 세금보고 실적이 좋지 않은데
1년 차보다는 2년 차의 사업실적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매년 회사 세금보고를 하기 전에 어느 정도 보고가 되어야 하는지를 미리 조언받는 것이 좋겠다. 만일 사업체가 1년 차보다 2년 차에 실적이 더 좋지 않아 적자를 기록했다라도 연장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 투자금을 더 조달하거나, 향후에 사

업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가능할 수 있다. 연장을 해야 할 임박한 시기에 세금보고서상 실적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거절될 수 있다.

5. E-2 연장은 미대사관에서 하고 싶은데

미국에서 E-2 신분으로 변경한 이후에 출국하면 E-2 신분이 없어진다. 미국에서 E-2로 신분변경을 하면 여권에 비자를 받는 것이 아니고 승인서를 받는다. 따라서 한국에 가게 되면 미대사관에 정식으로 투자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미국에서 E-2로 신분변경이 되었더라도 한국에 가면 미대사관에서 다시 심사를 한다. 따라서 미국에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비자를 받기 위해 한국

으로 갔다가 거절되어 미국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E-2 연장을 위해 미대사관으로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미국 이민국보다 더 신경을 써야 한다.

6. E-2 신분으로 영주권을 해결하려는데

요즘 E-2 배우자는 따로 노동카드를 받지 않고도 일할 수 있다. E-2 주신청자는 사업을 하고 그 배우자가 회사에 취업을 해서 영주권을 해결하는게 보편적이다. 따라서 처음 E-2를 계획할 때 차후에 취업을 해서 영주권을 해결할 사람이 E-2 주신청자가 아니라 배우자가 되는게 좋다.

(213) 385-4646
imin@iminusa.net

재정상담 누구에게 맡기시나요?

실력/ 신뢰/ 경험을 바탕으로
만족도 1위 재정전문가 **문선영**이 있습니다.

생명보험/ 은퇴연금/ 리빙베네티/401K 롤오버/ 학자금/ 절세플랜/상속



YouTube **문선영의 머니토크**

라디오서울 문선영의 머니토크
미국최초/미국최고, 미국유일의 재정방송
라디오문선영의 머니토크(라디오서울 AM1650)
토요일 오후 4시/ 일요일 오후 4시



Finance & Marketing **WISECALIFORNIA** 626-827-9599 3435 Wilshire Blvd., 14FL A04, Los Angeles, CA 90010
6 Centerpointe Dr., Suite 737, La Palma, CA 90623

여러분이 돈에 대해 궁금해 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 미국에 살면서 내 돈 모으고, 굴리고, 불리고, 보존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비교책까지. 돈에 대한 이야기를 지혜롭고 유익하게 풀어드립니다. #머니컨셉 #영화속 돈 이야기 #성경에서 얘기하는 재정 #손님들 실제 케이스 적용까지 살펴봅니다.

radioseoul1650.com 가장 빠른 뉴스업데이트로 탄생한 뉴스사이트

라디오서울

AM 1650

개국 32주년



축하 한마당

무엇이든
함께 하면 기쁨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친구

UNI & good friend
INSURANCE SERVICES

유니굿프렌드 보험

조선갈비
Chosun Galbee Restaurant

한결같은 맛과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금강안경 검안의 -
미셸 김 Michelle Kim O.D.

금강안경 검안과

LA점: 213.384.1001 / OC점: 714.530.1001

새로운 도약! 원스탑 쇼핑공간

홈쇼핑 월드
HOME SHOPPING WORLD

LA 지점 (213)380-3330/3307
OC 지점 (714)522-2494/2496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투자비자(E-2), 투자이민(EB-5) 전문

LAW OFFICES OF KYUNG HEE LEE, PC

LA Office Tel: (213) 385-4646 (imin) | Irvine Office Tel: (949) 551-4646 (imin)
Website: www.iminusa.net | Email: imin@iminusa.net

KRUSH
출시기념 이벤트

QR Code and product images

CPL
ADVERTISING
Est. 1997

온·오프라인 광고 문의하세요

www.cplad.com | email: info@cplad.com

39년 무사고 전미주 고객만족 1등 아주투어!
1등 US이주투어 CST 2052210-10

미주 한인 여행업계의 역사!
www.usajutour.com

213-388-4000
Toll free 1-800-933-3011 | OC지사 714-534-1200

자동차 흡집제거전문
덴트웨이

DENTWAY

월~금 / 8:00AM - 6:00PM | 토 / 8:00AM - 12:00PM
Tel. 213-383-7233 (칠이삼삼)

김예자 공인 에이전트

“소셜연금, Extra Help, 메디케어,
오바마케어 상담 및 신청”

Ye ja Kim(김예자) 562.640.0643
Lic #: OF07964 714.773.2939

중국 정통 한의학으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치유합니다.

나음 한의원

6281 BEACH BLVD #117
BUENA PARK, CA 90621

657.325.4000

교통사고

213-468-1000

브라이언 타필라 변호사
www.cz.law
CZ Law 그룹

해장춘추이
haejangchon.com

213.389.8777

3821 W 6th St, L.A., CA 90020 (6가와 세라노)
월-목 11am-12am 금-토 11am-2am *일요일은 쉽니다.

실버시티보험을 만나면
혜택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30여개 이상의 기관투자 부동산 리스트를
보유한 저희 전문가들과 상의하세요!

EMP WEALTH MANAGEMENT, LLC

213-215-5473
3333 Wilshire Blvd Suite 800 Los Angeles, CA 90010

전미주에서 보는 시사, 경제, 명칼럼-H매거진 창간 1주년

Grand Open



홈쇼핑 월드 확장 이전

새로운 도약!
원스탑 쇼핑공간

오픈기념 이벤트



개국 32주년을 축하합니다!



**확장
이전**

LA 지점 (213)380-3330/3307
760 S. Serrano Ave 1st Fl, LA, CA 90005
(8가+세라노)

OC 지점 (714)522-2494/2496
5300 Beach Blvd, #118, Buena Park, CA 90621
(비치+멜번 Bank Of Hope 몰)

K-POP ALERT! LE SSERAFIM is about to SLAY the MTV VMAs Pre-Show!

The hot AF girl group is set to ROCK the stage on Sept 11 in NYC! MTV just dropped the on their socials, and we're SHOOK!

Why it's a BIG DEAL:

- VMA Pre-Show = Gateway to GLOBAL STARDOM
- Past performers? Sabrina Carpenter, Cardi B, Ariana Grande, Nicki Minaj, Rihanna... Need we say more?

- more article... visit radioseoul1650.com KNOW s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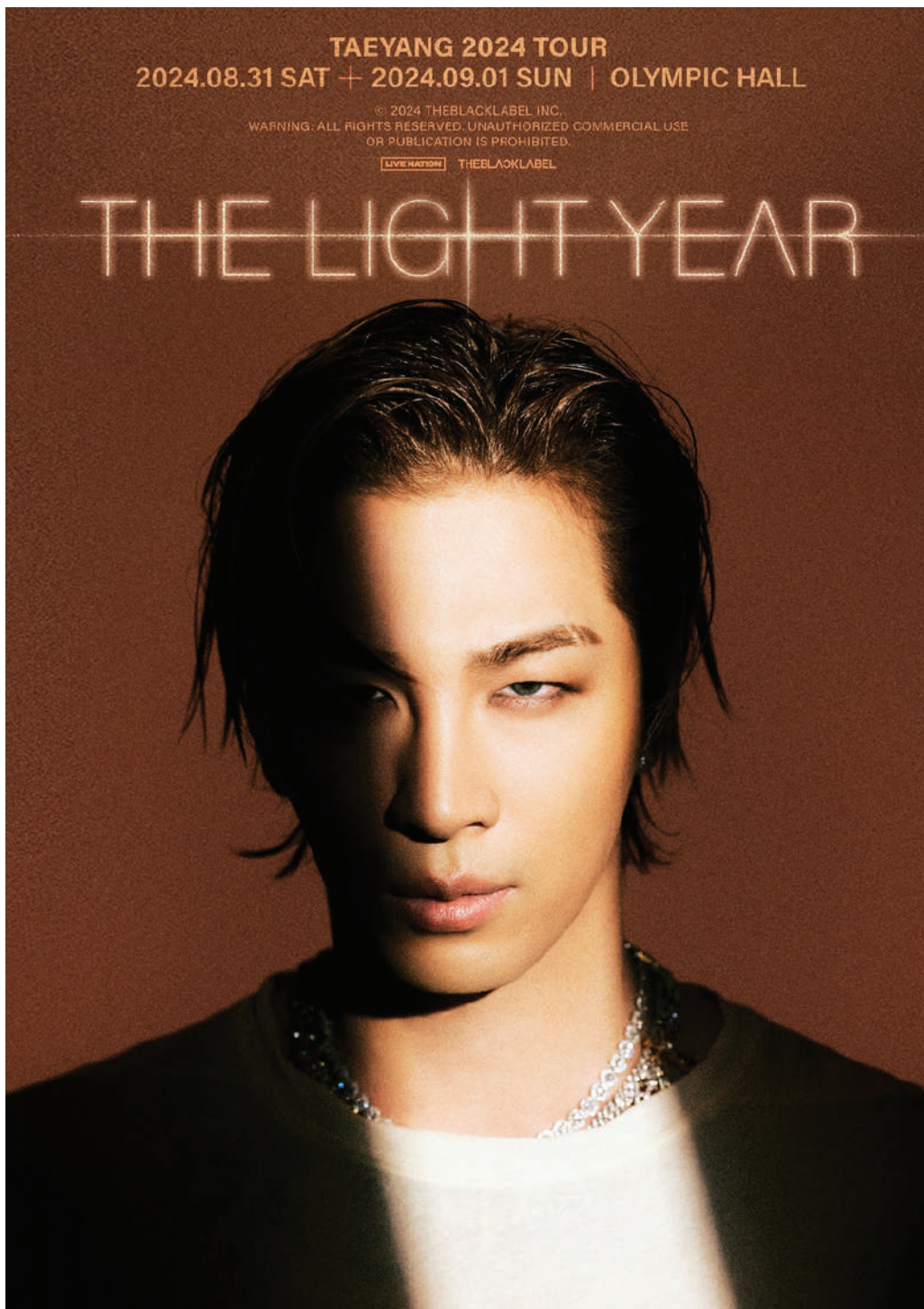


BIGBANG's Taeyang Sets Seoul Ablaze in Epic Solo Concert Comeback!

The K-pop legend brought the house down at Olympic Hall with his first solo show in 7 years. Taeyang's honeyed vocals and killer moves proved he's still got that

Highlights:

- more article... visit radioseoul1650.com KNOW section



TEDDY'S GIRL GROUP UNLEASHED! MEOVV Ready to POUNCE on K-Pop Scene

The Black Label's first-ever girl group MEOVV is about to claw their way into the K-pop jungle! These five fierce felines are set to make their grand debut on March 6th at 6 PM KST, and honey, it's gonna be a CATASTIC event!

Word on the street is that hitmaker Teddy (yeah, THAT Teddy) has been pulling the strings behind this purr-fect storm. The group's lineup is giving us major girl crush vibes: Ella, Gawon, Suin, Anna, and Narin. Meow indeed!!

- more article... visit radioseoul1650.com KNOW section





musicplaza.com



개국 32주년을 축하합니다!

MUSIC PLAZA+

나는 **임영웅!** 너는 **BTS!**
자녀와 함께 즐기는
뮤직플라자



아이돌 응원봉, 굿즈
포스터, 사진집 등
인기 K-POP 상품



인기 한국스타 음반
TV 드라마, DVD
한국영화, 팝송
클래식 뉴에이지 등
각종 CD



뮤직플라자
(213) 385-4725

코리아타운 플라자 1F #107, 3F #307
928 S Western Ave, Ste 107 & Ste 307 Los Angeles, CA 90006

네덜란드의 여성 보컬리스트 Trijntje Oosterhuis (트레인티어 오스테르하우스)가 부르는 왕년의 히트곡 메이커 Burt Bacharach의 songbook!



2023년까지 영화음악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로 활동하며 수많은 히트곡을 탄생시켰던 Burt Bacharach의 고전들을 유명 작곡가이자 편곡자인 Vince Mendoza가 지휘하는 Metropole Orkest와 함께한 걸작 앨범이다! 이상하게(?) 작곡자인 Burt Bacharach의 곡들을 많이 부른 7080년도에 활발히 활동했던 흑인 여가수 Dionne Warwick의 오리지널과 비교했을때 솔직히 비교가 불가했을 만큼 Trijntje Oosterhuis (트레인티어 오스테르하우스)의 버전들이 더 뛰어나다! (Sorry! Dionne...!!!) 다소는 힘을 빼고 부르는 재즈적인 창법과 정확한 음정, 어디를 강조를 해야하는지 아는 타고난 감각...!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로 매력적인 음색! 이 모든 것들이



그 시연 음악들 중에서도 유독 나의 관심을 집중시킨 노래 한 곡 트레인티어 오스테르하우스라는 생소한 가수의 'The Look of Love'

얼미전 유튜브를 시청하다가 평소 에 관심있던 KEF사의 스피커 Meta R7의 시연회를 담은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오디오 시연회답게 그 오디오의 성능을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효과적인 곡들이 시연에 사용되고 있었는데, 그 시연 음악들 중에서도 유독 나의 관심을 집중시킨 곡이 한 곡 있었다. Trijntje Oosterhuis (트레인티어 오스테르하우스) 라는 발음하기도 어려운 한번도 들어보지 못한 느낌의 생소한 네덜란드식 이름도 그렇고 가수 본인에 대한 사전 지식도 전혀 없던 가수가 부르는 'The Look of Love'이었다. 'The Look of Love'라면 60년대 명가수 Dusty Springfield의 버전부터 2000년대 초반의 Diana Krall의 버전 등등 쟁쟁한 버전들이 버티고 있는 명곡이지만 그녀의 버전은 특별했다! Metropole Orkest라는 재즈 빅밴드 오케스트라와 클래식 오케스트라의 '하이브리드'를 표방하는 훌륭한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함께 Trijntje Oosterhuis (트레인티어 오스테르하우스) 본인의 숨길 수 없는 매력적인 음색과 가창력이 돋보였다. 게다가 재즈의 '명가'인 Blue Note사의 5.60년대 재즈 LP가 다시 부활한 듯한 레트로한 자켓 디자인도 한몫 거들었다. 곧바로 이 가수에 대해 검색을 할 수 밖에 없었는데... 내가 여태껏 몰랐다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이미 국제적인 지명도가 꽤 있는 가수였다. 하긴...! Blue Note사에서 음반을 낸다는 건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1973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출신인 그녀는 자신의 친오빠와 함께 결성한 밴드인 Total Touch로 1990년부터 2001년까지 활동하며 본국인 네덜란드에서는 상당한 인기를 얻기도 했으며 1994년에는 역시 네덜란드 출신의 잘 알려진 여성 퓨전 재즈 색소포니스트인 Candy Dulfer의 앨범 [Big Girl]에 참여했던 인연을 계기로 그녀의 세계 순회 공연을 2년 동안 함께 하며 자신을 음악계에 서서히 각인 시켜갔다. 팝음악 중심이었던 밴드 시절과는 다르게 솔로 활동으로 접어든 Trijntje Oosterhuis (트레인티어 오스테르하우스)는 좀 더 재즈 음악쪽으로 무게 중심을 잡아갔고 2004년도에는 재즈의 '명가'인 Blue Note사와 계약을 맺게 된다. 여기서 중점적으로 소개할 앨범은 2006년에 발표된 [The Look of Love: Burt Bacharach Songbook] 앨범이다. 60년대부터 그가 사망한

느날 눈치없이 상쾌하고 선선한 공기가 살에 느껴지는 듯한 오케스트라의 편곡에 감탄을 하며 자꾸 repeat 버튼을 누르게 되는 곡이다. 그밖에도 앞서 언급했던 타이틀 곡 'The Look of Love'은 물론, 7, 80년대 미국의 호황에도 그 뒤안길의 개개인들의 헛헛한 마음을 표현한 듯한 'A House Is Not A Home', 잘 만들어진 발라드의 정석같은 'Falling

R&B 히트곡들 위주로 커버한 앨범인 [Never Say Goodbye]이다. 그중 어린 Michel Jackson도 불렀던 'Music & Me'을 강력히 추천하겠다. 이왕이면 Michel Jackson의 버전도 함께 들어보시기를 권하겠다. 이 곡은 나의 플레이리스트에 가장 최근에 추가된 요즘 가장 자주 듣는 곡이다!

frisell66@gmail.com



그녀의 노래가 참 맛깔나게(?) 들리는 이유일 것이다. 첫 곡인 업템포인 'Do You Know The Way To San Jose?' 부터 뭐라 설명하기 힘든 매력이 그녀의 노래에는 있는것 같다. 원래 이런 스타일의 곡들을 즐겨듣지 않음에도 그녀가 부르면 끝까지 듣게 되는것 같다! 음색적 차이와 창법도 다르지만 그녀의 노래는 왠지 Whitney Houston가 떠오르기도 한다. 가장 추천하는 트랙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이자 편곡자인 Vince Mendoza의 역량이 드러나는 명곡 [Alfie]다. 구름이 잔뜩 낀 우울한 어

Out Of Love', 친숙한 멜로디의 올드팝 'I Say A Little Prayer', 'I'll Never Fall In Love Again', Carpenters도 불렀던 '(They Long To Be) Close To You' 등등 사실 앨범 전곡들을 모두 추천하고 싶다. 이 앨범의 성공이후 그녀는 두 장의 Burt Bacharach Songbook 앨범을 더 발표했고 Burt Bacharach 레퍼토리로 채워진 Live 앨범도 한 장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권하고 싶은 그녀의 앨범은 2009년 기타리스트 Leonardo Amuedo와 함께 좀 더 단출한 편곡으로



박기한
음악칼럼니스트

나음 한의원의 생로병사

양생으로 건강을 유지하기



고기연 원장

양생은 섭생이라는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생과 섭생의 국어사전 뜻은 '병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건강 관리를 잘하여 오래 살기를 꾀함'이라고 나옵니다.

자연과 부모로부터 받은 생기를 잘 보존하여서 건강하고 무탈하게 살다가 죽는 것을 양생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수명은 모두가 기한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나이가 들고, 늙어서 죽는 것은 모두가 겪는 일입니다. 그러나 건강하게 살고, 늙어서도 육신의 기력이 쇠하지 않게 사는 것은 사람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의학에서는 양생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양생을 잘해서 병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고, 병이 발생하더라도 금방 치유가 되도록 하며 나이가 들어서도 기력이 쇠약해지지 않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양생을 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아래 몇 가지가 있습니다.

1) 자연환경에 적응

인간과 천지자연은 서로 호응하고 교감합니다. 사람의 생명력은 천지자연의 규칙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자연환경에 잘 적응할수록 건강을 잘 지키고 질병에 걸리지 않으며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봄과 여름에는 양의 기운을 잘 기르고, 가을과 겨울에는 음의 기운을 잘 기르는 것입니다. 자연환경과 계절에 잘 순응하고 따라가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겁니다.

2) 심신의 조절과 관리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생명활동에 지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만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도록 나를 인

도하고 불필요한 스트레스에서 멀어지도록 관리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생기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내가 그 스트레스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의지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방법은 다양합니다. 어떤 방법든 시도해보고, 나와 잘 맞는 방법을 찾아서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생활습관

건강을 지키고 생명 활동력을 잘 기르고 유지해 나가는데 생활습관은 아주 중요합니다. 생활습관은 먹고, 자고, 싸는 모든 것을 포괄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먹고, 언제 먹는지, 언제 잠들고, 얼마나 자고 휴식을 하는지, 배변은 일주일에 몇 번, 오전 오후 중 언제 하는지 등등... 또 운동을 자주 하고 있는지, 청결하게 환경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다 살펴보아야 합니다.

원기가 잘 유지되어서 오장육부가 튼튼하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있으면 후천지기가 충분히 공급되어서 기운이 막힘 없이 흐르면서 모든 세포와 기관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가 잘 소통되면서 건강한 상태라고 했었습니다.

위의 양생하는 원칙들을 잘 응용해서 기가 소통되고 생기가 넘치며 쇠약해지지 않는 몸과 마음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더운 날씨가 수그러들면서 가을이 왔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 657-325-4000

naumacupuncture@gmail.com

NHS 건강 정보

2024년 노우스캐롤라이나 야생 천종 산삼



스티브 조 NHS GOLD R&D Inc 대표 뉴트리셔니스트

지난 9월 9일부터 NHS 내추럴헬스시스템은 2024년 9월1일부터 6일까지 채취하여 농림부 허가를 받은 야생 천종산삼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올해도 노우스캐롤라이나에서 채취된 산삼으로 채취지역만으로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지역에서 자생한 야생 천종산삼임을 가능할 수 있다.

특히 노우스캐롤라이나 야생 천종산삼은 동의보감에 산삼을 표현한 맛 그대로 씹으면 씹을 수록 단맛이 나고 생기를 올려 머리가 맑아진다는 효능을 기대할 수 있는 진품이다.

아울러 노우스캐롤라이나의 산삼 채취는 2000년 들어서 시작되었고 채취 권한을 지역 주민으로 제한하고 있어서 자연에서 오랜 세월 서식한 산삼을 만날 수 있고 100년이상 된 산삼이 다수 채취되는 지역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NHS 내추럴헬스시스템은 9월 첫 주에 채취된 노우스캐롤라이나 야생 천종산삼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노우스캐롤라이나 지역에 방문하여 공수하였고 꼼꼼한 선별작업을 거쳐 알차게 준비한 야생 천종산삼 상품으로 15-20년산 75그램(약20-30뿌리)를 \$99에 20-35년산 80그램(약 10-12뿌리)는 \$250, 35-45년생 90그램(약10뿌리)는 \$500, 45년이상 희귀 천종산삼(약 8-10뿌리)을 \$1500로 구성하였다.

특히 이번에 산삼을 처음 접하거나 저렴하게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 만족을 위해 준비한 \$99 15-20

년산은 노우스캐롤라이나 야생 천종산삼은 특유의 향과 맛을 체험하고 효능을 얻을 수 있는 알뜰 구성으로 그 수량이 소비자의 구미를 자극할 만하다. 또한, 매년 산삼을 복용했거나 처음 산삼복용하는 소비자 모두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

올해 야생 천종산삼은 지난해 보다 더 좋은 품질을 더 좋은 가격으로 노우스캐롤라이나 야생 천종산삼 진품을 확보 했으며 저렴한 가격으로 천종 산삼의 효능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추천한다.

▲ 213-905-0439

iswjo@yahoo.com



통증없는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침과 부항요법, 추나요법, 팔사요법, 골타요법, 근육, 관절 교정으로 구조적 이상을 제거해서 만성통증 질환과 내과질환, 신경계 질환까지 치료합니다.

진료 : 만성통증,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오십견, 비염, 알러지, 갱년기증후군 생리통, 불안초조, 불면증, 담적병.

경력 : 중국 북경 중의약 대학 졸업
중국 북경 동직문 병원 인턴, 레지던트 근무.

보험 : 각종보험 취급.



나음 한의원

(657)325-4000

6281 Beach Blvd. #117 Buena Park CA 90621

“운동선수·경찰... ‘천의 얼굴’ 선보일 것”



■ 영화 ‘빅토리’ 배우 염지영 부상으로 축구선수 생활 접어 TV예능 ‘골때녀’ 출연도 목표

영화 ‘씨니’를 닮은 따뜻한 감성과 세기말의 추억, 긍정적인 메시지로 전 세대 관객과 평단에게 호평받고 있는 영화 ‘빅토리’. 수많은 장면 중에서도 단연 기억에 남는 장면은 태권소년 ‘상미’의 돌려차기 장면이다. 대역 없이 소화한 화려한 발차기로 관객들에게 웃음과 시원함을 선사했던 상미 역의 배우 염지영은 지난 23일 서울경제와 만나 “어릴 때 태권도를 배워 3단까지 뒀다”며 “오디션을 볼 때도 자발적으로 발차기를 선보였었다”고 웃으며 말했다.

영화 ‘빅토리’는 데뷔작 ‘하이재킹’에 이은 염지영의 두 번째 필모그래피다. 염지영은 “응원을 소재로 ‘우리 모두 인생의 주연이자 주인공’이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영화”라며 “2000년생인 저도 들어본 노래들이 많아 공감이 잘 될 것”이라고 영화를 소개했다.

염지영은 처음부터 배우의 길을 걸었던 것은 아니었다. 경기도 수원 출신으로 프로축구 수원삼성 블루윙즈를 보며 꿈을 키웠고, 촉망받는

축구 유망주로 팀 내에서 공격수를 도맡아 했지만 예상치 못한 어깨 부상으로 선수의 꿈을 포기한 것이다. 염지영은 “필드하키부에 스카우트되기도 했지만 재활이 길어지며 결국 선수 생활을 접었다”고 회고했다.

희망을 잃고 좌절할 수도 있었지만 염지영은 또 다른 길을 찾아 나섰고, CJ나눔재단의 CJ도너스캠프 청소년 문화동아리 프로그램에 참

가하게 되며 연기자의 꿈을 새로 키웠다. 이후 수원청소년뮤지컬단에서 다양한 작품과 배역을 경험했고, 국제예술대 공연예술과에 진학해 실력을 닦아나갔다. 염지영은 “멘티로 참여한 기억이 너무 좋아 뮤지컬과 연기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운동선수로 활약했던 어린 시절은 이번 배역에 고스란히 녹아들어 배우들에게 “이 역할은 너 그 자체”라



영화 ‘빅토리’의 한 장면. 사진 제공=마인드마크

는 칭찬을 듣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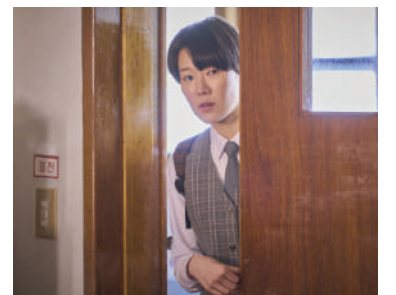
염지영 배우는 “멘토가 꼭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다”며 “뮤지컬 멘토를 했지만 앞으로는 영화 멘토도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어린 시절 자신의 손을 잡아준 CJ도너스캠프처럼 자신도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 활발히 활동 중이다. 2019년과 2021년, 2022년 세 차례나 멘토로 활동하며 아직까지도 인연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는 “지금도 연락하는 멘티가 있는데, 앞으로 현장에서 만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하면 된다”라는 긍정적 가치관을 가진 염지영은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다. 액션을 위해 킥복싱을 수련 중이고 주짓수도 배우고자 한다. “영화 뿐 아니라 연극, 뮤지컬에도 도전하고 싶어요. 원래 꿈이 경찰이었어서 경찰도 해보고 싶고, 시

대극 속 독립운동가 배역도 해 보고 싶습니다. 색이 다른 배역을 통해 ‘천의 얼굴’의 매력을 선보이고 싶어요. 축구선수 출신인 만큼 TV예능 ‘골 때리는 그녀들’도 해보고 싶습니다. 아직 소속사가 없으니 많이 찾아주세요!”

영화 속 염지영의 등번호는 19번, 그리고 염지영이 좋아한다는 이강인의 등번호도 19번이다. 배우 염지영이 이강인처럼 영화계 에이스로 성장할 수 있을지 기대해본다.



배우 염지영이 2022년 CJ도너스캠프 청소년 문화동아리 대학생봉사단에 공연부 문 멘토로서 수업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CJ나눔재단

Yaamava' Resort & Casino and Palms Casino Resort USA TODAY 10Best 리더스 초이스 어워드 수상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두 곳 모두 리더스 초이스 어워드 수상의 영예 안아



2년 연속 '라스베가스 외 지역 최고의 카지노' 부문 및 '라스베가스 지역 최고의 카지노' 부문 수상

야마바 리조트 앤 샌 매뉴엘이 USA Today 10Best 리더스 초이스 어워드에서 2년 연속 라스베가스 외 지역 최고의 카지노와 최고의 카지노 레스토랑, 더 파인스 모던 스테이크 하우스(The Pines Modern Steakhouse), 두 개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산 마누엘 게이밍 & 호스피탈리티 당국이 소유 및 운영하는 팜스 카지노 리조트 또한 라스베이거스 최고의 카지노로 선정되었다. 야마바와 팜스는 산 마누엘 로열티 리워드 프로그램인 클럽 세라노 멤버십을 통해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을 제공하는 지역 최고의 카지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저희는 야마바를 방문하는 모든 분들께 특별한 서비스와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기 위한 저희의 노력을 인정받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라고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의 총지배인인 켄지 홀(Kenji Hall)이 전하며, “이 우수성의 부족의 관대한 확대의 전통에서 비롯되며, 이러한 정서가 고객, 팀원, 파트너, 친구들에게도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의 일부가 되어 보람을 느낍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는 럭셔리 카

지노 게임, 세계적 수준의 라이브 공연, 다채로운 수상 경력에 빛나는 레스토랑, 호화로운 리조트 숙박 시설, Forbes 5성 스파 등 차원이 다른 경험을 선사한다. 야마바의 엘리트 게임 플로어는 서부 최대, 7,200대 이상의 슬롯을 갖추고 있으며, 매년 가장 새롭고 흥미로운 슬롯을 선보이기 위해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게임도 다수 제공하고 있다. 또한, 5개의 하이 리미트 룸과 150개 테이블 게임을 통해 독특한 게임 경험을 제공한다.

더 파인스 모던 스테이크 하우스에서 만날 수 있는 야마바의 Collection 86은 세계 최고 수준의 희귀한 와인과 스피릿 컬렉션을 자랑하고 있으며, 시작부터 끝까지 최상의 식사 경험을 제공한다. 미국 내 몇 안 되는 고베 인증 레스토랑 중 하나인 더 파인스에서는 고베와 희귀한 일본 와규를 모두 맛볼 수 있다.

야마바의 라스베가스 자매 호텔인 팜스 카지노 리조트는 ‘라스베가스 지역 최고의 카지노’로 선정되었으며, 활기찬 게임 플로어, 766개의 객실과 스위트 룸을 갖춘 2개의 리조트 타워, 유명 셰프가 운영하는 식당과 인기 높은 고스트 바 루프탑 라운지 등 다양한 식사 옵션을 제공한다. 팜스 카지노 리조트는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인 샌 매뉴엘 게이밍 &

호스피탈리티 당국이 완전히 소유하고 운영하는 최초의 라스베가스 리조트이다.

샌 매뉴엘 게이밍 & 호스피탈리티 당국의 회장인 라티샤 프리에토(Latisha Prieto)는 “라스베가스 지역 최고의 카지노로 선정되어 영광이며, 수준 높은 게임과 서비스의 표준을 세우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모든 팜스 게스트분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 부족의 문화를 수용해 준 팀원들께 감사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야마바 리조트는 베스트 호텔 부문에서도 인정받았다. Forbes가 선정한 이 호텔은 탁월한 고객 서비스와 최고급 편의시설을 제공하며, 432개의 모던한 객실과 스위트 룸을 갖추고 있다.

야마바와 팜스의 이번 수상은 USA Today의 편집자, 10Best.com의 편집자, 관련 전문 기고가, 그리고 이 두 매체와 기타 Gannett 사 소유 매체의 전문가 패널들에 의해 선정된 다음, 온라인 공개 투표로 결정되었다.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Yaamava' Resort & Casino at San Manuel은 인랜드 엠파이어(Inland Empire, IE) 지역에서 유일한 Forbes Travel Guide 5, 4 성 및

AAA Diamond 등급의 엔터테인먼트 시설이며 넓은 스위트룸이 있는 17 층 호텔과 높은 수영장 데크, Forbes 5성 스파 및 살롱, 최첨단 극장을 갖추고 있다.

최근 ‘라스베가스 지역 외 최고의 카지노’와 파인스 모던 스테이크 하우스로 ‘최고의 카지노 레스토랑’으로 2024 USA Today 10Best 독자 선정 수상 기록이 있는 이 카지노는 로스앤젤레스 시내에서 불과 70 마일 떨어진 캘리포니아주 하일랜드에 위치해 있다. 이 카지노에는 7,200대가 넘는 슬롯, 5 하이 리미트 룸, 고급 소매점, 수상 경력에 빛나는 다양한 레스토랑,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최고의 스포츠 바인 The 909 Food Hall을 비롯한 12개 이상의 바와 라운지가 구비되어 있다.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는 San Manuel Entertainment Authority가 소유하고 운영한다.

자세한 내용은 www.yaamava.com에서 확인하거나 인스타그램, 틱톡, 페이스북, 스레드, X(공식 명칭은 트위터)에서 팔로우하면 된다.

팜스 카지노 리조트

팜스 카지노 리조트는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이 완전히 소유하고 운영하는 최초의 라스베가스 리조트로서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두 개의 타워에 걸쳐 총 766개의 호텔 객실과 스위트룸을 갖춘 팜스 리조트는 호평을 받고 있는 스테이크 하우스 스코치 80 프라임, 인기 있

는 A.Y.C.E 뷔페, 셰프 마이클 사이먼(Michael Symon)의 메이블스 바베큐, 셰프 마크 베티리(Marc Vetri)의 베티리 쿠치나 등 유명 셰프가 이끄는 레스토랑을 포함한 다양한 바와 레스토랑을 선보이고 있다. 새롭게 디자인된 95,000sq ft 규모의 카지노에서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공연장과 독특한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는 이곳에는 무료 발렛파킹 및 셀프 주차 옵션, 2,500석 규모의 콘서트 극장인 더 펄, 고스트 바 루프탑 라운지, 스파 & 살롱, 브렌든 영화관(14스크린), 190,000sqft가 넘는 회의 공간, 약 600개의 팜 플레이스 콘도 미니엄 등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다. 룩의 전설 새미 하거의 이름을 딴 새미스 아일랜드 옛 팜스 풀은 섬의 재미와 여유로운 분위기를 선사한다.

팜스에는 농구 팬을 위한 하드우드 스위트, 볼링 애호가를 위한 킹핀 스위트 등 혁신적인 스위트와 다양한 테마 스위트룸이 있다. 스카이블라 스위트는 훌륭한 예술 작품, 전용 수영장과 테라스, 스트립의 숨막히는 전경을 자랑하는 최고의 럭셔리 스위트로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선사한다.

라스베이거스 스트립 바로 서쪽, 플라밍고 로드의 I-15에 위치한 팜스 카지노 리조트는 샌 매뉴엘 밴드 오브 미션 인디언의 계열사인 샌 매뉴엘 게이밍 앤 호스피탈리티 당국(SMGHA)이 소유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palms.com 또는 Palms 프레스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국 32주년을 축하합니다!



LAW OFFICES OF KYUNG HEE LEE, PC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투자비자(E-2), 투자이민(EB-5) 전문

능력과 접근방법이 결과를 달리 합니다
이민법에 관한 모든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비자신청, 변경 및 연장

- 투자비자 (E-2)
- 취업비자 (H-1B)
- 학생비자 (F-1)
- 종교인비자 (R-1)
- 주재원비자 (L)
- 교환학생 및 비전문직종사자 (J-1)
- 특수기능인비자 (O-1)
- 예술계 종사자 (P-1)
- 재입국 허가서
- 그 외 모든 비자

영주권신청

- 투자이민
 - 이민국 지정 Regional Center를 통한 간접투자
 - 사업운영을 통한 직접투자
- 특별한 능력의 소유자, 지사간부
- 석사학위자 및 5년 이상 경력 소유자
- 전문직, 숙련직 및 비숙련직
- 종교이민

시민권신청

- 시민권신청 부적격성 판단



이경희 변호사 Kyung Hee Lee

서울대학교 졸업

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 (법학박사)

Immigration Law Associates, PC

Legal Department of Centro Romero (Intern & Externship)

Asian Human Services

미국 이민법 변호사 협회 (AILA) 회원

논문 : Human Rights Abuse in China

A Comparative Study of Human Rights and Economic Development in South Korea and Taiwan

Diversity-based Affirmative Action under International Law 등



LA Office

3435 Wilshire Blvd, Suite 1110

Los Angeles, CA 90010

(Equitable Building)

Tel: (213) 385-4646 (imin)

Fax: (213) 385-4040

Irvine Office

20 Corporate Park, Suite 330

Irvine, CA 92606

(Between Jamboree & Beckman)

Tel: (949) 551-4646 (imin)

Website: www.iminusa.net

Email: imin@iminusa.net



LG 에어컨
Life's Good

**에어컨
세계판매 1등!**

Lic# 1021077
대한민국 대표 에어컨

에어컨 구입할 때, 겨울철 난방까지 생각하세요!

시시사철 상쾌한 바람... **더위에도**

추위에도

**300만불
보험 가입
전문업체**

조용한 에어컨

냉·난방 겸용 에어컨 / 공기정화 / 제습기능

4계절 냉·난방!

- 냉방, 난방, 제습 한번에 ok.
- 초절전형 전기로 SAVING (Energy Star)
- 쾌적하게 숙면 할 수 있는 조용한 에어컨



Energy 효율이 높은 모델에 한하여 Federal Tax Credit 신청가능하니 회계사와 협의 바랍니다.

단 하나뿐인!!

스탠드형 에어컨!

상업용, 가정용



개국 32주년을 축하합니다!

Covers 1500sq.ft.
23 x 71 x 17"

FLOOR STANDING



LF427HV

Single Zone Floor Standing

42,000 BTU Cooling & heating

커머셜 냉장고 냉동고



SINGLE-Wall Mount



LS090HXV, LS120HXV

Single Zone Wall-Mou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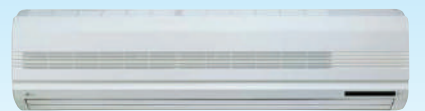
9,000~12,000 BTU Cooling & heating



LS180HEV, LS240HEV1

Mega Single Zone Wall-Mount

18,000~24,000 BTU Cooling & heating



LS307HV3, LS360HV3

Single Zone Wall-Mount

30,000~36,000 BTU Cooling & heating

SINGLE-Art Cool Mirror



LA090HSV~LA240HSV

Single Zone Wall-Mount

9,000~24,000 BTU Cooling & heating

SINGLE-Art Cool Galle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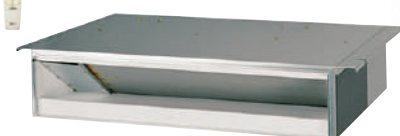


LA090HVP, LA120HVP

Single Zone Wall-Mount

9,000~12,000 BTU Cooling & heating

Multi-Wall Mount



Multi Zone Wall Mount

18,000~54,000 BTU Cooling & heating

SINGLE-Ceiling Cassette



SINGLE Ceiling Cassette

18,000~42,000 BTU Cooling & heating

LG 에어컨 공식 대리점 크레딧카드 받습니다

정식라이선스 업체
(LIC# 1021077)

SK클링 213.364.4000

845 S. Grand View St.
L.A., CA 90057

“4명에서 웃통 벗고 치고 하루에 54홀 돈 적도 있죠”



후배 홍인규(맨 왼쪽), 멘토 김국진과 함께. 변기수인스타그램

4명에서 웃통 벗고 라운드, 하루 54홀 돈 적도 정복 안되는 게 골프 매력, 인생은 이제 7번홀

<지난호에서 이어짐>

다시 무대에 서서 개그하고 싶은 마음도 클 것 같다.

“원래 (윤)형빈이랑 하려고 했어요. 근데 후배들 생각하면 다시 가는 게 부담스러워요. 괜히 어설피게 선배 랍시고 비집고 들어가서 진짜 곤대 처럼 보일까봐, 그게 제일 무섭죠. 출연료만 받는 그런 선배로는 보이고 싶지 않아요. 여기도 회사생활과 비

슷해요. 20년 차쯤 되면 정리하고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이 나가야 내가 진급하는데 왜 눈치 없이 안 나가고 있어’ 이런 분위기 있지 않나요? 개그맨들도 똑같아요.”

다시 골프 얘기로 돌아가서, 특별한 기록 같은 게 있나?

“사이클링 버디를 이글 끼고 해봤어요. 파3 홀 버디, 파4 홀 버디, 그리

고 파5 홀에서 이글.”

홀인원은?

“6년 전쯤 인천 드림파크CC에서 한 번 해봤어요. 147m였는데 7번 아이언이 맞을 때부터 뭔가 약간 슬로비디오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더니 원 바운드 된 후 속 들어가는 걸 제 눈으로 봤어요. 그 순간 정말 짜릿했죠. 근데 제 노래 가사처럼 그랜 홀인원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어요. 보험 가입한 후에는 홀인원 근처에도 안 가고요. 하하.”

개그맨들은 골프 관련 에피소드도 많던데.

“준호 형이랑 인규, 명훈이랑 초창기에 골프 칠 때인데, 어느 날 빗방울이 굵어지면서 앞뒤 팀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저희는 그래도 계속 쳤는데 나중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옷이 무거워서 못 칠 정도가 된 거예요. 그때는 기능성 의류가 있는 줄도 몰랐죠. 그래서 캐디 분에게 저희 웃통만 벗고 쳐도 되겠냐고 했더니 흔쾌히 그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명이 모두 웃통을 벗고 친 적이 있어요. 하루에 54홀 친 적도 있

어요. 파주 서서울CC 첫 팀으로 나갔다 근처 고양 올림픽CC 가서 18홀 치고, 오후 4시에 다시 서서울에서 야간 치고요.”

그렇게 골프를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

“일단 남 탓을 안 하는 운동이에요. 제가 모든 걸 선택하고 책임져야 하잖아요. 그리고 정복이 안 돼서 좋아요. 다른 운동은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가면 기복이 없는데 골프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게 매력인 것 같아요.”

유튜브 활동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을 텐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인물이 있다면.

“저는 항상 김국진 선배를 멘토로 여기고 존경해요. 대한민국 골프 하면 박세리, 연예계에서는 김국진 선배 아닐까요? 하하.”

어떤 점에서 김국진 씨를 존경하나요?

“외유내강이에요. 부드러우면서도

골프를 꾸준히 하고.... 그런 모습이 멋있어요. 제가 원래도 팬이었는데 골프를 통해 좀 더 알게 되면서 더 존경하게 됐죠. 올해 선배님과 멘토와 멘티로 한 팀을 이뤄 다른 팀과 대결하는 프로그램도 하나 찍으려고 준비 중이에요.”

개그 경력 못지않게 골프 구력도 상당하다. 인생은 지금 몇 번 홀쯤 와 있다고 생각하는지.

“7번 홀 그늘집에 있는 것 같아요. 원래 82세의 이준기 회장님 만나기 전까지는 14번 홀쯤 와 있는 줄 알았는데 전 아직 전반 9홀도 돌지 않은 거더라고요. 스코어는 욕심을 내다 OB 한 방을 내는 바람에 3오버 파 정도요. 이제 그걸 만회하기 위해 다시 노력해야죠. 그런 게 골프와 삶 아닐까요?”

인터뷰를 마친 후 헤어지기 전 화장실을 찾는 기자에게 그가 변선생 톤으로 한 마디 했다. “아휴~, 변기나 변소, 그런 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까아~!”



빨모쌤의 라이브 영어회화

맥락과 뉘앙스가 살아나는 진짜 영어 말하기 수업



빨모쌤의 라이브 영어회화

빨간모자쌤 신용하(지은이) | 웅진지식하우스

구독자 150만 명의 '인생 영어 선생님'으로 회자되는 '빨모쌤(빨간모자쌤)'의 첫 책 <빨모쌤의 라이브 영어회화>가 출간되었다. 그가 운영하는 <라이브 아카데미>는 영어 학습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입소문이 자자한, 손꼽히는 유튜브 영어 공부 채널이다. 가장 유명한 'would와 could 올바르게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법' 영상은 조회 수가 300만이 넘고, 다른 영상들의 누적 조회 수도 1억 6000만 뷰에 이를 정도로 사람들의 참여도도 높다.

<빨모쌤의 라이브 영어회화>에는 바람직한 영어 공부 마인드부터 빨모쌤이 엄선한 핵심 영어 표현 75개를 한 권에 총망라했다.

PART 1. 학습 가이드는 "쉽고 빠르게 영어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같은 뼈 때리는 조언으로 영어 공부에 대한 뿌리 깊은 고정관념을 근본부터 뒤흔든다. 그리고 15년 넘게 영어를 가르친 경험을 토대로, 학습자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이게 하는 공부 습관과 태도에 대해 자세히 다룬다.

PART 2. 연습 가이드는 저자가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75개의 영어 강의로 구성된다. 간단하지만 활용도 높은 일상 표현부터 대화의 맥락과 뉘앙스를 자연스럽게 살려주는 연결 표현 등이 다채롭게 소개된다. 우리말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희한한 영어 표현이나 한국인이 자주 실수하는 어색한 표현의 교정 등 그동안 채널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콘텐츠들도 다수 포함한다. 그리고 각 강의에 나온 모든 예문과 대화문을 소리 내어 연습할 수 있도록 빨모쌤이 직접 녹음·제작한 음원 강의 영상이 <라이브 아카데미> 채널에서 출간일 기준 구매자에 한해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많은 사람들이 영어 공부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는 빨모쌤 수업의 특징은 무엇일까?

- 숨겨진 맥락과 미묘한 뉘앙스 차이까지 놓치지 않는 섬세하고 디테일한 설명

빨모쌤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섬세하고 디테일한 설명이다. 문장에 just가 들어가는 것 같은 사소한 변화에도 맥락에 따라 뉘앙스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쉬운 우리말로 명확하게 짚어준다. 이런 저자의 '와닿는 설명'은 두 언어의 차이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하고 깊이 있게 파고든 결과물이기도 하다. 다섯 살에 미국으로 이민 갔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귀국해 낯선 환경에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느라 성장기 내내 힘든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석 하나에도 실제 쓰이는 맥락과 뉘앙스에 가장 근접한 우리말로 알려주려는 그만의 섬세한 배려가 느껴진다. 이런 빨모쌤 설명에 귀 기울이고 있으면, 애매해서 사용하지 꺼렸던 표현들이 어느새 분명한 내 것이 되는 순간을 만나게 된다.

- 내 일상을 영어로 말하기 위한 현실 밀착형 생활 영어

또 다른 특징은 실생활과 밀접하게 닿아 있어서 배우고 싶고 활용하고 싶은 표현들을 알려준다는 점이다. 선택한 주제 표현이나 예문들을 보고 있으면 어떻게 이런 것까지 가르칠 생각을 했는지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는 게 구독자들의 반응이다. 이 책에는 다음과 같은 표현들이 소개된다.

We lost almost two weeks' worth of work

거의 2주 치의 작업량을 날렸어요

I know it's not my fault, but there's still a part of me that feels guilty.

내 탓이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죄책감이 드는 마음도 있어.

Let's take a break. Or better yet, let's get some coffee.

잠깐 쉬자. 아니면 커피를 마셔도 좋고.

Just so you know, I'm not just doing this for the money.

참고로, 난 이걸 돈만 보고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일상을 영어로 말하는 연습은 우리의 경험, 생각, 느낌 등을 소통하기 위한 쓸모 있는 표현들을 배울 수 있게 해준다. 빨모쌤과 함께 평소 거의 매일같이 쓰게 되는 말들을 가장 자연스러운 영어 표현으로 배워보자.

실제 외국인과의 영어로 대화하는 것이 한결 편해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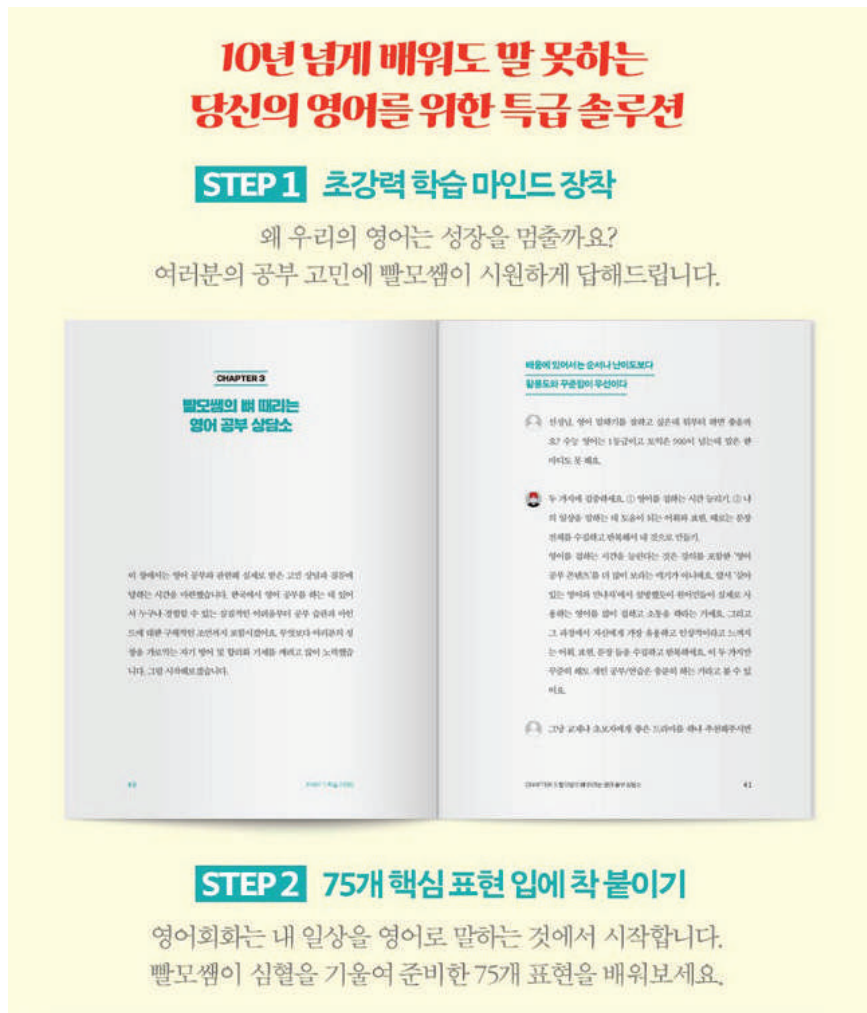
- 이해는 한 번만 하고 연습은 백 번 시키는 빨모쌤의 진짜 말하기 훈련

많은 사람들이 효과적인 영어 학습 방법을 물어보고 또 기대한다. 하지만 빨모쌤은 "빠르고 쉽게 영어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럼에도 어떤 비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불필요한 학습 고민과 스트레스를 낳는다"며 일침 한다. 그리고 언어를 배우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 소리 내 말하기를 반복해서 그 감각을 몸에 익히는 것뿐이라고 조언한다.

그래서 이 책은 하나의 표현을 배우더라도

이나 'To-Speak List'의 활용 같은 재미있고 효과적인 연습 팁들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와 함께 제공된다. 특히 혼자 영어 공부를 하는 사람에게는 긴 배움의 여정 동안 꾸준함을 잃지 않게 도와주는 좋은 학습 도우미가 되어줄 것이다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영어를 배우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뿐이다." 나이를 먹어서도 절대 바뀌지 않는 목표 중 하나가 영어라면, 영어 잘한다는 소리 한 번 들어보는 것이 꿈이라면, 지금부터 빨모쌤과 함께 영어 말문이 트이는 진짜 공부를 시작해보자.



최대한 다양한 맥락에서 연습할 수 있게 많은 예문을 가득 실었다. 그리고 난이도보다 활용도를 고려해, 다소 복잡한 구성이더라도 영어에서는 정말 흔한 표현 방식이라면 오히려 더 많은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또한 저자가 직접 읽어주는 음원 강의 영상을 출간 시점부터 순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한 번 이해하고 백 번 연습하기' 콘셉트의 말하기 훈련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 영어 일기 쓰기부터 발음 연습까지 혼자서도 영어 실력을 높일 수 있는 연습 팁 공개
책 중간중간에 배치된 '영어 업그레이드 팁' 5가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요소다. '영어 일기 쓰기'를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



알라딘서점 LA점
송명국이사

늘 긍정적인 마인드와 에너지로 주변에 활기와 생동감을 나누어 주는 내집 마련도우미 '크리스틴 신'

여행으로 힐링하고 가족과의 평범한 일상을 통해 사회 생활과 개인 생활의 발란스를 찾는 것이 위기와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된다는 용자전문가

▶ 나는 누구인가?

20 경력의 "내집마련 도우미", 용자의 신! 크리스틴 신! 저는 부에나 팍(Buena Park)에 위치한 모기지 전문 용자회사인 Northwestern Capital 대표로 일하고 있으며 한인 비즈니스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다양한 한인 비즈니스 협회에서 활발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를 아는 분들은 저에 대해 배터리 회사의 대표 마



스코트인 '에너지자이저 버니(Energizer Bunny)'를 연상케 한다며 긍정 에너지를 발산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늘 긍정적인 마인드와 에너지를 장착하여 주변에 활기와 생동감을 나누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하는 일?

2004년부터 20년 이상 모기지 용자 전문가로 일하고 있으며 첫 주택 구매부터 재융자, 시니어 리버스 모기지(Senior Reverse Mortgage), 2차 용자인 Home Equity Line of Credit 등 각종 모기지 상품들을 안내하고 있으며 내집 마련의 꿈을 현실로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현 남가주 부동산협회 사무국장, 동부한인회 수석부회장, 아시안 부동산협회 부회장, OC 한인상공회의소 이사, OC 지도자 협의회 대외협력 부위원장, 그리고 도산 안창호 기념회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한인 비즈니스 및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리더로서 한인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

습니다. 연세 글로벌 최고 경영자 과정 수료 등 리더로서 소양을 쌓고 지평을 넓히는데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 하고 싶은 이야기는?

최근 높은 이자율과 인플레이션으로 많은 분들이 내집 마련의 꿈을 포기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회는 늘 있기 마련입니다. 전문가를 통해 내 상황에 맞는 용자 서비스나 정부 지원등의 기회를 확인해 보는 등 적극적인 마음가짐과 자세로 접근하면 아직 기회는 많고 내집 마련의 꿈을 현실화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전문가와 우선 상담하시고 시간을 두고 차분히 준비한다면 내집 마련은 꿈이 아닌 가까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 재미를 느끼는 일은?

현재 종사하고 있는 모기지 용자 서비스 뿐 아니라 각종 한인 협회에서 활동하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네트워킹을 하는 것에서 에너지를 얻고 협회들을 통해 봉사활동을 하며 나눔을 실천할 수 있음에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터 골프를 시작하여 정신 건강과 함께 신체적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고 있습니다.



▶ 즐겨 찾는 식당과 메뉴는?

한국인의 기본 정신은 밥심에서 시작된다 고 생각합니다. 잘 먹어야 열심히 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래도 미팅을 많이 하다보니 미팅에 편리한 식당들을 주로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에나 팍에 위치한 경복궁의 갈비 구이와 보리굴비 메뉴를 특히 좋아하며 이런 정통 한식에 빠져 있습니다.

▶ 제일 좋아하는 노래, 음악?

요즘 대세인 K-Pop 아이돌 그룹인 뉴진스의 하입보이(Hype Boy)를 가장 즐겨 듣고 있습니다. 최근 높아진 K-Pop의 글로벌 인기를 실감하며 한국 문화의 우수성과 높아진 위상이 정말 자랑스럽게 느껴집니다.

▶ 힘들때 이겨내는 방법은?

가끔 일상을 벗어날 수 있는 여행으로 힐링하고 가족들과의 평범한 일상을 통해 사회 생활과 개인적인 생활 사이의 발란스를 찾는 것이 위기와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들과의 수다와 가

족들의 사랑과 뒷받침이 가장 큰 힘이 되네요.

▶ 앞으로의 계획?

크리스틴 신! 제 이름만으로 그 어떤 용자라도 신속한 해결을 제공한다는 신뢰를 줄 수 있는 용자 전문가로 더욱 성장하기를 희망합니다. 한인으로서 미국에서 살면서 늘 자부심을 갖고 한인 사회를 위해 어떻게 더 많이 봉사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더 많은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국 32주년을 축하합니다!



종업원
상해보험



주택보험



사업체보험



자동차보험



그룹·개인
건강보험

한인종합보험이 캘코보험의 한가족이 되었습니다!

30여 년의 전통을 가진 한인 최대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보험이 한인종합보험과 M&A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객의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는 캘코보험



캘코보험
CAL-KOR Insurance
213-387-5000

K-장녀 손나은 “연기 호평, 눈물날 것 같아요”

그룹 '에이핑크' 출신 손나은(30)은 유독 대중들의 평가가 냉정하다고 느끼지 않을까. '대풍수'(2012~2013)를 시작으로 10년 넘게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지만, 연기력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대행사'(2023)에서 재벌3세 인플루언서를 맡아 거센 혹평을 받았다. 전날 막을 내린 JTBC 주말극 '가족X멜로'에서 K-장녀로 변신한다고 했을 때 걱정 어린 시선이 많았던 까닭이다. 손나은의 노력과 진심이 통한 걸까. 이번엔 '연기력이 많이 늘었다'는 호평이 쏟아졌는데 "진짜 눈물 같다"며 울컥했다.

“처음으로 '미래 캐릭터에 공감한다'는 반응

이 많더라. 연기하는 입장에서 기분 좋고 감사하다. '평소 보여준 캐릭터와 다른데 잘 어울린다' '미래 같다'는 반응은 기분 좋은 칭찬이다. 더 용기가 생기고 힘이 난다. 다양한 반응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반응이든 나한테 관심을 주는 거니까 감사하다. 좋은 얘기는 소리를 열린 마음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고, 노력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이 드라마는 11년 전 내다버린 아빠 '변무진'(지진희)이 우리 집 건물주로 컴백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다. 손나은은 무진과 '금애연'(김지수)의 딸 '변미래'를 연기했다. 그동안 화려한 캐릭터를 주로 맡아 공감하기 어렵지 않았을까 싶었지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미래처럼 꾸밈없고 자기 일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딱 맞아 떨어졌다. 연기하면서 미래를 이해하는데 힘든 점은 없었다. 워낙 안쓰러워서 저절로 감정이 입 됐다”고 돌아봤다.

특히 김다예 PD가 “나은씨한테도 미래가 보인다”고 해 큰 힘이 됐다. “전작에서 워낙 화려한 캐릭터를 맡다 보니 반전의 모습을 찾아내고 싶었던 것 같다. 감독님과 사전 리딩할 때 ‘원래 손나은과 미래는 갭이 있을 것 같았다. 연기하다 보니 미래 모습이 보여서 살리면 좋을 것 같다’

고 하더라”면서 “감독님의 그 한마디가 힘이 됐다. ‘나한테도 미래가 있어!’라며 자신감을 가졌다”며 좋아라했다.

김지수(51)와 모녀 호흡도 자연스러웠다. “촬영 전부터 자주 만나고, 가까워지려고 노력했다. 현장에서 편했고, 정말 엄마 같았다. 눈만 마주쳐도 약간 찼했다”며 “애드리브도 자연스럽게 잘 나왔다. 엄마랑 밤에 맥주 한 잔 할 때 뒷 대사는 거의 다 애드리브였다. 퇴근 후 엄마가 고생했다고 안아줄 때도 뒷부분은 애드리브로 쪽 갔다. 방송에선 잘렸지만, 실제로는 길게 했다”고 설명했다.

김지수(51)와 모녀 호흡도 자연스러웠다. “촬영 전부터 자주 만나고, 가까워지려고 노력했다. 현장에서 편했고, 정말 엄마 같았다. 눈만 마주쳐도 약간 찼했다”며 “애드리브도 자연스럽게 잘 나왔다. 엄마랑 밤에 맥주 한 잔 할 때 뒷 대사는 거의 다 애드리브였다. 퇴근 후 엄마가 고생했다고 안아줄 때도 뒷부분은 애드리브로 쪽 갔다. 방송에선 잘렸지만, 실제로는 길게 했다”고 설명했다.

엄마가 상의없이 독립시켰을 때는 서운하지 않았을까. 애연은 미래 몰래 집을 구해 짐을 옮겼고 “너 이제 내 딸, 우리 집 가장 말고 변미래로 살라”고 응원했다. 손나은은 “가족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하루 아침에 내쫓겨서 미래 입장에서 황당했을 것”



러워 한다”고 했다.

태권도 국가대표 출신 '남태평'(최민호)과 남동생 '현재'(윤산하) 모두 아이돌로 활동해 호흡하기 편했을 터다. 2013년 MBC TV 예능 '우리 결혼했어요'에서 그룹 '샤이니' 태민(31)과 가상 커플로 출연했는데, 이번엔 민호(32)와 로맨스를 그려 '우결 세계관이 붕괴됐다'는 반응이 나왔다. “땀글 보고 재미있었다. 1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 아직도 관심을 많이 줘서 감사하다”며 “민호 오빠는 보는 그대로다. 정말 솔직하고 성격 좋고, 열정의 아이코너처럼 현장에서 '으쌔으쌔' 해준다. 내가 힘들어하면 '할 수 있어. 힘내자'라고 해줬다. 전에 짧게나마 호흡을 맞춰서 좀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었다”고 했다.

손나은은 30대에 접어들 뒤 “싱송생송하다”고 토로했다. “스스로 조금한 마음을 갖게 되더라”면서 “생각이 많아서 지나간 일을 후회하고 미련도 남지만, 사실 다 부질없는 것 같다. 지금이 가장 중요하고, 현실에 충실하고 싶다”고 바랐다.

데뷔 11년만인 2022년 에이핑크에서 탈퇴했다. 그해 10주년 앨범을 발표했으나, 활동은 불참했고 두 달만에 탈퇴를 선언했다. 정은지(31)는 여전히 에이핑크와 연기 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만큼, 아쉬워하는 팬들이 많다. 많은 오해를 받았지만 “억울한 건 없다”며 “10주년 앨범 뮤직비디오 등을 다 촬영했는데, 스케줄이 안 돼 (함께 활동하지) 못했다. 멤버들과 팬들에게 미안했고, 나 역시도 아쉬움이 컸다. 10~20대 오랜시간 함께 한 팀이라서 아름답고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있다”고 털어놨다.

“지금은 내 자리에서 보여줘야 할 때다. 오래 함께 해온 팀이라서 끝까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그렇게 안 돼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도 있었다. 서운하기보다 그렇게 가기로 했다. 지금은 (멤버들과) 연락하지 않지만, 나도 한명의 팬으로서 응원하고 있다. 은지 언니 작품('낮과 밤이 다른 그녀')이 잘되고, 내가 바로 바통터치해 기분이 좋았다. 멤버들이 나오거나 찾아보려고 한다. 다들 열심히 해 마음 속으로 응원하고 있다.”

“10년 넘게 많은 사랑... 중요한 게 뭔지 볼 수 있는 능력 생겼죠”



이라면서도 “선배님(김지수)과 연기하면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감정을 표현했다. 약간 울컥해 그대로 표현했다. 사실 투덜 대는 버전까지 두 가지 버전을 찍었는데, 방송에선 내가 생각한 대로 나왔다”고 귀띔했다.

실제로는 어떤 딸인지 궁금했다. “장녀인데 막내 같은 딸”이라며 “동생이 더 언니 같고, 집에서 내가 더 동생 같다”며 웃었다. 미래처럼 가장은 아니라며 “엄마가 수입을 관리하지만, 내가 일해서 번 돈을 딱히 가족들에게 지원하지 않는다. 차, 집 등보다 소소한 선물을 많이 한다. 아빠에게 필요한 영양제, 운동화 등을 사다 드리는 편이다. 부모님은 큰 걸 부담스

한국홈쇼핑 사이트 개편 기념

오픈이벤트

행사기간 : 9.19~10.31

드디어 새롭게 찾아온 한국홈쇼핑
사이트 개편 기념 특별이벤트!

#무료배송



구매금액 상관없이
전품목 무료배송

* 하와이, 알래스카 지역 제외.

#무료증정



한국TV 셋탑박스
무료증정(50불상당)

* 구매하신 제품과 함께 배송

한국  홈쇼핑
shop.koreatimes.com

(한국일보사가 직접 운영합니다!)

※ 벤더 모집 중 : jsk@radioseoul1650.com

• 주문전화 : 323 692 2054 / 323 692 2080 / 213 304 3486

‘데뷔 30주년’ 박진영

“신인 때부터 제가 원했던 건 하나..”



“여러분들 앞에 선 지 30년이 됐다. 신인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원했던 건 하나다. 오래오래 춤추고 노래하고, 여러분을 위로하며, 힘과 감동을 주는 딱 거 하나였다. 나의 오랜 꿈이었는데, 30년을 드디어 채웠다.”

‘영원한 현역’으로 통하는 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영(52·J.Y. Park) JYP엔터테인먼트 창의성 총괄 책임자(CCO)가 데뷔 30주년을 맞아 추석 명절에 존재감을 뽐냈다.

박진영은 지난 16일 방송된 KBS 2TV KBS 대기획 ‘따따라 JYP’(연출 고국진)에 출연해 30년의 음악 인생을 총망라한 공연을 선보였다.

파격적인 형광 슈트를 입은 박진영은 이날 본인의 히트곡 ‘날 떠나지마’, ‘청혼가’, ‘그녀는 예뻐다’를 차례로 선보이며 오프닝부터 흥을 한껏 끌어올렸다.

그는 “20년이 지났을 때는 나태해지지 않으려고 곡을 썼다. 30년은 돼야 그래도 레전드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오늘 여

러분 모두 근심과 걱정은 잊고 즐거운 밤 보낼 수 있도록 최고의 공연을 준비했다”고 자신했다.

이후 박진영은 본인이 작업에 참여한 아티스트의 곡들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했다. 진주의 ‘난 괜찮아’부터 박지윤의 ‘성인식’, 엄정화의 ‘초대’까지 색다른 무대를 꾸몄다.

특히 박진영의 손에서 탄생한 월드 클래스 K팝 아티스트들 또한 총출동해 그와 컬러버

박진영의 발라드 무대도 이어졌다. 부드러운 피아노 연주로 선보인 이기찬의 ‘또 한번 사랑은 가고’부터 선예와 함께 열창한 ‘대낮에 한 이별’까지 이색 재미를 선사했다.

또 박진영은 선미와 함께한 ‘웬 위 디스코(When We Disco)’ 무대로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이후 선미 그리고 원더걸스 다른 멤버들인 선예, 유빈과 함께 ‘텔 미(Tell Me)’, ‘소 핫(So Hot)’ 등 원더걸스 대표곡을 함께 가창했다.

‘짐승돌’로 통하며 2세대 대표 K팝 아이돌 그룹으로 통한 ‘2PM’은 박진영의 선창에 이어 ‘어게인 & 어게인(Again & Again)’으로 함께 무대에 올랐다. ‘하트비트(Heartbeat)’ 무대의 와일드한 사운드와 힘 있는 퍼포먼스가 관객들의 심장을 두드렸다.

박진영은 이후 등장한 3세대 K팝 간판 걸그룹 ‘트와이스’와 함께 ‘필 스페셜(Feel Special)’, ‘왓 이즈 러브(What is Love?)’로 세대 대통합의 무대를 완성했다.

이밖에도 JYP 수석 작곡가 출신인 방시혁 하이브의 장을 비롯 악뮤(AKMU) 이찬

혁, 성시경, ‘미쓰에이’ 출신 수지, 싸이, ‘에스파’ 카리나가 인터뷰를 통해 박진영에 대한 존경심을 표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박진영은 ‘너뿐이야’, ‘피버(FEVER)’, ‘스윙 베이비(Swing Baby)’, ‘어머님이 누구니’, ‘허니(Honey)’ 등 히트곡 릴레이를 선보였다.

박진영은 “더 멋진 공연으로 12월에 만나겠다”며 곧 있을 콘서트를 예고했다. 관객들과 함께 ‘날 떠나지마’로 마지막 무대를 완성했다.

<뉴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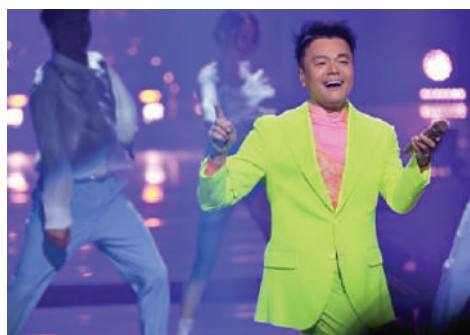


KBS 대기획 ‘따따라 JYP’로 30주년 음악인생 총망라
god · 원더걸스 · 2PM · 트와이스 지원사격
자신이 프로듀싱한 1.5 ~ 3세대 K팝 아이돌 그룹과 한 무대

레이션 무대를 선보였다. 1.5세대부터 3세대 K팝 아이돌까지 어울렸다.

그룹 ‘지오디(god)’의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에 이어 ‘거짓말’을 열창하던 박진영의 무대 위로 god가 깜짝 등장했다. 이들은 ‘거짓말’, ‘촛불하나’ 등의 히트곡 무대를 함께 꾸미며 관객들의 추억을 자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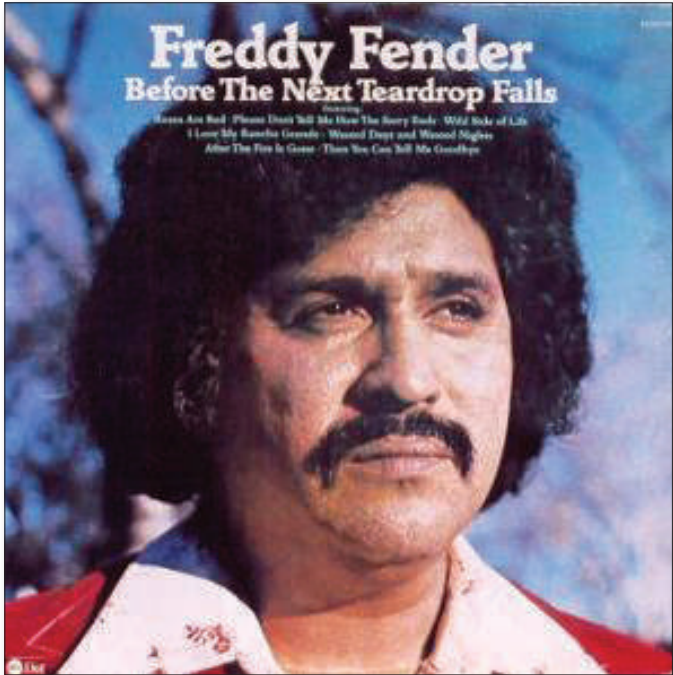
이후 박진영은 ‘난 여자가 있는데’ 무대로 ‘따따라 JYP’의 열기를 한층 끌어올렸다. 서프라이즈로 등장한 가수 겸 배우 비(정지훈) 또한 박진영과 환상의 호흡으로 ‘나로 바꾸자’ 공연을 선보이며 눈과 귀가 즐거운 투샷을 완성했다.



오늘 저녁 이 노래 한 곡

Before The Next Teardrop Falls

Song by Freddy Fender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자기만의 기억과 스토리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

한 소설의 가사에 그녀와 나의 추억이 담기고, 한 음절의 멜로디에 그이와 나의 그림이 묻어져 버린 누구에게나 그럴 수 있는 그런 노래 한 곡 음악 한 곡을 이 지면에 담아 본다.

H매거진이 추천 하는 이 노래 한 곡, 오늘 저녁 와인이나 차 한잔 하며 유튜브나 스트리밍앱 더 나아가서 음반을 구입해 들어보며 기억과 함께 쉬는 시간을 권한다.

1975년에 발표된 이 노래는 발표 후 80년대말까지 한국의 나이트클럽이나 카바레에서 단골 부르스 곡으로 연주되었던 곡이다.

음악다방에서는 끈적끈적한 듯한 멜로디와 스페인어 가사가 중간에 미국적으로 나오는 이 곡을 남녀간에 스킨십을 유발하게끔(?) 해줄 노래로 많이 틀어지곤 했다.

2024년 현재 이제는 60대에서 80대 연령이 된 세대가 한창 잘 나갈 때(?) 나이트클럽에 가서 놀다가 블루스 타임이 되면 쉽게 틀어져 나오던 노래였다.

프레디 펜더(Freddy Fender, 1937년 6월 4일 ~ 2006년 10월 14일 본명-Baldemar Huerta)는 미국의 테자노 싱어송라이터로, 솔로 가수로서의 활동과 그룹 로스 슈퍼 세븐과 텍사스 토르나도스의 활동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사운드는 컨트리, 록, 팝, 텍스-멕스 스타일을 융합시킨 음악이기에 다양한 층의 사람들이 편안하게 들을 수 있다.

1950년대부터 테자노(Tejano) 관객들을 위해 스페인어 로큰롤을 시작한 펜더(Fender)의 주류 돌파구는 1975년 크로스오버 히트곡 "비포 더 넥스트 티어드롭 폴스(Before the Next Teardrop Falls)"로 빌보드 팝 및 컨트리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

If he brings you happiness
Then I wish you all the best
그가 당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면
그럼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It's your happiness that matters most of all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행복입니다.

But if he ever breaks your heart
If the teardrops ever start
하지만 그가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만약 눈물이 똑똑 떨어진다면

I'll be there before the next teardrop falls
다음 눈물이 떨어지기 전에 갈게요.

Si te quiere de verdad
Y te da felicidad
당신을 정말 사랑한다면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Te deseo lo más bueno pa' los dos
'두 분에게 좋은 일만 생기길 바랄게요.

Pero si te hace llorar
A mé me puedes hablar
하지만 그게 널 울린다면
저한테 말씀하셔도 됩니다.

Y estaré contigo cuando triste estás
그리고 네가 슬플 때 내가 옆에 있어줄게

I'll be there anytime
You need me by your side
언제든지 가겠습니다.
당신은 내가 당신 곁에 있어야 합니다.

To drive away every teardrop that you cried
네가 울었던 모든 눈물을 쫓아내기 위해

And if he ever leaves you blue
Just remember, I love you
그리고 그가 당신을 우울하게 내버려둔다면
기억해요, 사랑해요.

And I'll be there before the next teardrop falls
And I'll be there before the next teardrop falls
그리고 나는 다음 눈물이 떨어지기 전에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다음 눈물이 떨어지기 전에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개국 32주년을 축하합니다!

소비자 감사 이벤트

처음처럼 한정 세일 진행

처음처럼 6병 + 신라면 4봉지

“가까운 한인 마트에서 만나보세요”





“2024년 마생 천종산삼 입고”

노우스 캐롤라이나 야생 천종산삼 진품 \$99 부터



**WILD
GINSENG
U.S.A**



<사진>
15년-20년 생산삼 (75g)
(12-15뿌리) 생식용

스티븐 조 공인 뉴트리셔니스트
미 공인 뉴트리션-Certified No.: 6239

- \$250** 20년-35년 생산삼 (80g) (10-12뿌리)
- \$500** 35년~45년 생산삼 (90g) (약 10뿌리)
- \$1,500** 45년이상 희귀 생산삼 (8-10뿌리)

인증 받은 진품

노우스 캐롤라이나는 거주민을 대상으로 산삼을 채취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NHS 내추럴 헬스 시스템은 이곳에 거주하는 심마니들이 채취한 산삼을 지역 농림부에서 인증을 받아 스테이트 밖으로 반출 허가를 받고 합법적으로 판매하는 진품입니다. 매장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주문 가능하며 방문시 농림부 인증서를 직접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주문 및 상담 환영 213-277-8866

신규 매장 오픈전 감사이벤트

본 이벤트는 8월중 오픈 예정인 신규 매장으로 이전을 앞두고 고객님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공하는 마지막 이벤트입니다.



\$45.00 +Tax

메가 구연산 캡슐

Mega Citric Acid 60 v-caps



3병

~~\$155~~
\$110



산삼
아나볼릭

**1+1
하나공짜**

12정 \$85 24정 \$150

남성 성기능 장애
발기부전
조루 / 전립선 개선



면역력 강화 특화 영양제
에키네시아/산삼

당뇨 / 항염증
항바이러스
항박테리아
면역강화
각종 알러지 예방/치료

\$55

**1+1
하나공짜**



천종산삼 여주

120 베지캡슐
당뇨, 통증
류머티스, 아랫증
피부병
천연인슐린

\$45

**1+1
하나공짜**



민들레/영경귀/천종산삼

100 베지캡슐
간기능 개선
지방간
만성피로
혈액순환

\$48

**1+1
하나공짜**



산삼 콜라겐

**1+1
하나공짜**

\$65

순도 100% 콜라겐
천종산삼 / 천연유황
히알루론산 / 포도씨농축
피부건강 / 손톱건강
모발건강 / 뼈건강



북미, 유럽의 의학계에서 인정하는
노루궁뎅이 버섯+산삼

Lion's Mane Mushroom 120 캡슐
치매
알치하이머
파킨슨
우울증
염증 / 면역력

\$65

**1+1
하나공짜**

“치매 예방 및 완화 특효”



“하늘이 주신 신비의 식물, 시서스!”
산삼 시서스

120 베지캡슐
뼈, 관절 건강, 체질 개선
지방증가 억제, 지방 분해

\$55

**1+1
하나공짜**

3341-A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엘에이 조선갈비 건너편)

전화 주문 및 상담 환영 213-277-8866

WNBA판 매직 존슨-래리 버드 라이벌이 구성됐음에도



문상열
스포츠전문기자

NBA는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 스포츠로 자리 잡았다. 지난 7월 NBA는 2025-26시즌부터 새로운 방송 중계권 계약을 맺었다. 새 계약 파장은 크다. ESPN보다 인기가 높았던 TNT의 'Inside NBA'를 시청할 수 없게 됐다. 진행자 어니 존슨과 찰스 바클리, 샤킬 오닐, 케니 스미스의 이 프로그램을 볼 수 없다는 게 안타깝다.

TNT의 자리를 NBC와 AMAZON이 메운다. NBC는 TNT보다 2배의 중계권료를 지불하면서 NBA에 복귀한다. ABC/ESPN, NBC, AMAZON과의 11년 중계권료는 76억 달러다. 메이저리그보다 훨씬 높은 액수다. 다음 MLB의 중계권 계약이 주목된다. 스포츠 마켓이 커지면서 미국 메이저 종목의 중계권료는 상상을 초월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스포츠 중계권료가 종전보다 낮아지고 있다. 인기와는 달리 광고 수입이 비례하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팬들은 오늘날 NBA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세계적 주목으로 자리매김하는데는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고 믿는다. 틀린 분석은 아니다. 그러나 NBA를 최고 인기 스포츠로 올려놓은 절대적 지분은 백인 포워드 래리 버드와 흑인 포인트가드 매직 존슨이다.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조던은 꽃을 피웠다.

둘은 1979년 NBA에 동시 입단했다. 공교롭게도 NBA를 양분한 최고 명문 소속이 됐다. 동부의 보스턴 셀틱스, 서부 LA 레이커스. 버드와 존슨이 입단하기 전만해도 NBA는 메이저 종목 가운데 2류였다. 요즘 팬들은 의아하다고 하겠지만 NBA 파이널이 생중계로 방영되지 못했다. 선수들은 코트 밖에서 약물과 사고로 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코트에서는 특하면 주먹다짐의 싸움판이 됐다. 경기 도중 어떤 일이 벌

어질지 모르는 터라 라이브 중계가 불가능했다.

이를 뒤엎은 게 존슨과 버드다. 둘은 NCAA 토너먼트에서의 인기를 그대로 NBA로 옮겼다. 1979년 버드의 인디애나 스테이트와 존슨의 미시건 스테이트가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벌어진 NCAA 토너먼트 결승에서 격돌했다. 버드가 이끈 인디애나 스테이트는 33승 무패로 결승에 올랐다. 그러나 결승전에서 존슨의 활약으로 미시건 스테이트가 75-64로 인디애나 스테이트를 누르고 우승했다. 흑인과 백인 두 슈퍼스타가 활약한 미시건 스테이트-인디애나 스테이트의 결승전 시청률은 역대 최고를 자랑했다. 시청률 24.1%에 3510만 명이 시청했다. 이 기록은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다. 1982년 노스캐롤라이나 마이클 조던-조지타운 패트릭 유잉의 결승전도 버드-존슨의 시청률에는 미치지 못한다.

결승전 흑백 대결 후 매직 존슨은 드래프트 전체 1번으로 레이커스의 지명을 받았다. 버드는 1년 전에 보스턴 셀틱스가 뽑았다. 당시는 지명권 보유가 1년이었기에 버드의 보스턴 행이 가능했다. 이 때부터 NBA는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다. 두 스타는 인기를 누릴 요소를 두루 갖췄다. 워낙 뛰어난 기량의 클러치 플레이어에 명문 팀 소속의 흑과 백이었다. 버드의 셀틱스와 존슨의 레이커스는 NBA 파이널에서도 3차례 맞붙었다. 레이커스의 NBA 파이널 셀틱스전 8연패 수모를 처음 저지한 것도 매직 존슨이었다.

팬들이 두 슈퍼스타에 열광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일반적인 통념과는 달리 가정환경이 정반대였다는 점도 독특했다. 흑인 존슨은 아버지가 자동차 회사 GM의 기술자였다. 안정된 삶을 살았다. 백인 버드의 부친은 알콜 중독자에 권총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성장했다. 발군의 기량으로 농구 명문 인디애나 대학에 입학했음에도 캠퍼스가 큰 대학의 환경이 맞지 않아 인디애나 스테이트로 전학했을 정도다.

버드는 우승 3회, 존슨은 5회와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드림팀 멤버로 활약하며 훗날 나란히 명예의 전당에 가입했다. 현역 시절 치열한 라이벌 구도로 NBA를 부흥시킨 둘은 매우 절친한 친구 사이로 남아 있다.



NBA를 최고 인기 스포츠로 올려놓은 절대적 지분은 백인 포워드 래리 버드와 흑인 포인트가드 매직 존슨

NBA의 버드-존슨과 같은 구도로 대전환점을 맞춘 WNBA에는 흑인 에인절 리스와 백인 케이틀린 클락

2024년 WNBA도 버드-존슨과 같은 구도로 대전환점을 맞췄다. 흑인 에인절 리스와 백인 케이틀린 클락이다. 둘은 대학 라이벌을 거쳐 나란히 WNBA에 입단했다. 2023년 LSU의 리스는 결승전에서 아이오와 대학의 클락을 눌렀다. 리스는 우승을 뜻하는 손가락을 흔들며 클락을 조롱해 화제가 됐다. 클락을 앞세운 아이오와는 2년 연속 NCAA 토너먼트 결승에 진출했지만 우승은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클락은 NCAA 사상 남녀 통틀어 역대 최다 3951포인트를 작성했다.

포인트가드 클락은 2024년 WNBA 드래프트에서 전체 1번으로 인디애나 피버에 지명됐다. 포워드 리스는 9번으로 시카고 스카이에 뽑혔다. WNBA는 올해 처음으로 전세 비행기를 이용하게 됐다. 관중은 폭발적으로 늘었다. 인디애

나 피버는 WNBA 사상 최초로 홈관중이 30만 명을 돌파했다. 클락 때문이다. WNBA는 기업 스폰서도 줄을 이었고 방송중계권료도 대폭 인상됐다. 클락이 아니었다면 이런 변화는 힘들었다. 다른 팀의 관중은 폭발적으로 늘지 않았다. 수치가 말해준다. 코트에서의 기량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스텐퍼 커리를 연상케한다.

그러나 흑인 선수와 팬들은 이를 순수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과대평가돼 있고 리그가 과보호를 한다고 생각한다. 상대 선수, 흑인 해설자, WNBA 출신들은 평가절하한다. 고의적인 파울도 종종 나타난다. 클락을 향한 프라그란트 파울만 5차례다. 클락을 제외하고 1개 이상의 프라그란트 파울을 얻은 선수가 없다. 리스-클락의 라이벌 구도가 순기능으로 이어져야 하지만 현실은 다

르다. SNS에서 상대를 죽여야 하는 것으로 대하고 있다. 존슨-버드 라이벌과 다른 점이다. 여성 특유의 시기심이 작동돼 걸림돌에 직면해 있다.

테니스의 빌리 진 킹, NBA 출신릭 배리(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조지 거빈(샌안토니오 스퍼스) 등 각 종목의 레전드들이 클락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WNBA가 도약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는 이유다. WNBA는 그동안 틈새 시장 공략이 정책이었다.

이제 홀로서기가 가능해졌다. 대학을 거친 스타 플레이어들이 많이 배출됐지만 클락만큼의 임팩트를 과시한 플레이어는 없었다. 앞으로 WNBA가 어떻게 전개될지 그 중심에는 케이틀린 클락과 에인절 리스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moonsytxas@hotmail.com

한국 송금이 필요할 땐 —



빠르고 간편한 와이어바알리



개국 32주년을 축하합니다!

📍 미국 🇺🇸 ↔ 한국 🇰🇷 양방향 당일 송금 (첫 거래 등 예외)

🏠 1회 \$5,000, 1일 \$10,000 송금 가능

💰 수수료 0! 로열티 고객 또는 \$1,000 이상 송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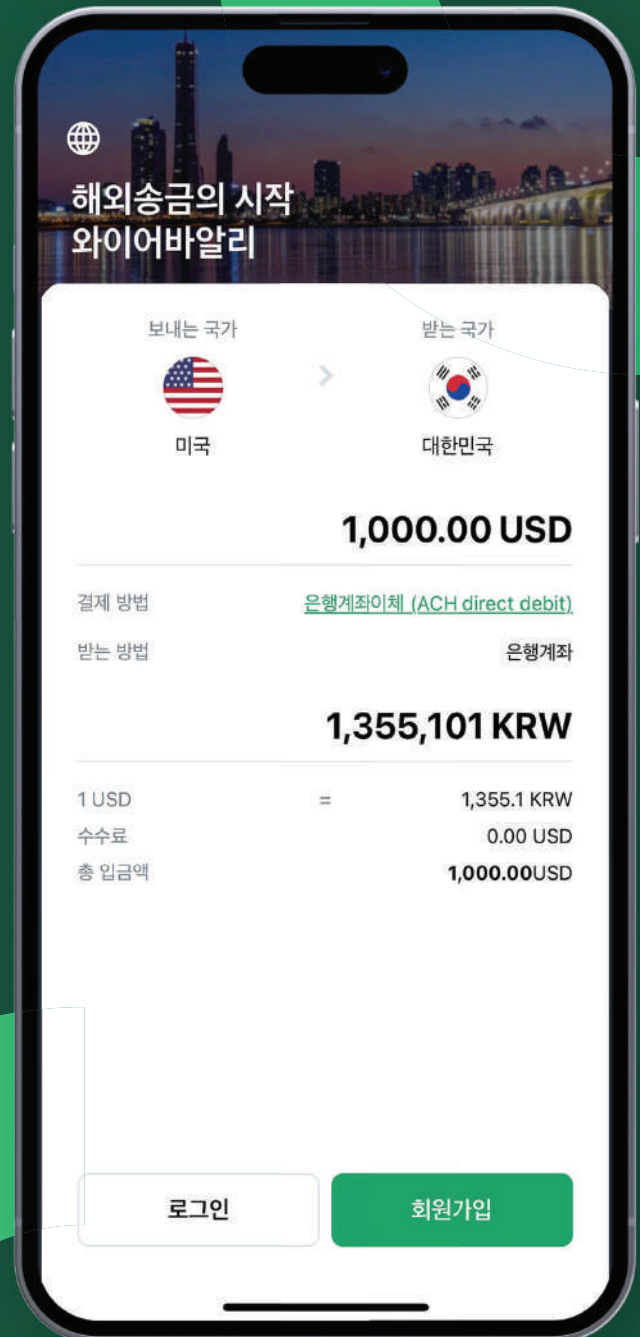
🎁 신규 고객 \$5 쿠폰 · 친구초대 쿠폰 혜택

누적 180만+
앱다운로드

전 세계 90만+
고객 사용

누적 송금액
6조원+

전세계 520+
송금 구간



www.wirebarley.com

고객센터 : 855-582-1024

으쌔~화이팅!! 영탁과 박경림



가수 영탁이 새 미니 앨범 '슈퍼슈퍼(SupeSuper)'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와! 우리가 판치는 세상이닷~~

'출산율 꼴찌' 한국, 유모차보다 '개모차' 더 팔려...

모든 것의 시작?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



상담 전화 (213)739-2877 www.askjiyun.com (9월 24일 ~ 10월 7일)



지윤철학원



쥐띠 - 전체적인 흐름에 맞춰야

운수 :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거나 분위기가 싫더라도 전체적인 흐름에 맞춰야 합니다. 독단적이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행동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전 : 무리하지 마세요. 금전 융통이 되지 않아서 고전할 수 있습니다.

애정 : 시간을 가지고 서서히 진행해야 합니다. 마음은 있으나 망설이고 있다면 적당한 계기가 마련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96, 84, 72, 60, 48, 36년생은 25, 29, 4, 7일 길일. 24, 27, 30, 6일 주의.



말띠 - 심사숙고해서

운수 : 지나치게 신경 쓰는 것은 정신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마음을 밝게 갖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 :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많은 시기이니 금전 관리에 각별한 신경 써야 합니다. 특히 큰 거래는 심사숙고해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애정 : 너무 깊이 빠져 있으면 상대를 올바르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02, 90, 78, 66, 54, 42년생은 26, 27, 1, 5일 길일. 24, 28, 3, 6일 주의.



소띠 -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운수 : 소신껏 뜻을 펼치게 되는 여건이 갖추어질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더 큰 세계로 나가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금전 :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준비와 기반이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애정 : 새롭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겠습니다. 자신에게 크게 관심을 두고 있는 상대가 있을 수 있으니 주위를 잘 살펴보도록 하세요.

97, 85, 73, 61, 49, 37년생은 26, 30, 2, 3일 길일. 25, 28, 1, 4일 주의.



양띠 - 최선을 다해

운수 : 결단해야 할 시기가 왔으니 최종적으로 검토한 후에 추진하도록 하세요. 이것저것 너무 깊이 생각하다가 결정도 하지 못하고 시간만 지나갑니다.

금전 : 목표가 무난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심적으로도 여유가 생깁니다.

애정 : 서두르지 말고 최선을 다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보세요.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면 결국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24, 27, 2, 6일 길일. 25, 28, 1, 4일 주의.



범띠 - 귀담아 들어주어야

운수 :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어야 합니다. 언행에 조심하지 않으면 아주 사소한 일로도 구설에 휘말리게 됩니다.

금전 : 신규 사업이나 새로운 일에 힘을 쏟다 보면 본업에 소홀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습니다.

애정 : 상대에게 의심스러운 면이 있다면 그때그때 대화로 풀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로 오해가 생기고 멀어질 수 있습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24, 27, 1, 6일 길일. 26, 28, 29, 2일 주의.



원숭이띠 - 좋은 인연을 얻는

운수 : 퐁퐁 열었던 손도 마주 잡으면 금방 온기가 돌고 따뜻해집니다. 주위 사람에게 협조하는 자세로 나가면 좋은 인연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금전 : 수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일에 희망이 보이니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들어오는 것이 늘어날 것입니다.

애정 : 매력을 느끼는 상대가 나타납니다. 감정이 점점 뜨거워지면서 급진전하게 됩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25, 29, 3, 7일 길일. 26, 2, 5, 6일 주의.



토끼띠 - 오르막길도 있는 것이니

운수 : 당현실이 힘들다고 해서 마음마저 약해지지 마세요. 내리막길이 있으면 오르막길도 있는 것이니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금전 : 계산이 너무 앞서면 판단력이 흐려져서 실수하기 쉽습니다. 이득을 보고자 하는 마음은 잠시 내려놓으세요.

애정 :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침착하게 판단하여 원만한 분위기를 만들어보세요.

99, 87, 75, 63, 51, 39년생은 28, 1, 2, 6일 길일. 25, 27, 30, 3일 주의.



닭띠 - 크고 넓게 생각해야

운수 : 지금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만 곧 다가올 미래에 큰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금전 : 가까운 곳에서만 찾지 말고 크고 넓게 생각하면서 활동 범위를 넓혀보세요. 먼 곳에 귀인이 있으니 도움이 따를 것입니다.

애정 : 다소 서먹했던 관계에 변화가 생깁니다. 상대에 관한 생각의 변화로 전보다 더욱 가까운 관계로 발전하게 되겠습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25, 26, 29, 4일 길일. 24, 27, 3, 6일 주의.



용띠 - 눈앞에 흉련 불이

운수 : 눈앞에 흉련 불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다해서 전력투구해야 할 것입니다.

금전 : 자금 사정에 나아지면서 여유가 생깁니다. 차츰 숨통이 트이게 되겠습니다.

애정 :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한 사회활동 속에서 자신의 사랑도 찾게 될 것입니다. 이런저런 모임이나 행사에 많이 참여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00, 88, 76, 64, 52, 40년생은 29, 30, 3, 5일 길일. 24, 28, 1, 4일 주의.



개띠 - 대화로써 해결점을 찾도록

운수 : 스트레스로 인해서 심신의 피로가 쌓이기 쉽습니다.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그로 인한 소화가 장애까지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금전 :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상대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애정 : 상대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권태를 느끼고 있습니다. 대화로써 해결점을 찾도록 하세요.

94, 82, 70, 58, 46, 34년생은 27, 29, 5, 6일 길일. 25, 28, 4, 7일 주의.



뱀띠 - 조금씩 회복의 기미가

운수 : 전체적으로 침체된 분위기에서 벗어나면서 조금씩 회복의 기미가 보입니다. 하지만 온전히 좋아질 때까지는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금전 : 새로운 거래처가 나타나든지 좋은 조건으로 거래할 수 있는 제의를 받게 되는 시기입니다.

애정 : 자신감을 가지고 다가가 보세요. 주위에서만 맴돌다가는 좋은 배필을 놓칠 수 있습니다.

01, 89, 77, 65, 53, 41년생은 27, 28, 30, 4일 길일. 29, 1, 2, 5일 주의.



돼지띠 - 열과 성을 다하도록

운수 : 주변의 눈치를 살피다가는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 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은 신경 쓰지 말고 자기 일에 열과 성을 다하도록 하세요.

금전 : 당급할수록 돌아가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작은 것에 과욕을 부리지 말고 침착하게 일처리를 하세요.

애정 : 아무것도 아닌 일도 평지풍파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트집을 잡더라도 맞서서 상대하지 마세요.

95, 83, 71, 59, 47, 35년생은 24, 28, 3, 6일 길일. 26, 29, 5, 7일 주의.



놀라운 행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USA Today가 선정한 라스베가스 외 지역 #1 베스트 카지노, Yaamava' Resort & Casino at San Manuel은
짜릿한 경품행사 및 엔터테인먼트 등 멈추지 않는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매주 2대의 RANGE ROVER!

야마바가 Range Rover Velar 2대를 9월 매주 목요일마다
경품으로 드립니다! 한 달간 언제든지 게임을 즐기시고
8대의 럭셔리 SUV 중 하나에 당첨되는 행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행운을 빕니다!



PANTHÈRE DE CARTIER 세트의 행운을 잡으세요!

야마바에서 9월 1일 부터 30일까지 게임을 즐기시면,
Panthère De Cartier 컬렉션의 매혹적인 목걸이와 귀걸이
주얼리 세트를 차지할 수 있는 독점 기회를 드립니다.
행운을 빕니다!



YAAMAVA'
RESORT & CASINO
AT SAN MANUEL

LA에서 단 70마일 거리

777 SAN MANUEL BLVD., HIGHLAND, CA 92346 | 800-359-2464 | YAAMAVA.COM |
카지노 입장은 21세 이상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800-GAMBLER.



개국 32주년을 축하합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미국 최대 100대 은행 중 하나로 선정

구체적인 계획과 그에 맞는 실행이 있어야, 희망이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뱅크오브호프**는 지난 40여 년간 다져온 탄탄한 금융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국 내 최대 한인 은행**을 넘어, **아시아계 대표 은행**으로 성장했습니다.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맞춤형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는 **뱅크오브호프**이제, 금융 전문가를 넘어 지역 사회에 헌신하는 믿을 수 있는 이웃으로 당신의 작은 희망을 더 큰 현실로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Bank of Hope[®]

Bankers. Experts. Neighbors.